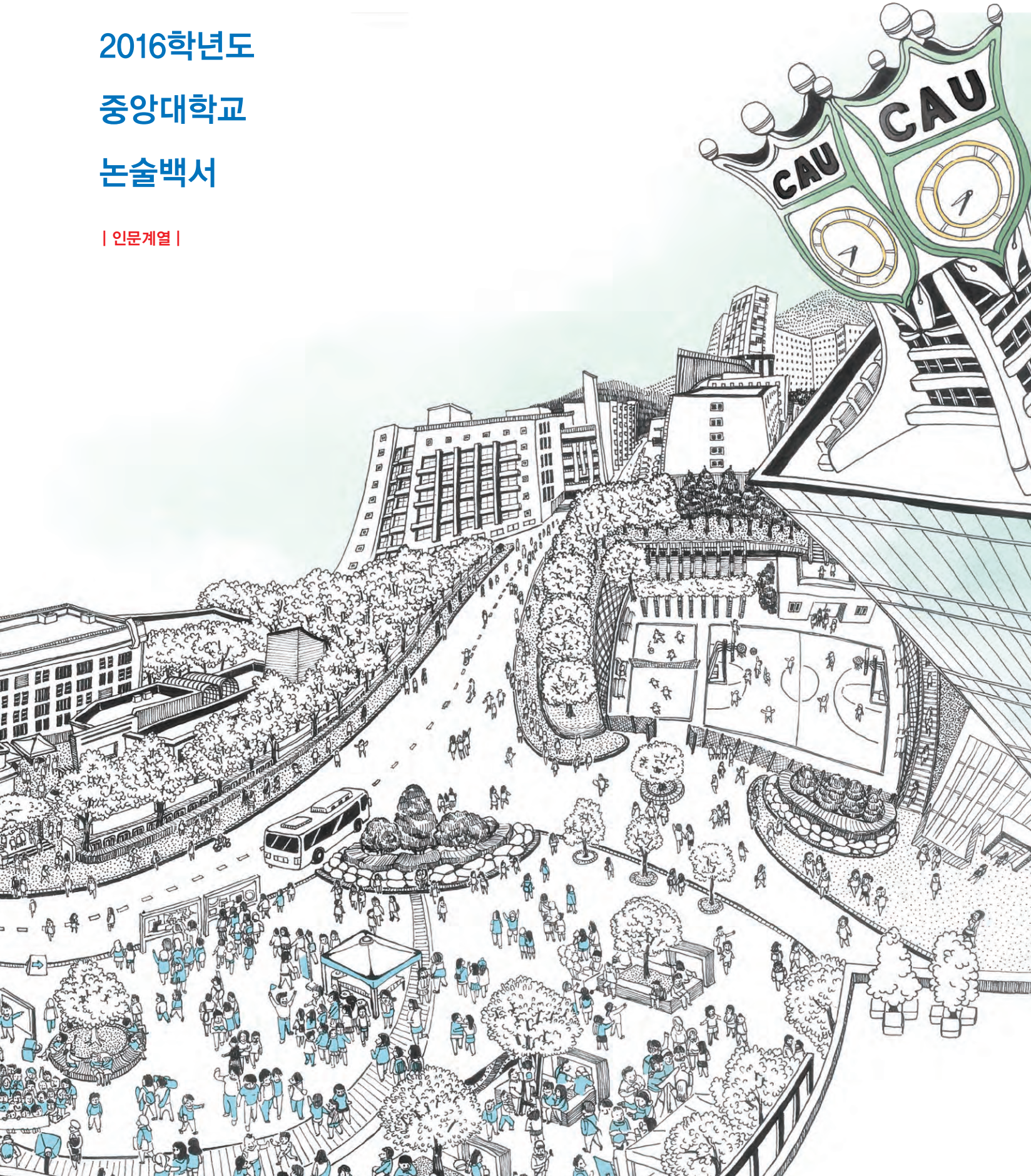
BECAUS

중앙대학교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백서

| 인문계열 |



잘 뽑는다!
잘 가르친다!

대학 혁신의 시작,
중앙대학교



Contents

제1장 :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목표와 평가방법

1. 21세기 인재상과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의 목표 005
2.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특징 : 통합 논술 시험 006
3.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구성 : 형식, 평가 요소, 문제 유형 007

제2장 : 통합 논술 시험의 대비법

1. 평가 요소별 대비법 013
2. 답안의 작성 018

제3장 : 문제 유형별 접근법

유형 1. 요약·비교형 028
유형 2. 비판·평가형 045
유형 3. 대안 제시형 067
유형 4. 적용·해석형 078
유형 5. 수리 논술형(경영경제계열) 091

제1장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목표와 평가방법

1. 21세기 인재상과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의 목표 005

2.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특징 : 통합 논술 시험 006

3.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구성 : 형식, 평가 요소, 문제 유형 007

1

CHUNG ANG 2016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목표와 평가방법

제 1 장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목표와 평가방법

이 장에서는 중앙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목표에 기반하여 평가 요소별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좋은 답안의 작성 요령을 소개한다. 첫째, 논술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논술 시험의 성격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은 통합 논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통합 논술이란 단순 지식이 아닌 다양한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상호 연계 또는 통합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표가 있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논술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험생들은 통합논술의 성격뿐 아니라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형식적 특징과 평가 요소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논술형 문항 3문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논술 2문제와 수리 논술형 문항 1문제로 구성된다. 평가 요소는 통합 논술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 부분과 전체에 대한 균형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대안 제시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생들은 이와 같은 평가 요소를 염두에 두고 이에 적합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01_21세기 인재상과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의 목표

중앙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은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양성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표가 있다. 21세기 사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개별 분야의 지식에 근거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단선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개별적 요인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밝히는 복합적 또는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지식의 성격은 사회 변화의 복합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가운데 사회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실과 그와 관련한 지식들을 편향적이 아니라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대학교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21세기형 인재상은 단순 암기에 능한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패러다임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의 출제 방향 및 평가 목표는 향후 중앙대학교에 진학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발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중앙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시험은 수험생들이 21세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고안·설계되어 있다. 특히 중앙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은 이해력, 분석적 사고력,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건설적 대안 제시 능력,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 글쓰기 능력 등 다섯 가지 차원에서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표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상의 이면까지 읽어낼 수 있는 이해력 또는 독해력, 다양한 요인들 사이의 다양한 연관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력, 문제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되 현실성을 담보하는 대안 제시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중앙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의 목표가 있다. 이러한 능력과 잠재성을 갖고 있는 인재가 21세기 세계화와 IT 혁명으로 상징되는 환경 변화의 요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실 적응력과 응용력,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성,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는 논술 시험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개별 교과목의 지식이나 능력만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본고사형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대안 제시 능력 등 수험생들의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되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논술 시험에서 활용되는 제시문은 100%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발췌하여 사용하고 있다.

키포인트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기본 방향과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이 접했던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 교과서와 EBS 교재의 지문을 100% 사용한다.
- 수리 논술 문제는 단순 암기, 개념과 공식의 기계적 적용, 복잡한 수리적 계산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논리적 사고를 수리적으로 전개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더 나아가 문제적 상황에 대한 창조적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논술 가이드북과 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제공된 출제 방향을 최대한 유지한다.

02_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특징 : 통합 논술 시험

위에서 밝힌 논술 시험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인문계열에서는 통합 논술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 논술 시험이란 문제의 유형이 개별 교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에서 소개되는 주제와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시험을 말한다. 따라서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고교 교과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의 모든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를 통합적으로 엮어 사고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통합이란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과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주제 또는 현상에 다면적으로 접근한 후 이를 다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논리적 틀로 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학문 분야에만 적용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개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통합 논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통합 논술에서는 하나의 개념을 여러 분야에 연계하여 적용하거나,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다층적인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통합 논술의 목적은 수험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습득한 단편적 지식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별 과목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합 논술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수험생의 '지적 잠재 능력'이다. 통합 논술 시험을 통해 수험생들이 제공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주어진 문제 상황을 논리적 혹은 수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합적 사고 역량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교과 분야의 지식만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주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문계열 논술 시험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기반한 통합 논술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합 논술은 특히 수험생들의 개별 교과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의 깊이뿐 아니라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다.

03_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구성 : 형식, 평가 요소, 문제 유형

1. 형식과 채점 기준

(1) 시험 형식

인문계열 논술 시험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인문사회계열의 제시문은 5~9개 내외이고, 전체 제시문의 길이는 6,000~8,000자 정도이다. 경영경제계열의 제시문은 이보다 약간 적은 5~8개 내외, 전체 제시문의 길이는 5,500~7,500자 정도이며, 수리 논술형 문제를 위한 부가 정보가 별도로 제공된다. 개별 제시문의 길이는 대체로 500자 내외에서 1,800자이다.

인문계열 논술 시험은 계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문사회계열과 경영경제계열로 구분되는데, 계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 논술형 3문항으로 구성되며,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 논술형 2문항, 수리 논술형 1문항이 출제된다. 계열별로 문제 유형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나, 두 계열의 논술 시험 모두 제시문과 주어진 상황들에 대한 분석적 이해력, 개별 제시문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재구성 능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인 표현력 등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유사하다. 계열별 논술 시험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

문제	문제 형식	제시문 수	제시문 분량	답안지 양식	배점	답안 분량	시험 시간
1	언어 논술	5~9개	6,000~8,000자 : 제시문 당 500~1,800자	원고지	40	550~570	120분
2	언어 논술			원고지	40	550~570	
3	언어 논술			원고지	20	400~420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

문제	문제 형식	제시문 수	제시문 분량	답안지 양식	배점	답안 분량	시험 시간
1	언어 논술	5~8개	5,500~7,500자 : 제시문 당 500~1,800자	원고지	40	550~570	120분
2	언어 논술			원고지	40	550~570	
3	수리 논술			공란	20	제한 없음	

(2) 평가 및 채점 기준

통합 논술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첫째, 제시문에서 제공되는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는 동시에 다양한 요인들 사이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능력이다. 또한, 주어진 대상 또는 현상에 대한 단편적 이해가 아니라 다양한 제시문의 논지를 통해 그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그들 사이의 유사·상이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현상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서로 분리하여 분석적 사고와 전체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사고의 균형을 평가한다. 셋째, 주어진 상황의 오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넷째, 주어진 현상에 대한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식의 단순한 나열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체계적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 개별적인 지식 또는 정보보다는 지식과 정보들 사이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부분과 전체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주어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문제 해결 과정과 제시한 대안의 창의성과 현실성을 함께 평가한다.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채점 기준은 내용적 측면과 기술적(記述的)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내용적 측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기술적 측면은 주로 문항별로 주어진 답안의 분량, 맞춤법, 원고지 작성법 등의 준수 또는 위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내용적 측면의 채점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❶ 내용적 측면 채점 기준 예시 : 201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1번의 사례

-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37점) : 8~37점
  - 기능을 모듈화하고 분할하는 방식의 나눔을 통해 대체 가능성,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 등을 증대한다.
  - 우연이나 운에 의해 배분받은 능력, 재능, 사회적 지위 등을 재분배를 통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 데이터를 나누어 받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일제히 공격하는 디도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산이라는 나눔의 방식이 영향력을 증폭시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 대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묶는 분류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개체들 간의 숨겨진 상호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 네 개의 제시문의 특징을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3점) : 0~3점
  -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1점),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❷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글쓰기의 기본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서 시작된다. 특히 언어 논술형 문항은 원고지를 사용하여 정해진 분량 범위 내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답안의 글자수 제한 등 글쓰기의 형식적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쓸 때 최대 5점을 감점한다는 점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수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 자	1점 감점
±26 자 이상	2점 감점

-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 최대 3점 감점
-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 최대 5점 감점

또한, 수험생들이 원고지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하여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 한 칸에 한 자씩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알파벳 소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는 한 칸에 두 자씩 쓴다.
- 문장 부호는 한 칸에 한 자씩 쓴다. 그러나 온점과 반점은 빈 칸에 표시하고, 줄임표(……)와 줄표(—)는 두 칸을 사용한다.
- 물음표(?), 느낌표(!), 줄임표(……)를 쓴 다음에는 한 칸을 비우고, 그 밖의 문장부호 다음에는 띄지 않는다.
- 글을 시작할 때와 새 단락으로 접어들 때는 첫 칸을 비운다.

2. 문제 유형

(1) 언어 논술형

언어 논술형 문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나, 가장 공통적인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논지를 담고 있는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여 요약하고 비교 분석하기
- 주어진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를 각각 분석하여 한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에 나타난 관점의 한계 또는 약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기
- 상반된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시문의 논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를 구성하기
- 특정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문의 논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기
- 제시문에 나타난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문제 해결의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기
- 특정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변화를 설정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예측하기
- 주어진 제시문 또는 자료를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기

(2) 수리 논술형

2014학년도부터 경영경제계열 논술에만 출제되는 수리 논술형 문항은 수험생들이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리적 능력에 기초한 논리적 사고 능력 또는 논리적 사고에 기초한 수리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수리 논술형 문항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리 문항의 답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인문계 수학 교과 과정의 기초적인 내용(방정식, 부등식, 함수, 수열, 미분, 적분, 확률, 확률분포 등)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험생들이 수리 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문계 수학 교과 과정 중 주어진 상황을 수리적으로 표현하여 요구하는 정답을 이끌어내는 응용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편, 사회 관련 교과서, 신문기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등장하는 정보와 이에 기초한 주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또한 분석 결과에 기초한 주장에 무리가 없는지를 평소에 파악해 보는 것도 수리 논술형 문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리 논술형 문항의 유형은 표와 그래프를 포함한 자료를 맥락에 맞게 해석하는 자료 분석 유형, 제시문 또는 주어진 상황을 수리적으로 모형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 문제에 제시된 수리적 절차를 수행하여 요구하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유형 등이다.

수리 논술형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제에 기초한 유형과 출제 가능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댓값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기
-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목적함수를 최대(최소)화하는 해 도출하기
- 경우의 수에 의거한 확률 계산 및 확률분포 유도하기
- 도표나 통계 자료의 분석에 기초하여 추론하기
- 수열, 극한, 미분, 적분, 행렬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추론하기

제2장

통합 논술 시험의 대비법

1. 평가 요소별 대비법 013
2. 답안의 작성 018

2 CHUNG ANG 2016

통합 논술 시험의 대비법

제 2 장

통합 논술 시험의 대비법

이 장에서는 통합 논술의 평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수험생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좋은 논술문을 쓰는 데 필요한 답안 작성 요령을 소개한다. 우선, 수험생들의 인문계열 논술 시험 평가 요소는 구체적으로 독해력, 분석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안 제시 능력,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의 결합 능력 등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개별 평가 요소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술 시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험생들이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논술문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논술문이란 자신의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쓰는 요약적인 글이라는 점을 숙지한 이후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확히 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에 따라서는 논술문의 형식적 요건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는 유형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수험생들은 답안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이다.

01_평가 요소별 대비법

1. 독해력 : '하나의 생각 단위'를 가진 글의 논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요약하기

인문계열 통합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가 요소별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많이 쓰며 많이 생각하는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교과 수업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논술 시험에 특화된 준비를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험생들로서는 다독, 다작, 다상량을 기본으로 하되, 논술 시험의 성격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논술 시험에 맞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술 시험에 활용되는 제시문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논술 시험의 제시문은 다양한 과목의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발췌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하나의 생각 단위'를 담은 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개별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인 것이다.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첫 단추는 이처럼 하나의 생각 단위를 담고 있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읽고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 활용되는 제시문들의 구성 방식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글읽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서 비교적 많은 수(5~9개)와 분량(전체 6,000~8,000; 제시문 당 500~1,800자)의 제시문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120분의 시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된 시간 안에 집중력을 유지하여 핵심을 읽어내는 독해력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개의 제시문들을 읽고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차이점을 분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문들의 논지들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하나의 생각 단위를 담고 있는 글을 10분 내외의 정해진 시간 안에 개별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기 위한 글읽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습은 교과서, 고전,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좋은 글들을 엄선하여 하나의 생각 단위를 담은 부분을, 핵심어를 염두에 두고 읽는 일종의 '선택적 읽기'(focused reading)를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에 대한 명확한 독해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읽고 핵심 논지를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장문의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기이다. 독해력이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압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기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글의 전체적인 논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키포인트

- 다독, 다작, 다상량을 중심으로 기본적 준비 하기
- '하나의 생각 단위'를 담은 다양한 글들을 읽기
- 핵심어를 염두에 두고 '선택적 읽기' 연습 하기
- 핵심 논지를 요약하는 연습 하기

2. 분석적 사고 능력 :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기

제대로 된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체계적인 독해력은 분석적 사고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분석적 사고는 대체로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제시문에 대한 해체의 과정이다. 제시문은 핵심 논지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저자의 주장을 담은 핵심 논지, 핵심 논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부연 설명, 핵심 논지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의 제시, 핵심 논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사례의 활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제시문의 다양한 구성 요소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각의 요소들로 해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핵심 논지 이외의 다른 구성 요소를 순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분석적 과정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둘째, 해체는 다시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시문의 해체를 통한 핵심 논지의 파악은 다수의 제시문들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다음으로 개별 제시문에서 추출된 핵심 논지들을(주로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하나로 다시 묶는 재구성이 이루어질 때, 개별 제시문들만 독해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다른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핵심 논지들은 다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분석적 사고는 개별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구성 요소의 해체와 이 과정에서 추출된 다양한 논지들을 재구성하고 하나로 종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분석적 사고에는 나누기 못지않게 다시 하나로 엮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키포인트

- 글의 구성 요소(핵심 논지, 부연 설명, 자료 제시, 사례의 활용 등)를 파악하기
- 핵심 논지 이외의 구성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기
- 다른 제시문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기
- 추출된 핵심 논지들을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기

3. 문제 해결 능력 : 비판적 사고와 뒤집어 생각하기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서는 특정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창조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 과정은 문제 해결의 시작인 동시에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자.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비판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논술 시험에서 필요한 비판적 견해는 특정한 관점과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제시문의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시문의 관점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교를 통해 관점의 차이가 부각되고, 각각의 장단점이 더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비판은 차이의 발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시문의 구성 요소들을 서로 대비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둘째, 비판적 사고가 부정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자. 논술 시험에 말하는 비판적 사고란 기존에 수용되고 있는 현상을 뒤집어 사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원인과 결과로 인식되던 것을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동일한 사실 또는 현상이라도 시간과 장소의 맥락이 바뀌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는지, 부분을 전체로 또는 전체를 부분으로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규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소에 교과 수업과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읽는 과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비판적 사고를 하되 사고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기존에 수용되고 있는 설명이나 주장에 문제 의식을 갖되, 자신이 제기하는 비판에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되묻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판적 사고는 자칫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에는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라 논리적 완결성과 현실적 제약을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키포인트

- 핵심 논지의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비판의 근거 확보하기
- 비판은 부정적 사고가 아니라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습하기
- 비판의 오류 가능성을 스스로 의심하는 사고의 균형 잡기

4. 대안 제시 능력 : 직관·통찰력에 기반한 상상력과 재조합을 통한 창조적 사고하기

문제 제기 또는 비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대안의 제시 없는 비판은 논리의 비약이나 현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창조성과 현실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주어진 제시문의 테두리 내에서 창조성을 발휘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문제의 테두리 내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논술 시험에서 필요한 창조적 사고는 추론적 토론(inferred discussion)이다.

이때 인문계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창조적 사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 사고는 상상력에 기반한다. 그렇다면 상상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기존의 축적된 지식을 직관 또는 통찰력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직관이나 통찰력이 창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면의 힘이며, 뒤집어 생각하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된 창조적 사고는 분석적 사고와 결합되어 다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감성적 공감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때 널리 확산된다. 신제품에서 문화적 유행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사고가 황당한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현실화되느냐 여부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창조적 사고가 현실적 조건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한적 조건 하에서 창조적 사고란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개 이상의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데서 창의적 사고가 시작된다. 물론 우리가 목격하는 변화 가운데 일부는 매우 파격적이고 때로는 공상적이기까지 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그러나 논술 시험의 창조적 사고는 아무런 제약 없이 또 구체적 근거 없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한을 고려한 대안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성을 위한 사고의 자유와 현실적 제약 사이의 긴장은 긍정적일 수 있다.

키포인트

- 직관·통찰력, 논리적 사고, 감성적 공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 두 개 이상의 핵심 논지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조합하기

5. 수리 논술형 문제 :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 결합하기

수리 논술형 문제는 수리적 능력에 기초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거나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수리적 결론을 도출하기를 요구한다. 주로 논리적 사고를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언어 논술형 문제와 달리 수리 논술형 문제는 수식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대안 제시의 방향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수리적 사고의 과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리형 논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리적 능력은 수학 교과목에서 배운 특정 개념과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보다는 수험생이 제시문과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여 답을 찾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리적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수리 논술형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 접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포인트

- 제시문과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02_답안의 작성

1. 인문계열 논술 답안 쓰기 기본 사항

글은 성격에 따라 감상문, 설명문, 비평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논술 답안은 특정 논제에 대하여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본인의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쓰는 요약적인 글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 좋은 논술답안이란 무엇보다 논리적이며 요약적인 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좋은 논술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주어진 논제에 따라 제시문을 잘 분석해야 하고, 둘째, 그 핵심 분석 내용을 압축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압축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논리적인 구조에 따라 연결해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논술 답안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문계열 논술 답안 마련을 위해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좋은 논술 답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사항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서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답안을 읽는 채점자들이 답안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좋은 답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채점자들이 수험생의 답안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저해가 되는 요소를 답안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는 곧 논술 채점자들이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문계열 논술 문제지 맨 앞 쪽에 나와 있는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잘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따르면 된다. 아래 표에 담긴 내용은 인문계열 논술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써야 합니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위 표의 내용이 보여주듯 인문계열 논술 문제지에 명시되어 있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보다 먼저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550~570자를 답안 작성 분량으로 요구하면 주어진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 분량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분량을 충족시키더라도 원고지 쓰기의 기본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일부 학생들이 원고지 쓰기 기본을 무시하고 답안의 글자를 매우 작게 써서 원고지 한 칸에 하나 이상의 글씨를 삽입하여 답안지의 2/3 혹은 심지어 1/2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띄어쓰기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도 평소에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1.jsp) 혹은 웹 상에서 구할 수 있는 맞춤법 검사기(예, http://urimal.cs.pusan.ac.kr/urimal_new/) 등을 활용하여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외에 채점자가 알아 보기 매우 힘든 글씨체나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 등을 쓰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처럼 답안 글의 형식을 잘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속의 여러 문장을 그대로 답안에 옮겨 쓰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피하도록 한다.

둘째, 문제를 꼼꼼히 읽고 해당 문제의 논제 및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다면 본격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답안 마련을 시작한다. 답안 마련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해당 문제를 꼼꼼히 읽고 그 문제의 논제를 잘 파악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최대한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답안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입시 논술의 특성상 논술 채점자들은 주어진 문제에 나타난 특정 논제에 대한 답을 학생이 제시문에 근거하여 답안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에 보다 더 관심이 있다.

실제로 논술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구상할 때 문제에 어떤 단어나 표현을 쓸 것인지 이를 문장으로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에 관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출제위원들에게는 문제에 사용하는 낱말, 표현 등이 출제위원들과 수험생들간의 유일한 소통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제에 쓰여진 낱말, 표현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다)에서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추론해 기술하라."는 문제와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다)에서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라."라는 문제는 '각각'이라는 낱말과 '추론'이라는 낱말에서 차이가 있다. '각각'이라는 낱말은 말 그대로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둘 다 병렬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고, '추론'이라는 낱말은 현상에 기초를 두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에 더 집중하여 기술하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답안은 문제의 낱말 하나하나를 고려한 답안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논술 채점을 해 보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한 예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혹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논거를 들어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답안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요약하면 수험생들이 문제를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철저히 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나의 완성된 글로" 또는 "논술"하라는 지시가 있는 문제는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조를 갖춘 답안을 써라.

인문계열 논술의 답안은 문제 유형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글쓰기 구조, 즉,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답안을 만들 것을 권장한다. 특히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1번 문제가 그러하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갖춘 답안 구성 작업은 학생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햄버거의 핵심은 물론 햄버거 빵 사이에 들어 있는 소고기, 닭고기, 야채 등의 내용물이다. 논제에 대한 수험생 자신의 답에 해당하는 핵심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빵이 없이 햄버거 고기만을 먹는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듯 만약에 논제에 대한 주장과 그 논거들만 쭉 늘어놓으면, 채점자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답안을 읽어야 할지 난감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답안에도 서론과 결론이 필요하다. 답안의 서론이 수험생 자신이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를 제시해 주는 햄버거의 위쪽 빵이라면 답안의 결론은 서론에서 제시된 논제에 명쾌한 답을 주며 본론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햄버거의 아래쪽 빵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논리 구조는 문제에 핵심어가 주어지고 각 제시문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문제의 답안 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시문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나눔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제시문 (다)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라."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양한 지문을 고려하여 특정 지문에 나타난 한계 및 대안적 자세를 기술하라는 것으로 본인의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결합할 것인지에 관한 설계도가 필요하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논리적 구조가 이런 유형의 답안 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 논술처럼 통합형 논술은 개별 교과목이 다루는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에서 발췌한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이에 대하여 비교적 짧은 글을 연결하여 답을 써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이러한 논리적 구도를 담은 설계도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답안을 고안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논리적 구조를 사용하면 채점자에게 수험생 자신의 견해를 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로 의사소통을 할 때 의미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하지만 글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는 이러한 수정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공인된 형식이나 구조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답안을 작성할 때 문제의 의미를 파악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된 글자의 수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수험생들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분량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의 요지만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의 분량을 사전에 세세하게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아래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좋은 서론, 본론,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키포인트

- 답안 작성 유의 사항 숙지하기
- 문제 논제 및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 논리적 구조를 갖춘 답안 쓰기

3. 서론, 본론, 결론 쓰기

(1) 서론 쓰기

자신이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를 명확하게 한두 문장으로 기술해 주는 서론은 좋은 답안의 토대를 마련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그 이유는 서론에 담긴 한두 문장이 채점자들이 답안에서 처음 보는 글이기 때문이고 또한 수험생이 주어진 논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채점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곧 명확한 논지를 담은 서론이 있으면 채점자로서는 그만큼 답안을 보다 흥미를 가지고 읽게 되는 반면에, 명확하지 않거나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계적이고 일반론적인 서술이 담긴 서론은 답안 글 전체의 전달력을 약화시켜 채점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확한 논지를 담고 있는 서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답안의 서론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문이 본론의 모든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문계열 논술은 제한된 답안 공간에 하나의 완성된 글을 요구한다. 이는 곧 답안에 담기는 문장들이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핵심적 주제 문장이 서론에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론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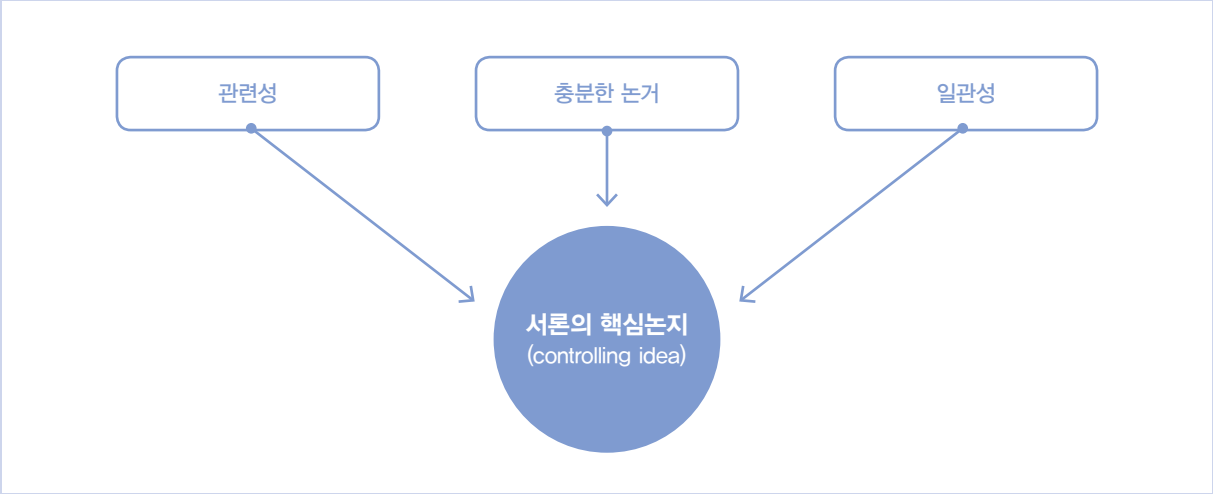
(2) 본론 쓰기

서론이 한두 문장으로 자신이 전개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곳이라면, 본론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사례 제시 혹은 논리적인 부연 설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본론의 문장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서론에서 밝힌 자신의 논지와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가 어떤 문학작품에 나타난 시(詩)의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내는 효과를 설명하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본인의 논지의 핵심을 서론에서 "시적 재료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의 창출"이라고 밝혔다고 하자.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예를 들면 "일상의 언어가 시로 변형되고 이를 통해 독자의 경험이 확장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례를 제시문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제시문들은 수험생들이 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자신의 논지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예를 찾아 본문에 사용하면 된다. 논증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고 필요할 경우 이를 자신의 견해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본론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답안의 분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주요 논지와 관련성 있는 논거를 본론에서 일관성 있게 연결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문장들을 열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자신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논거의 경중을 따져서 보다 더 중요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서술할 수도 있고, 논거를 범주화해서 부분부분으로 나누어 그것들 간의 특징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서술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좋은 본론이란 아래 그림처럼 서론에서 제시한 본인의 주요 논지를 뒷받침해 주는 연관성을 가진 문장들이 서로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서술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결론 쓰기

논술 답안 작성에서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좋은 결론을 쓰는 일이다. 사실 논술 답안 작성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도 그러하며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답안의 본론을 쓰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의 논술 답안을 평가하는 채점자들에게는 답안의 결론이 가장 마지막에 보는 글이 되며 이는 곧 결론이 답안 전체에서 채점자들의 기억에 상대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남을 수 있는 부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답안 전체에서 결론은 중요한 부분이며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좋은 결론을 만들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먼저, 결론에서는 서론에 밝힌 문제에 대한 자신의 논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다시 한번 채점자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론의 핵심 논지를 자신의 말로 간략하게 다시 풀어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둘째, 결론에서는 답안 본론의 주요 논거를 어느 정도 요약할 필요는 있지만 채점자들이 이미 그 내용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요 핵심 논거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일반화된 상위 개념으로 대치하여 가공하고 이것들을 연결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해당 문제가 어떤 현상의 한계나 문제점에 관한 대책이나 보완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면 결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명쾌한 본인의 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요약하면, 결론이란 채점자들에게 서론에서 제시된 논지를 간략히 상기시키며 논제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답변을 제공해 주어 답안 전체가 완결되었다는 느낌을 강조해야 한다. 본론의 연장선에서 급하게 끝을 맺는 경우, 글의 마무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결론에 적당한 분량을 배분하여 명쾌한 결론이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문계열 논술 답안을 채점해 보면 학생들이 무리하게 논지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런 유형화를 결론으로 오인하고 답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데 이런 것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서론, 본론, 결론을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답안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론에 주된 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을 찾아내어 보완한다. 그리고 문장의 주술관계를 살펴 애매모호한 문장이 없도록 하며 어문 규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적절히 수정하도록 한다. 심한 구어체, 비속어, 사투리의 사용 등도 피해야 할 점이다.

키포인트

- 서론 :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를 한두 문장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기
- 본론 : 제시문에서 논거 도출 및 논리에 맞게 논거 연결하기
- 결론 : 논거를 융합하여 논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 제시하기

4. 실제 문제와 답안에 대한 논평 예시

문제 예시

2015학년도 수시논술 인문사회계열 1번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나누다(쪼개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학생 답안 예시

제시문 (가), (나), (라)는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쓰인 나눔 방식을, 제시문 (다)는 문제 상황을 초래한 '나눔'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주어진 복잡한 문제를 작게 여러 개로 쪼개어서,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나)에는 우연적으로 분배된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사회적 여건을 공동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생물을 유사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나눔으로 생물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는 복잡한 문제 해결, (나)는 사회적 문제 해결, (라)는 생물학적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눔을 사용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는 악의적 목적으로 나눔을 사용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학생 답안 예시 : 서론

제시문 (가), (나), (라)는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쓰인 나눔 방식을, 제시문 (다)는 문제 상황을 초래한 '나눔'을 말하고 있다.

[학생 답안 서론 논평]

- 답안 작성의 기본은 문제를 꼼꼼히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어는 "각 제시문", "나눔의 효과와 방식", "어떻게 다른지"이다.
- 특히, 문제에 "각 제시문"이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나), (라)와 (다)의 이항 대립구조의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인상을 답안의 서론에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답안에서 반복되는 "문제 상황"이라는 어구 또한 모호하여 (가), (나), (라)와 (다)사이에서 "나눔의 효과와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예시답안에서 부족한 점이다.
- 요컨대, 이런 문제의 서론 문장으로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 수준에서, "네 개의 제시문들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 답안 예시 : 본론

제시문 (가)에서는 주어진 복잡한 문제를 작게 여러 개로 쪼개어서,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나)에는 우연적으로 분배된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사회적 여건을 공동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생물을 유사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나눔으로 생물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학생 답안 본론 논평]

- 본론 쓰기의 기본은 답안의 분량이 허용하는 내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논제에 대하여 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선 본 예시 답안은 결정적으로 제시문 (다)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 각 제시문에 대한 논의 역시 '방식'과 '효과'를 병렬적으로 각각 기술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일관성 있게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 각 제시문에 대한 논의에서 '~라는 방식을 통해', '~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논거를 제시하였으면 채점자가 읽기에 훨씬 더 명확한 본론이 되었을 것이다.

-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제시한다' 혹은 '보여준다'라는 술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 논술 시험이 요구하는 논제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항상 열정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음을 채점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학생 답안 예시 : 결론

(가)는 복잡한 문제 해결, (나)는 사회적 문제 해결, (라)는 생물학적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눔을 사용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는 악의적 목적으로 나눔을 사용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학생 답안 결론 논평]

- 본론의 주요 논거를 키워드의 형태로 압축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시도는 바람직하다.
- 그러나 수험생은 결론에서 채점자들에게 서론에 제시된 논지를 간략히 상기시키며, 논제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 주어 답안 전체가 완결되고 있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예시 답안의 결론은 본 답안의 논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논제에 대한 답을 바로 서술하다 보니 독자인 채점자로서는 갑작스러운 느낌이 든다.
- 또한, 문제가 나눔의 방식과 효과를 모두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론에서는 나눔의 결과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 또한 아쉽다.
-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가), (나), (라)와 (다)의 이항 대립구조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 결론의 구성에도 이 구도가 반영되어 그 구조가 매우 어색하다. 모든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서론 문장이 왜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생 답안 총평 : 꼼꼼한 문제 분석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답안임]

- 논술 답안 마련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해당 문제의 발문을 꼼꼼히 읽고 그 문제의 논제, 즉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유의해야 할 단어는 '각 제시문', '나눔의 효과와 방식', '어떻게 다른지'이다.
- 본 문제의 답안 구성시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무엇보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각각의 나눔의 방식이 일으키는 효과를 각 방식 별로 병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서론을, "네 개의 제시문들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쓰고, 본론에서는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의 방식을 언급하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요약하여 기술한 다음, 결론에서 각 나눔의 방식의 차이와 각각의 방식이 가져오는 효과를 좀 더 일반화된 상위개념으로 대치하고 이것들을 연결하여 간략하게 다시 쓰는 것이 효과적인 본 문제 답안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문제 유형별 접근법

유형 1. 요약·비교형 028

1. 문제 유형 개요 028
2. 문제 유형 파악하기 029
3. 문제 해결하기 031
4. 실전 문제 풀이 038

유형 2. 비판·평가형 045

1. 문제 유형 개요 045
2. 문제 유형 파악하기 046
3. 문제 해결하기 050
4. 세부 유형별 접근법 055
5. 실전 문제 풀이 059

3 CHUNG ANG 2016

유형 3. 대안 제시형 067
1. 문제 유형 개요 067
2. 문제 유형 파악하기 068
3. 문제 해결 하기 071
4. 실전 문제 풀이 074

유형 4. 적용·해석형 078
1. 문제 유형 개요 078
2. 문제 유형 파악 079
3. 문제 해결 하기 081
4. 실전 문제 풀이 084

유형 5. 수리 논술형(경영경제계열) 091
1. 문제 유형 개요 091
2. 유형 파악하기 091
3. 기댓값에 근거한 의사결정 유형 092
4.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목적함수를 최대(최소)화 하는 유형 095
5. 경우의 수에 의거한 확률 계산 및 확률분포를 유도하는 유형 099
6. 향후 출제 가능한 유형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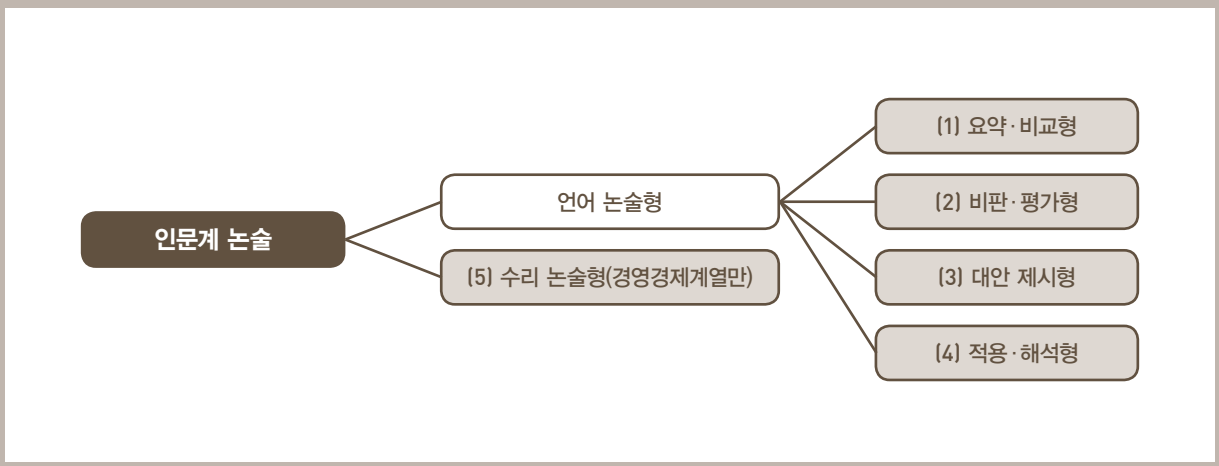
문제 유형별 접근법

제 3 장

문제 유형별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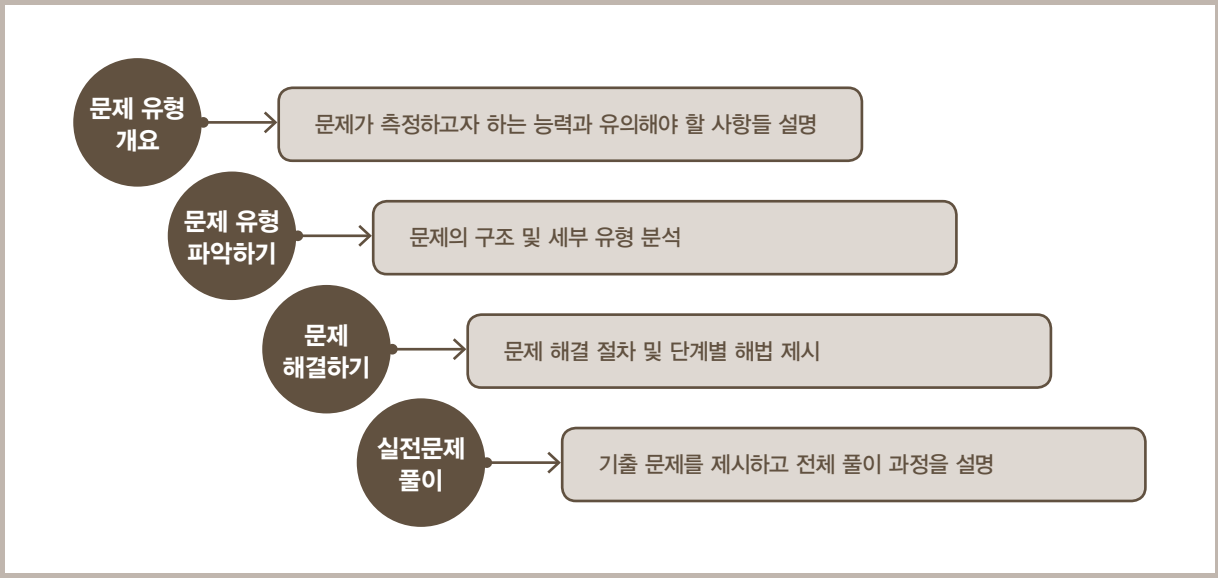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중앙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풀이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살펴볼 기출 문제들은 모든 제시문을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 가져와 사용하기 시작한 2013학년도 수시논술 시험부터 2015학년도 수시논술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인문계 논술 시험 문제를 자세히 살펴 보면 하나의 문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두세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결합 문제의 경우 답을 하기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유형들을 파악하고 각각의 풀이 방법을 익혀 둔다면, 이들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인문계 논술 기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은 기본 문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언어 논술형과 수리 논술형(경영경제계열 시험에서만 출제됨)으로 분류하고, 언어 논술형은 다시 요약·비교형, 비판·평가형, 대안 제시형, 적용·해석형으로 세분화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총 5가지 기본 문제 유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각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문제 유형 개요, 문제 유형 파악하기, 문제 해결하기, 실전문제 풀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유형 개요'에서는 문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한다. '문제 분석하기'에서는 문제의 구조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변형 유형이 존재하는 경우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문제 해결하기'에서는 단계별 문제 해결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미션'과 '해법'을 제시하고 예시와 함께 실제 풀이 과정을 보여준다. '실전문제 풀이'에서는 설명한 문제 유형에 속하는 기출 문제를 제시하고 수험생으로 하여금 앞서 배운 문제 해결 과정을 적용하여 직접 풀어보도록 하였다. 이어서 문제 풀이 과정을 제시하여 자신의 문제 풀이 과정 및 답안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 중간 중간에는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한 '키포인트'를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이해와 정리를 돕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기본 문제 유형을 잘 숙지하고 풀 수 있다면, 이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꼭 유념할 점은, 이 장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본 문제 유형은 과거에 출제된 바 있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유형들임에는 분명하지만, 향후 중앙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에 출제될 문제 유형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미래 사회 인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변화하게 된다면 논술 시험 문제 유형 또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논술 시험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소개하는 다섯 가지 기본 문제 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도 평소에 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형 1. 요약·비교형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고 차이 비교하기

01_문제 유형 개요

중앙대학교 인문계열에 출제된 논술 문제 유형 중 하나가 요약·비교형이다. 요약·비교형은 각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제시문을 관통하는 핵심어를 기준으로 제시문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유형이다.

요약은 개별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축약하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숨겨진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비교는 각 제시문을 핵심어를 기준으로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것이다.

요약·비교형 논술문제는 수험생들의 정확한 독해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 생각보다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여 제시문에서 핵심어를 도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각 제시문을 포괄하는 공통적인 핵심어를 찾고,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해체하고, 축약하고, 제시문 간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비교하는 분석적 사고 능력도 요구된다. 분석적 사고와 독해력을 통해서 구성된 내용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기 위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춘 논리적 글쓰기 능력도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02_문제 유형 파악하기

요약·비교형 문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핵심어가 문제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요약·비교형과 제시문에 핵심어가 제시되지 않은 요약·비교형이 있다.

핵심어가 제시되지 않은 요약·비교형 문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2013 인문계열 II-1번]

(가), (나), (다), (라)의 논지 차이를 비교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위의 문제는 핵심어 없이 각각의 제시문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차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핵심어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핵심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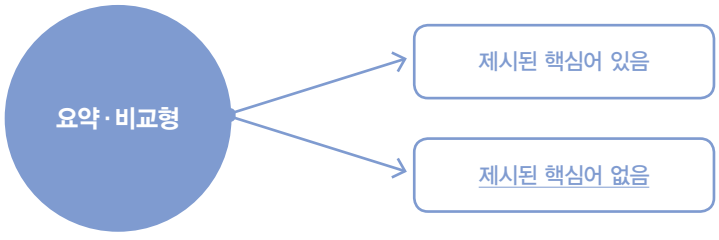
핵심어가 제시된 요약·비교형의 경우는 동기, 역할, 방식, 양상, 인식, 방식, 원인 등이 핵심어로 주어진다. 출제된 문제에서 의도하는 핵심어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출제 의도에 적절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다.

핵심어가 제시된 문제 유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2015 인문계열-1번]

(가), (나), (다), (라)는 '나누다(쪼개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위 문제에서 핵심어는 '나눔(쪼갬)'에 국한되지 않고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 2가지 양상을 포함하고 있는 핵심어를 포함하는 문제이다.



요약·비교형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한다.**

〔해법 1〕 문제 핵심어 유무를 확인한다.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에서 제시된 핵심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핵심어가 있는 경우 다음의 단계로 진행한다.

〔해법 2〕 핵심어가 제시된 경우 핵심어와 핵심어의 특성이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핵심어가 있는 문제는 핵심어 자체만 제시되었는지, 핵심어의 특성을 언급하였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올바른 독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핵심어의 특성이 제시된 경우 핵심어의 특성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제시문을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키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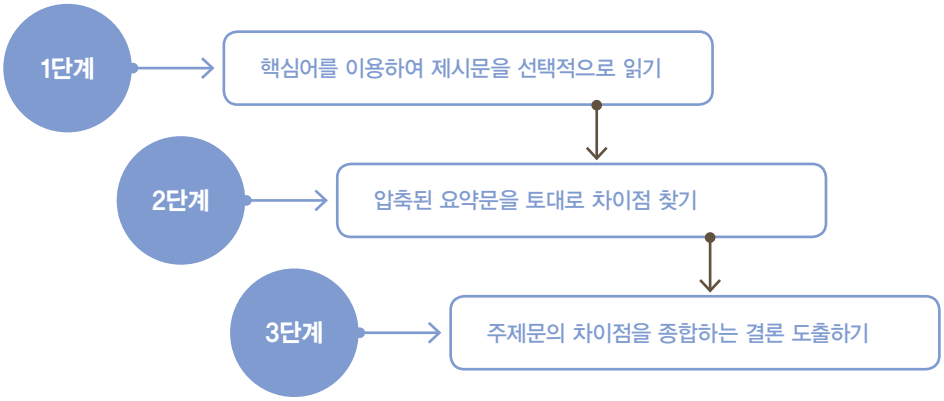
- 〔해법 1〕 문제 핵심어 유무를 확인하기
- 〔해법 2〕 핵심어가 제시된 경우 핵심어 특성 유형에 파악하기

〔연습 문제〕 다음은 2013–2015년 기출문제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 유형 파악하기 원리에 따라서 분석해 보시오.

문제유형	핵심어 유무	핵심어 특성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2015 경영경제–1번]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기억의 역할'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2015 모의 인문사회/경영경제–1번]		
'모방의 동기와 결과'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2014 경영경제–1번]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차이점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2014 모의 인문사회/경영경제–1번]		
'대상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2013 인문계열 Ⅰ–1번]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관계 맺음 방식'의 특징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2014 인문계열 Ⅱ–1번]		

03_문제 해결하기

1. 핵심어가 제시된 요약·비교형



1단계 :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선택적으로 읽고 요약하기

〔해법 1〕 다양한 논지를 포함하는 제시문을 핵심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문제에 핵심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핵심어에 집중하여 '선택적 읽기'(focused reading)를 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각 제시문을 특정 개념이나 주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논지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 즉, 같은 제시문 일지라도 학교 교과목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논술 시험에서 다루고자 한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제시문에 대한 선행 지식을 배제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핵심어에 집중해서 글을 읽고 재구성**해야 한다.

다음의 예시 제시문을 통해서 스키마 개념이 개별 교과목에서 다루어질 때와 논술 문제에서 다루어질 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제어(핵심 논지)에 대한 이해 차이 예시 1

- 국어 교과서에서 스키마 개념은 독서의 수월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특정 개념에 대한 도식이 있으면 독서할 때 용이함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스키마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 2015 경영경제계열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의 차이에 대한 제시문에서 스키마는 선택이 발생하는 동기라는 핵심어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제시문에서 선택이 발생하는 동기는 대상을 인식하고 기억할 때 스키마라는 사고의 틀을 통해 대상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변형하고 정교화함으로써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예시는 스키마라는 주제가 국어 교과서와 논술 문제에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스키마 이론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나 선행 학습을 전제로 두고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정형화하거나 기계적 해석을 하여 요약하면 안 된다.** 제시문을 읽을 때 **핵심어에 집중된 글읽기와 논지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자.

또 다른 예시를 통해서 학교 교과와 논술 출제의 제시문의 논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주제어(핵심 논지)에 대한 이해 차이 예시 2

- 디도스를 고등학교 정보교과서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서 제시하면서 네트워크 침해유형(해킹)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디도스는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특정 사이트 공격을 위해 도구들을 컴퓨터에 분산 전송하여 시스템의 과부하로 사용자들을 사이트에 접속을 막는 방식이라 점을 강조하고 있다.
- 2015년 인문사회계열 논술에서 디도스는 나눔의 방식과 효과와 연관지어 해석되어야 한다. 디도스는 '분산'이라는 나눔의 방식을 취하고, 분산 방식은 파급의 위험성이나 효과가 매우 광범위해지는 것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디도스를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하여 해킹의 한 유형으로 소개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논술에서는 나눔의 방식과 효과 면에서 분산, 위험의 파급효과 증대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해법 2)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해체하고 분류한다.

핵심어나 핵심특성이 제시되었으므로 제시문의 각 문단을 핵심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핵심문단(주제문)과 그 외 문단으로 분류한다.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핵심어와 핵심 문단, 예시 문단, 부연 문단 등으로 문단을 분류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핵심 문단을 다시 읽고 핵심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서 문장에 표시를 하고, 관련성이 낮은 문장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핵심어에 가장 근접한 문장(주제문)을 찾아야 한다.

(해법 3) 분류된 문단에서 핵심어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문장을 선택하고 나머지 문장은 삭제해야 한다.

핵심어가 단순히 하나의 단어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양상이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면 제시문의 여러 곳에서 핵심어와 관련된 문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핵심어와 관련된 여러 문장을 찾게 된다면 각 문장에서 핵심어와 공통되는 점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시문에서 핵심어가 비유적이거나 암시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 수험생들은 핵심이 되는 문장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 상징적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찾고, 핵심어와의 관계를 유추하여 주제 문장을 선택해야 한다.

문제에서 제시된 핵심어 : 기억의 역할

(1)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 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사례 부분)

(2)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주제문)**.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핵심 부분)**

(3)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부연 부분)**

(수능기출플러스 국어영역, 독서, EBS)

좌측의 제시문은 기억의 다양한 역할 차이를 살펴보는 문제에서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기억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의 3개 제시문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찾는다. 문단(1)은 영웅 사례 소개로 핵심어와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문단(2)는 후대인들이 영웅을 만드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억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라는 문장에 핵심어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핵심 문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문단(3)은 기억의 역할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문단으로서 핵심어가 포함되지 않아 삭제해야 한다.

주어진 제시문을 해체하여 핵심 문단을 제외한 그 외 사례 문단이나 부연 문단은 삭제하고 핵심문단 내에서 핵심어와의 주제문을 찾는다.

키포인트

1단계 미션 : 핵심어 중심으로 제시문 읽기

- [해법 1] 핵심어를 이용한 선택적 읽기와 요약하기
- [해법 2]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해체하고 분류하기
- [해법 3] 분류된 문단에서 핵심어를 다룬 문장 선택하기

2단계 : 압축된 요약문을 토대로 차이점 찾기

(해법 1) 핵심어를 이용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제시문의 주제 문장들의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핵심어를 기준으로 이용하여 각 제시문에서 찾아진 주제 문장들의 소재와 핵심 요지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문제에서 공통적인 '핵심어'가 주어지지만 각 제시문이 핵심어를 표현하는 양상이나 방식이 다르므로 이에 초점을 두고 차이점을 서술해야 한다.
각 제시문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핵심어를 배제한 상태에서 제시문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출제 의도에 벗어난 답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이 비교의 기준이 핵심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제문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문을 활용해 보자.

2015 모의 인문사회/경영경제계열 1번 문제 제시문의 주제문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 :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혹은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과 결합해 있다는 점, 인간의 유한성 극복할 수 있다.
- 제시문 나 : 고향(싱아)에 대한 기억은 주인공을 타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임과 동시에 주인공이 타향살이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 등을 달래주는 원천이 된다.
- 제시문 다 : 병원체에 대한 기억이 세포에 남아 이후 동일한 항원이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함으로써 후천성 면역 반응이 가능하다.
- 제시문 라 :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집단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억 관리의 산물로 보고 있다.

주제문의 차이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1) 각 제시문을 핵심어를 이용하여 압축적으로 요약한다. 위 제시문의 주제문을 요약하면 과거의 기억으로 삶을 성찰하여 유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학작품(소설)을 소재로 과거의 기억으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과학 소재를 통해서 병원체에 대한 기억이 면역반응을 보이며, 영웅은 선택적이고 집단적인 기억 관리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2) 기억이라는 공통의 핵심어로 다양한 기억의 역할을 대조,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야 한다.

(해법 2) 핵심어의 특성이 다수인 경우 각 특성별로 제시문의 차이점을 찾는다.

가령 문제에서 '나눔의 방식과 효과'라는 2가지 특성에서의 차이를 요구하고 있다면 '나눔의 방식' 측면에서 제시문들을 비교하고, 또한, '나눔의 효과' 측면에서 제시문들의 차이를 찾아야 한다.

핵심어의 두 개 특성을 포함하는 제시문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답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핵심어가 다수인 차이 비교하는 답안 작성 예시 : 나눔의 방식과 효과

(가), (나), (다), (라)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나눔과 그 효과를 보여 준다. **나눔의 방식면에**서 제시문 (가)는 분할, 제시문 (나)는 분배, 제시문 (다)는 분산, 제시문 (라)는 분류 라는 차이가 있으며, **나눔의 효과는 각각** 경제성, 사회정의 구현, 영향력의 확대, 체계화 등과 같이 **다르게** ……

각 제시문은 나눔이라는 핵심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나 4개 제시문의 핵심어인 분할, 분배, 분산, 분류를 통해서 나눔의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나눔의 효과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복수의 행동 특성에 대한 답안이 작성되어야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것이 된다.

키포인트

2단계 미션 : 압축된 요약문을 토대로 차이점 찾기

- [해법 1] 핵심어를 기준으로 각 제시문의 주제 문장 찾고 차이점 도출하기
- [해법 2] 다수의 핵심어 특성이 있는 경우 모든 핵심어 특성별로 차이점 비교하기

3단계 : 제시문들의 차이점을 종합하여 결론 도출하기

(해법 1) 제시문들의 차이점 전체를 관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제시 한다.

전 단계에서 제시문들의 차이에 대해서 파악되었다면 이를 종합할 수 있는 과정이 이 단계의 핵심이다. 제시문의 요약 차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차이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결론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각 제시문은 핵심어를 문학작품, 과학적 현상, 예술활동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면에 숨겨져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수위로 표현된 차이점 간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전체로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화하여 결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앞의 제시문에서 기억의 역할 차이를 제시하였다고 가정하고 제시문을 일반적 수준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시문 다 : 병원체에 대한 기억이 세포에 남아 이후 동일한 항원이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함으로써 후천성 면역 반응이 가능하다.
- 결론 :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미래에 직면할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기억의 역할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위의 답안에서는 '병원체에 대한 기억이 후천성 면역기능을 한다는 자연과학 현상'을 '과거 경험이 미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는 사회과학 현상'으로 일반화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분과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론은 개별적으로 차이점을 기술하거나 비교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추상화의 수준을 조정하여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해법 2) 종합된 결론을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 하나의 글로 완성해야 한다.

종합한 결론은 논리적 글로 완성하여야 좋은 답안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들의 차이를 자신의 견해를 종합하여 제시할 때, 글쓰기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서론–본론–결론에 부합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답안 채점시에 제시문들의 차이점을 기술하는데 서론과 결론은 없는 채로 본론에 해당되는 차이점만 기술하는 경우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의 예시문을 통해서 완성된 글을 위한 서론과 결론의 표현을 참조해 볼 수 있다.

답안의 서론 예시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대상의 인식**이라는 문제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드러낸다.

답안의 결론 예시

이와 같이 모방의 동기는 자발성과 사회적 유용성 등에서 나타나고, 그 결과는 기술 발전과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성 역할의 고착과 부정적 사회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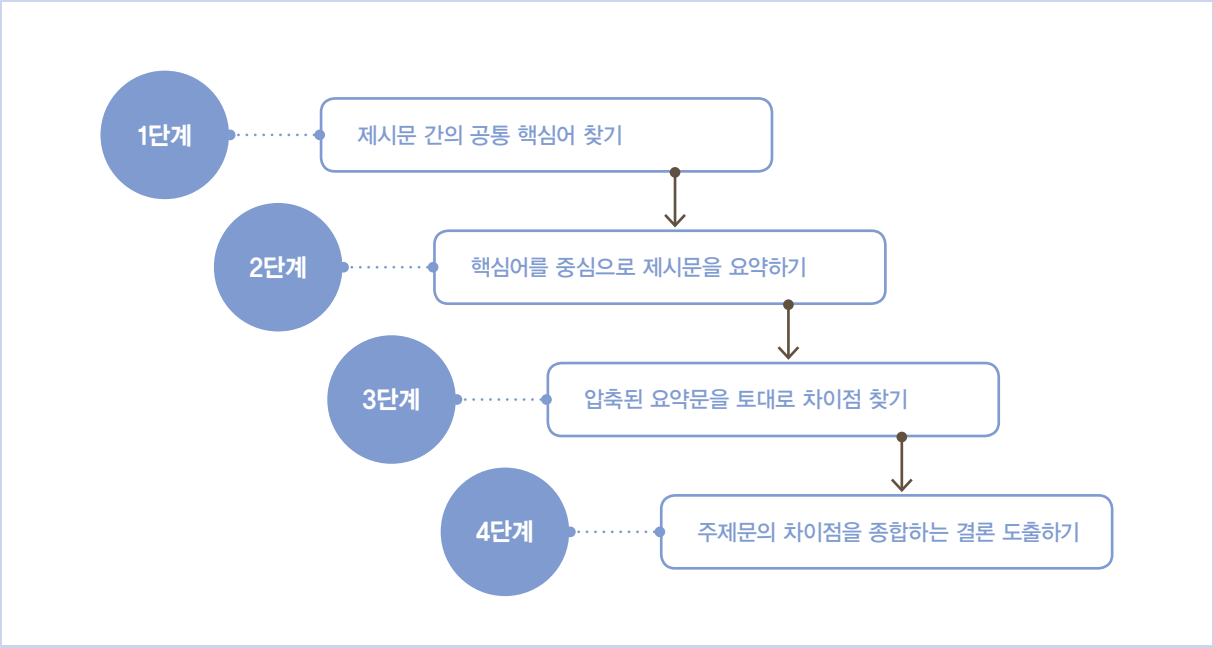
위에서 제시한 예시문에서 답안의 서론은 대상의 인식이라는 핵심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문제와는 다른 표현 방식으로 논지의 전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답안의 결론은 핵심어가 되는 모방의 동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각 제시문의 구체적 내용을 '자발성과 사회적 유용성, 성 역할의 고착과 부정적 사회화'라는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마무리함으로써 결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키포인트

3단계 미션 : 차이점을 종합하여 결론 제시하기

- [해법 1] 제시문들의 차이점을 관통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제시 하기
- [해법 2] 자신의 종합 결론을 논리적 구조에 맞게 완성하기

2. 핵심어가 제시되지 않은 요약·비교형



핵심어가 제시되지 않은 요약·비교형의 문제 해결은 앞의 유형과 1단계에서 차이가 있고 2단계–4단계는 동일하므로 본 절에서는 1단계 '공통 핵심어 찾기'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1단계 : 전체 제시문의 공통 핵심어 찾기

〔해법 1〕 4개의 제시문을 관통하는 공통 핵심어를 도출한다.

네 개의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핵심 논지 또는 핵심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겉으로 보기에 상이한 내용들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평소에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의 독해 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래의 '질문하기' 내용들을 활용하여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논지나 핵심어를 나열한 후 이를 분석하여 공통되는 부분을 찾고 공통 핵심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질문하기 〕

- 읽은 제시문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가?
- 제시문들에서 **반복되는 이미지나 생각**이 있는가?
- 제시문의 내용 가운데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가?
- 제시문들이 모두 같은 것을 이야기 하는가 아니면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 바가 있는가?
- 읽은 제시문이 **다른 제시문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가?
- 저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가? 제시문의 **어조**는 어떠한가?
- **표면적인 주장**과는 **다른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음은 주어진 각 제시문에서 핵심어를 도출한 것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공통 핵심어를 도출해 보자.

- 제시문 가 : 독재 권력에의 순종, 자유 의지와 비판적 시각을 갖지 못하고 독재자에게 자발적 동조하는 행동, 독재권력의 기만적 통치
- 제시문 나 : 상황적 압력과 요구에 굴복,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
- 제시문 다 : 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판결에 저항, 법의 권위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부당한 판결 수용, 신념에 따른 행동
- 제시문 라 : 대중매체의 영향, 무비판적인 타인의 모방으로 행동

열거된 핵심어들을 대상으로 위의 질문하기 유형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질문하기 중에서 '반복되는 생각'을 적용하여 제시문을 분석한다. 제시문 모두는 '행동(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제시문의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하기를 활용하면 (가)와 (나)는 상황적 압력이나 자유의지의 부족 등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 (라)는 모방행동 등으로 내용 간의 상충이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행동하는 자신의 의지, 주변의 상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파악할 수 있고, '행동'이라는 핵심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행동의 동인'이라는 공통점까지 찾을 수 있게 된다. 행동 자체가 핵심어가 아니라 '행동(행위)의 동인(동기)'이 공통점임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해법 3) 핵심어 도출 과정에서 제시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정형화된 선행 지식을 배제해야 한다.

제시문에 관한 선행 지식이나 이론의 시각에서 제시문을 읽는다면 그 틀에서 벗어난 글읽기를 하기 쉽지 않다. 정형화된 주제나 글읽기는 출제 의도를 외면하게 되고, 다른 제시문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도 어렵게 된다.

1단계에서 공통 핵심어를 도출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핵심어가 있는 요약·비교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하면 된다.

키포인트

1단계 미션 :

- [해법 1] 다양한 질문하기를 통해 제시문의 공통 핵심어 찾기
- [해법 2] 선행지식이나 자료에 근거한 정형화된 글읽기가 아닌 제시문 자체에 대한 글 읽기

04_실전 문제 풀이

앞에서는 요약·비교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와 단계별 필요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요약·비교형 문제를 풀어보자.

실전문제 1

2015 인문계열-1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나누다(쪼개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는 돈을 처리하는 기능과 음료수를 선택하는 기능, 그리고 선택된 음료수를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런 기능들이 각각 모듈화되어 자판기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모듈이란 문제를 기능별로 분할한 논리적인 일부분을 말한다.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단순한 모듈로 나누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천 원짜리 신권 지폐가 발행되었는데 기존의 지폐보다 크기가 작아져서 기존의 자판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자판기가 모듈화되어 있지 않고 모든 기능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면 돈을 처리하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판기 전체를 다시 설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기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만약 자판기를 모듈화해서 돈을 처리하는 기능을 함수처럼 만들어 주면 이 부분만 개선하여 간단히 교체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은 물론 관리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된다.

(「자판기와 함수 이야기」, 『정보』, 삼양미디어)

(나) 로마의 귀족은 평민보다 앞서서 절제된 행동과 납세의 의무를 다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사재로 전쟁세를 내어 국가를 수호하였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솔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 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전문직 종사자나 공직자는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인(公人)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선천적 재능이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의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자신의 지위를 성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사회 구성원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의 지도층에게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위해 그들의 천부적 자질을 이용하고 사회적 여건을 활용하라고 요구한다. 사회 구성원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그들이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는 개인에게 배분된 자연적 능력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우리에게 배당된 재능의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자나 관리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기술과 지식 역시 여러 대에 걸쳐 누적되어 온 역사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당대인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공동 노작의 결과이다. 이처럼 기술과 지식은 사회로부터 개인이 빌려 온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그에 관한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의감, 즉 공개념적 사고에 기인한다.

(「전문직·공직자의 사회적 책임」,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다) 정보 통신 기술 사회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대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보 통신 기술 범죄의 여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 사회는 빠른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만큼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모습도 같이 갖고 있다. 2009년 7월 '디도스(DDoS)'가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로 인해 정부나 은행의 주요 사이트들이 마비되었고, 미국 국방성의 전산망도 외부와 차단되었다. 디도스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작동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가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컴퓨터에 분산시키고, 해당 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분량의 패킷(데이터)을 동시에 전송시켜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 또는 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이다. 즉,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컴퓨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가 이러한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디도스 사례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험이 파급되는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특정한 정부 기관이나 보안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개별 컴퓨터 이용자들이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위기를 일으키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해킹(침해 유형)」, 『정보』, 삼양미디어, 「21세기의 정보 흑사병」, 『사회』, 천재교육)

(라) 아직까지 지구 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총수나 종류를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육지의 큰 생물들은 대부분 밝혀졌으나 곤충, 균류, 세균 및 현미경적 크기의 다른 생물들 수백만 종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과학자들은 지구 상의 생물 종 수가 약 1천만 종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수한 생물 종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생물 종들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활용하면 종들 사이의 유연관계를 알 수 있을까?

생물들의 다양성은 엄청나지만, 알려진 모든 종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 모든 생물들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기본 물질로 하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동일한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생물 종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계통을 세워 보면 모든 생물들은 약 35억 년 전 지구 상에 생겨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공통 조상은 지구 상의 생명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따른 생물 종과 집단 사이의 계속적인 갈래는 생명의 가지치기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생물들은 기본적 동일성과 상호 관계에 따라 생물 계통수에 배열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생물들은 세 개의 큰 무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두 개가 원핵 생물이며, 다른 하나가 진핵 생물이다. 원핵 생물에는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남세균이나 대장균과 같은 세균, 황세균과 같이 세균과는 여러 면에서 특성이 다르며 화산 지대와 같이 주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세균이 있다. 진핵 생물은 단세포 생물(아메바, 짚신벌레 등)과 세 가지 주요 다세포 생물군인 식물, 균류, 동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종류로 아우르면 우리의 생각이 보다 명확해진다. 대상이 속한 종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이 속하지 않은 다른 종류와 구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의 성격도 한결 구체화되며, 상위에 속하는 것과 하위에 속하는 것이 구분되어 체계가 드러나게 된다.

(「생물의 종들은 유사성에 따라 계통을 세울 수 있을까?」, 『과학』, 금성출판사)

〔단계별 문제 풀이〕

위 문제는 2015 인문계열 기출 문제이다. 주어진 네 개의 제시문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나눔과 그 효과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 주제로 묶일 수 있다. 이 문제는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네 개의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 내고, 그것을 분별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각각의 나눔의 방식이 일으키는 효과를 변별해 기술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각 단계별 문제 풀이 방식을 살펴보자.

문제 유형 파악하기

- 〔해법 1〕 문제 핵심어 유무를 확인하기
- 〔해법 2〕 핵심어가 제시된 경우 핵심어 특성 유형에 파악하기

해법 1, 2에 따라서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 1) 핵심어 유무를 확인한 결과 '나눔'이라는 핵심어가 있는 문제이고, 2) 핵심어 특성을 파악한 결과가 '방식과 효과'라는 복수의 핵심어 특성 차이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1단계 미션 : 핵심어 중심으로 제시문 읽기

- (해법 1) 핵심어를 이용한 선택적 읽기와 요약하기
- (해법 2)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해체하고 분류하기
- (해법 3) 분류된 문단에서 핵심어를 다룬 문장 선택하기

1단계의 해법을 중심으로 핵심어인 나눔의 방식과 효과 2가지 측면에서 제시문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결과물

제시문 (가)는 자판기를 기능적 모듈화로 분할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자판기를 모듈화하면 기능 개선을 위해서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부분만 교체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관리가 유리하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우리 사회의 공인들은 선천적 재능을 부여 받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와 부를 가진 자들로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재분배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정보 통신 기술 사회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서비스 공격 도구들을 분산하여 일제히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관리와 통제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는 디도스 공격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지구 상의 수많은 생물 종들을 기본 물질과 세포 등의 단위로 분석한 후 유사성을 기반으로 분류해 계통을 세우면 공통 조상을 기점으로 하는 계통수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단계 미션 : 압축된 요약문을 토대로 차이점 찾기

- (해법 1) 핵심어를 기준으로 각 제시문의 주제 문장 찾고 차이점 도출하기
- (해법 2) 다수의 핵심어 특성이 있는 경우 모든 핵심어 특성별로 차이점 비교하기

요약된 제시문에서 핵심어인 나눔의 방식과 효과를 적용하여 차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즉, 나눔은 형태나 결과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제시문 간 비교를 통해 차이를 기술해야 한다. 2단계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결과물

각 제시문은 나눔을 주제로 하여 나누어지는 방식 면에서 제시문 (가)는 분할, 제시문 (나)는 분배, 제시문 (다)는 분산, 제시문 (라)는 분류라는 차이가 있고, 제시문 (가)는 효율성과 편리성 추구, 제시문 (나)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고 정의 구현, 제시문 (다)는 관리와 통제를 넘어서 그 위력을 배가하고 영향력을 확대, 제시문 (라)는 대상의 속성을 명확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체계를 드러내는 효과가 나타나서 나눔의 방식과 효과의 다양성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계 미션 : 차이점을 종합하여 결론 제시하기

- 〔해법 1〕 제시문들의 차이점을 관통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제시 하기
- 〔해법 2〕 자신의 종합 결론을 논리적 구조에 맞게 완성하기

전 단계에서 나눔의 방식과 효과의 차이를 각 사례에 한정되어 제시하였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다양한 나눔의 방식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해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위의 두 단계를 종합해서 최종 답안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모범 답안

(가), (나), (다), (라)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나눔과 그 효과를 보여 준다.**(서론)**
(가)는 자판기의 사례처럼 기능을 모듈로 분할**(나눔의 방식)**하는 방식을 통해 부분의 대체 가능성을 높여 줌으로써 비용 절감, 손쉬운 관리 등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나눔의 효과)**하는 효과를 보여 준다. (나)에서는 우연에 의해 부여 받은 선천적 재능이나 물려받은 지위 등을 사회적으로 재분배**(나눔의 방식)**하는 나눔의 방식을 통해, 공동선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음**(나눔의 효과)**을 제시한다.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나누어 일제히 공격하는 (다)의 디도스 사례는, 분산의 방식**(나눔의 방식)**이 그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배가시켜 관리와 통제를 어렵게 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나눔의 효과)**을 보여 준다. (라)는 생물 계통수의 사례를 통해, 대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묶는 분류의 방식**(나눔의 방식)**이 대상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개체들 간의 숨겨진 상호 관계를 드러낼 수 있음**(나눔의 효과)**을 보여준다.**(본론)**
이와 같이 나눔은 분할, 분배, 분산, 분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경제성, 사회정의 구현, 영향력의 확대, 체계화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결론)**(558자)

실전문제 2

2014 인문계열 II– 1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관계 맺음 방식'의 특징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가)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어부는 낚시를 할 수 있었고, 어부가 낚시를 했기 때문에 병든 딸이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었고, 딸이 맛있게 생선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선 가시가 발라져 나왔고, 생선 가시가 발라졌기 때문에 고양이는 그날 생선 가시를 먹을 수 있었고, 고양이가 맛난 생선 가시를 먹었기 때문에 밭을 누비며 똥을 쌌고, 똥을 쌌기 때문에 땅이 오랜만에 거름을 받을 수 있었고, 거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땅이 되었고, 건강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지렁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지렁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빠 새가 지렁이를 잡을 수 있었고, 아빠 새가 지렁이를 잡았기 때문에 엄마 새는 지렁이를 먹을 수 있었고, 엄마 새가 지렁이를 먹었기 때문에 새알을 낳을 수 있었고, 새알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쁜 아기 새들이 태어날 수 있었고, 아기 새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는 저렇게 멋진 새들이 날아다니는구나.

(「하늘과 물」, 「고등학교 도덕」, 미래엔)

(나) 우륵은 이사부의 숙사를 향해 다리를 절며 걸었다. 신발이 해어져서 발가락에 피가 흘렀다. 금*을 멘 니문이 우륵을 부축했다. 성문에서부터 무장한 위병 두 명이 붙었다. 목욕을 마친 이사부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마루로 나왔다.
"얼마 전에 서라벌로부터 통지가 있었다. 네가 가야의 악사 우륵이냐?"
"그러하오."
(중략)
이사부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사부는 온몸을 흔들며 웃었다.
"그렇겠구나. 세상에, 온당하기란 쉽지가 않구나. 내, 풍편에 들었다. 너의 소리가 그리도 절묘하냐?"

"나의 소리가 아니라, 본래 스스로 흘러가는 소리요."
"소리는 주인이 없는 것이냐?"
"소리는 들리는 동안만의 소리고 울리는 동안만의 소리니 아마도 그러할 것이오."
"너희 나라 대장장이 야로를 아느냐?"
"가야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소."
"그 늙은 대장장이가 말하기를, 병장기**는 주인이 따로 없어서 쥐는 자마다 주인이라 하였다. 소리는 병장기와 같은 것이냐?"
"소리는 없는 세상을 열어 내는 것인데, 그 세상은 본래 있는 세상인 것이오. 병장기가 어떠한 것인지는 병부령께서 더 잘 아시리이다."
"그러니 아마도 소리와 병장기는 같은 것인 모양이로구나."
* 금 : 가야금 ** 병장기 : 무기

(「현의 노래」,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지식채널 EBS)

(다) 두 소수(素數) 1997과 2011의 곱이 4015967임을 계산하기는 쉽지만, 거꾸로 4015967을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RSA 암호 체계인데, 두 소수를 비밀 열쇠로 하고 그 두 소수의 곱을 공개 열쇠로 사용한다. 따라서 암호 해독은 비밀 열쇠와 공개 열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암호 체계의 생명은 보안인데, RSA 암호 체계에서 두 비밀 열쇠가 400자리 소수인 경우, 그 공개 열쇠를 현재의 컴퓨터 기술과 계산 방법으로 해독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소인수분해와 정보화 시대의 암호체계」, 『고등학교 수학 익힘책』, 천재교육

(라) 그 남자의 방에는 의자 두 개와 책상, 양탄자, 침대, 옷장이 하나씩 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자명종 시계가 놓여 있고 그 곁에는 오래된 신문들과 사진첩이 있다. 벽에는 거울 하나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산책을 하고, 이웃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고, 저녁이면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건 언제나 똑같았고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그러했다.
그는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두 눈을 꽉 감았다. 그러고는 양손을 힘껏 쥐고 쳐들었다가 책상을 내리쳤다. 처음에는 한 번,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내리쳤고, 그런 다음엔 책상 위를 북 치듯 두들겨 대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달라져야 해, 달라져야 한다고!"
그러자 시계 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양손이 아파 오기 시작했고 목이 쉬어 버렸다. 시계 가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들,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부르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의자는 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피곤한데,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아침마다 한참씩 사진 속에 누운 채로 이제 의자를 뭐라고 부를까를 고심했다. 그러다가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시계 위에 앉아 양팔을 책상 위에 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책상은 더 이상 책상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을 '양탄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침에 사진 속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양탄자에 놓인 시계 위에 앉아, 무엇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지를 고심했다.
침대는 사진이라고 불렀다.
책상은 양탄자라고 불렀다.
의자는 시계라고 불렀다.
신문은 침대라고 불렀다.
거울은 의자라고 불렀다.
시계는 사진첩이라고 불렀다.
옷장은 신문이라고 불렀다.
양탄자는 옷장이라고 불렀다.
사진은 책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진첩은 거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아침에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있었다. 아홉 시에 사진첩이 울리자 남자는 일어나서, 발이 시리지 않도록 옷장 위에 올라섰다. 그는 자기 옷들을 신문에서 꺼내 입고는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보고, 양탄자 앞 시계 위에 앉아 자기 어머니의 책상이 나올 때까지 거울을 뒤적였다.
남자는 이 일에 재미가 들어 온종일 연습해서 새 단어들을 암기했다. 이제 모든 것의 이름이 달라졌다. 나이 많은 남자는 파란 공책을 사서 새로운 단어들을 그 안에 가득 적어 넣었다. 그 뒤로 남자는 모든 사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을 익혀 가면서 차츰 원래의 명칭을 잊어버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만 알고 있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했다.

(「책상은 책상이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Ⅰ』, 지학사)

〔 단계별 문제 풀이 〕

위 문제와 제시문은 2014 인문사회계열 II에서 출제되었다. 주어진 네 개의 제시문은 현상과 현상,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 맺음 방식'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능력과 이 논지들을 창의적으로 연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수험생들이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본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 독해 과정에서 '관계 맺음 방식'이라는 시각에 입각해서 각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관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각 단계별 문제 풀이 방식을 살펴보자.

문제유형 파악하기

- 〔해법 1〕 문제 핵심어 유무를 확인하기
- 〔해법 2〕 핵심어가 제시된 경우 핵심어 특성 유형에 파악하기

문제 유형 파악하기의 해법 1, 2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보면, 1) 핵심어 유무를 확인한 결과 '관계 맺음'이라는 핵심어가 있는 문제이고, 2) '관계 맺음의 방식'이라는 핵심어 특성 차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1단계 미션 : 핵심어 중심으로 제시문 읽기

- 〔해법 1〕 핵심어를 이용한 선택적 읽기와 요약하기
- 〔해법 2〕 핵심어와 관련한 제시문의 삭제와 선택을 통한 주제문 찾기
- 〔해법 3〕 분류된 문단에서 핵심어을 다룬 문장 선택하기

1단계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 제시문 요약이므로 '관계 맺음 방식'에 집중해서 제시문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야 하고 요약한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결과물

제시문 (가)는 서로 다른 종인 물고기와 새, 서로 다른 공간인 바다와 하늘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 글은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상호 연쇄적 관계 맺음 과정을 흥미로운 비유로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우륵과 이사부가 소리와 병장기 사이의 보이지 않는 내적 연관성, 즉 음악의 가치와 무기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과정을 함축적이고 간명한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RSA 암호 체계는 소인수 분해 원리, 즉 소수인 비밀열쇠와 합성수인 공개열쇠 사이의 상호 관계를 토대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주인공은 낯선 명명행위를 통해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의 명명 행위는 언어 공동체의 규범에 반하는 자기만의 자의적인 방식이라는 특성이 있다. 주인공은 혼자만이 알고 있는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타인과 대화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과만 독백하면서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된다.

2단계 미션 : 압축된 요약문을 토대로 차이점 찾기

- 〔해법 1〕 핵심어를 기준으로 각 제시문의 주제문 찾고 차이점 도출하기
- 〔해법 2〕 다수의 핵심어 특성이 있는 경우 모든 핵심어 특성별로 차이점 비교하기

요약된 제시문에서 핵심어인 '관계 맺음 방식'이 어떤 양상으로 다른지 그 차이를 제시해야 한다. 즉, 각 제시문이 관계 맺음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요약문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예시의 지문들은 관계 맺음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으로 각 제시문의 내용 속에서 숨겨진 관계 맺음의 양상을 찾아내는 독해력이 중요하다.

2단계의 해법을 활용한 답안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결과물

각 제시문은 관계 맺음의 대상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가)는 사건과 사건, 현상과 현상 사이의 상호 연쇄적 관계 맺음을, 제시문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통된 화두를 공유하며 관계 맺기, 제시문 (다)는 암호 체계 내에서 숫자 간 상호의존적 관계 형성, 제시문 (라)는 언어 명명행위를 통한 사물과의 관계 맺기를 보여주면서 관계 맺음 안에서 대상과 관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3단계 미션 : 차이점을 종합하여 결론 제시하기

- 〔해법 1〕 제시문들의 차이점을 관통하여 종합적으로 의견 제시하기
- 〔해법 2〕 자신의 종합 결론을 논리적 구조에 맞게 완성하기

전 단계에서 관계 맺음 방식의 차이를 각 사례에 한정되어 차이 분석을 하였으므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상 간, 대상 간의 관계 맺음의 특수성을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화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3단계는 위의 두 단계를 종합해서 최종 답안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모범 답안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현상과 현상,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 맺음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서론 : 각 제시문에서 관계 맺음이 어떻게 다른지의 논지를 소개하고 있다.)** (가)는 서로 다른 종인 물고기와 새, 서로 다른 공간인 바다와 하늘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서의 관계 맺음의 방식은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는 상호 연쇄적인 특징을 갖는다. (나)에서는 이사부와 우륵이 소리와 병장기 사이의 보이지 않는 내적 연관성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다. (다)에서는 암호 체계 내에서 임의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두 소수가 합성수를 고리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라)에서는 남자가 명명 행위를 통해 실내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의 명명 행위는 언어공동체의 규약에 반하는 자기만의 자의적인 방식이라는 특성이 있다**(본론 : 제시문의 관계 맺음의 차이를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건, 공유한 인식과 가치, 숫자, 언어 등을 매개로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 방식의 특징은 연속성과 종결성, 자의성과 논리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 등이다**(결론 : 제시문에서 보여준 관계 맺음의 차이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종합하여 자신의 표현을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유형 2. 비판·평가형

제시문의 논지를 토대로 특정 대상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기

01_문제 유형 개요

논술 시험에서 비판·평가형은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다. 비판·평가형은 주어진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를 각각 분석하여 한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에 나타난 대상, 행위, 상황, 방식, 관점 등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따라서 이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력은 물론, 특정 관점에서 문제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분석적 사고 능력, 논리적 오류나 한계를 찾아내는 비판적 사고 능력,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사전에 예측, 진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비판·평가형 문제는 대체로 비판·평가하는 대상의 한계나 약점, 문제점, 오류 등을 지적하는 비판형 문제가 많지만, 때로는 보다 포괄적으로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점이나 효용을 함께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비판·평가형은 그 자체만으로 단독 문항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안 제시형과 함께 출제된다.

비판·평가형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다.

- **첫째,** 수험생의 평소 견해보다는 **문제에 주어진 기준과 관점에 입각하여** 대상을 비판·평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 **둘째, 비판·평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제시문 전체에 대한 비판·평가보다는 제시문에 나타난 특정 대상을 지정하여 이에 대해 비판·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키포인트

비판·평가형 문제를 풀 때 유의할 점

- 반드시 제시문에 주어진 논지에 입각하여 비판·평가할 것
- 대상을 문제에 주어진 핵심어로 한정하여 비판·평가할 것

02_문제 유형 파악하기

논술 시험에서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한 첫 걸음은 문제의 의도 및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를 꼼꼼히 읽고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서 중앙대학교 비판·평가형 문제의 기본 구조 및 세부 유형에 대해 살펴 보자.

1. 문제의 기본 구조

비판·평가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정 제시문에서 비판·평가의 기준이나 관점을 찾은 후 이를 토대로 다른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이나 시각을 비판·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 즉 비판·평가의 기준이나 논거를 제공하는 부분과 비판·평가의 대상을 한정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를 읽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평가형 문제의 구조]

비판·평가의 기준 제시		비판·평가할 대상 제시
제시 예 제시문 (A)의 논지를 활용하여 ~ 제시문 (A)의 관점에서 제시문 (A)의 논지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A), (B)의 논지를 각각 고려하여 ~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제시 예** 제시문 (A)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 제시문 (A)와 (B)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각각 비판 제시문 (A)에 나타난 **융합 방식**을 비판 제시문 (A)에 나타난 **'모자 장수의 시각'**을 비판 제시문 (A)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제시문 (A)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

키포인트

비판·평가형 문제의 구조

비판·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 비판·평가할 대상에 관한 제시문

연습문제

가령,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자.

문제 예시

-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
  [2014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 3번]

이 문제에서 비판·평가의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이고, 비판·평가할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이다.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비판·평가의 기준이 먼저 제시되고 대상이 그 다음에 제시되지만, 다음의 예시와 같이 대상이 먼저 제시되고 기준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제 예시

- **제시문 (사)에 나타난 시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문 (아)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2014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3번]

이 문제의 경우, 앞에 나오는 제시문 (사)가 비판·평가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고, 비판·평가의 기준은 제시문 (아)에 제시되어 있다.

2. 세부 유형

모든 비판·평가형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기술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비판·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제시문의 수, 비판·평가 대상의 특징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부 유형	문제
(1) 기본형	제시문 A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B에 나타난 OO 비판
(2) 예측 진단형	제시문 A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B의 OO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3) 다각적 비판·평가형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각각) 활용하여**, 제시문 C에 나타난 OO 비판(혹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4) 통합적 비판·평가형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C에 나타난 OO 비판(혹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1) 기본형

제시문 A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B에 나타난 OO 비판

기본형은 하나의 제시문을 읽고 비판·평가의 기준을 찾아, 또 다른 제시문에 기술된 현상, 상황, 시각 등을 비판하는 문제로서 세부 유형 가운데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문제 예시

-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
  [2014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I 3번]
- **제시문 (사)에 나타난 시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문 (아)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2014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3번]

(2) 예측 진단형

제시문 A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B의 OO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이 유형은 기본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비판·평가해야 할 대상이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 현상, 시각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나 시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 진단하는 문제이다.

문제 예시

-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나눔(쪼갬)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시오.
  [2015학년도 수시논술 인문사회계열 2번]
- **제시문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2015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3번]

(3) 다각적 비판·평가형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각각) 활용하여, 제시문 C에 나타난 OO 비판(혹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다각적 비판·평가형은 서로 다른 논지를 제공하는 복수의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논지에 기반하여 대상을 비판·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 예시

- **제시문 (다), (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추론해 기술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논술하시오.
  [2015학년도 수시논술 경영경제계열 2번]
-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시오.
  [2015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2번]

(4) 통합적 비판·평가형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C에 나타난 OO 비판(혹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통합적 비판·평가형은 여러 개의 논지가 비판·평가의 기준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다각적 비판·평가형과 유사하지만, 이들 논지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 예시

-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바)에 나타난 '모자 장수의 시각'을 비판**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2013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I 2번]
-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2013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II 2번]
- **제시문 (라)에서 사물을 명명하는 '남자'의 행위가 갖는 한계를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술**하시오.
  [2014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II 2번]

키포인트

비판·평가형 문제의 세부 유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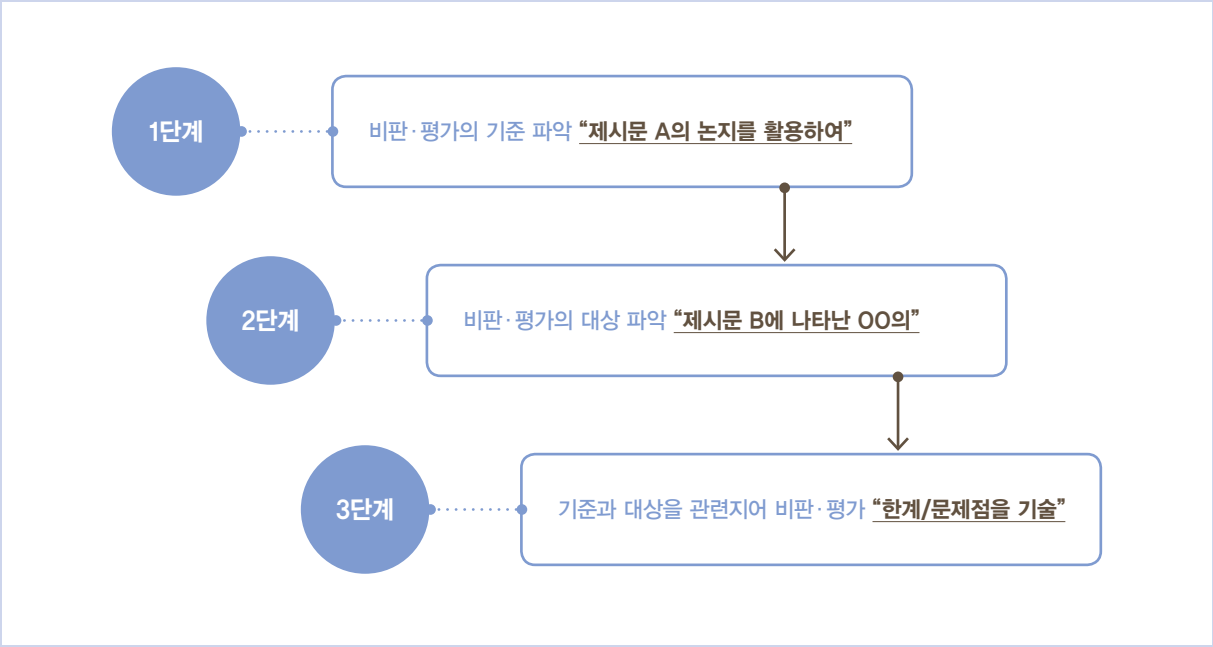
(1) 기본형 : 제시문 A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B에 나타난 OO 비판
(2) 예측 진단형 : 제시문 A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B의 OO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3) 다각적 비판·평가형 :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각각) 활용하여**, 제시문 C에 나타난 OO 비판(혹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4) 통합적 비판·평가형 :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C에 나타난 OO 비판(혹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03_문제 해결하기

비판·평가형 문제의 기본 구조 및 세부 유형을 이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 보자.
앞서 살펴 보았듯이 비판·평가형 문제는 모두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시문 A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B에 나타난 OO의 한계/문제점을 기술"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3단계는 대체로 주어진 문제의 구조와 일치한다. 1단계에서는 문제의 "제시문 A의 논지를 활용하여"라는 지시에 따라 비판·평가의 기준이 되는 논지를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문제의 "제시문 B에 나타난 OO의"라는 지시에 따라 비판·평가할 대상을 파악한 후, 마지막 3단계에서는 기준과 대상을 연결하여 비판·평가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각 단계별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접근 방법, 유의 사항들을 차례로 살펴 보자.

1. 1단계

미션

비판·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제시문을 찾아 읽고 핵심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라.

[해법 1] 제시된 논지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는 배제하라.

중앙대학교 비판·평가형 문제는 수험생이 주어진 관점에 입각하여 현상이나 사안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전 지식이나 평소 생각에 근거하기보다는 주어진 제시문 속에서 비판·평가의 기준이나 근거를 찾아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의 문제를 예로 들어 살펴 보자.

문제 예시

-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나눔(쪼갬)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시오.
  [201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번]

제시문 (라)는 생물 종의 분류 방식에 대해 소개한 글로서, 이 분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라는 것이 문제의 요지이다. 이때 생물학 분류 방식에 대해 수험생이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이나 사전 지식에 근거하여 한계점을 기술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한계를 기술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해법 2] 비판·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제시문을 찾아라.

비판·평가형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한 첫 단추는 비판·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제시문을 찾아 그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에서는 8~9개의 제시문이 주어지므로 자칫하면 문제가 요구하는 제시문을 잘못 찾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먼저 문제를 꼼꼼히 읽고, 비판·평가의 기준과 관련된 제시문이 어느 것인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의 문제 구조 설명에서 보았듯이, 비판·평가의 기준과 관련된 제시문은 문제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평가할 대상에 관련된 제시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시되기도 하므로 유의하자. 또한, 비판·평가의 기준과 관련된 제시문이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자. 위의 예시 문제에서는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라는 부분을 통해 비판·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제시문이 (마)임을 알 수 있다.

[해법 3]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라.

논술 시험의 기본은 독해력이며, 문제 유형과 목적에 따라 독해 방식이 달라진다. 비판·평가의 논거를 제공하는 제시문의 경우에는 제시문 전체를 읽고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독해를 해야 한다. 위의 예시 문제에서 제시문 (마)는 '언어 상대주의'에 관한 글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지개와 관련된 사례, 어린 아이들의 국어 오류 사례 등을 통해 색깔어의 유무에 따라 주변의 색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험생이 파악해야 할 핵심 논지는 언어가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객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부연 설명, 사례 제시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제시문에서 핵심 논지를 추출해 내는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해법 4] 핵심 논지를 한 문장 정도의 압축된 형태로 기술하라.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했다면 이제 그 내용을 한 문장 정도의 압축된 형태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평가형 문제의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판이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논지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소에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논지를 한 문장 정도의 압축된 형태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 두면 비판·평가형 문제에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제시문 (마)의 핵심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단계 결과물(비판·평가 논거) :

- 제시문 (마)는 색깔 인식에 관한 예시를 통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객관 세계가 아니라 언어가 분절해 놓은 인식의 틀을 통해 보는 주관 세계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키포인트

1단계 미션 : 비판·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제시문을 찾아 핵심 논지를 파악하라.

- [해법 1] 제시된 논지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평가는 배제하라.
- [해법 2] 비판·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제시문을 찾아라.
- [해법 3]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라.
- [해법 4] 핵심 논지를 한 문장 정도로 압축하여 기술하라.

2. 2단계

미션

비판·평가할 대상을 포함하는 제시문을 찾아 읽고 그 속성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하라.

[해법 1] 비판·평가할 대상에 대해 소개하는 제시문을 찾아라.

타당한 비판이나 평가를 위해서는 비판·평가할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비판·평가할 대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제시문을 찾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해법 2] 문제에 제시된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어라.

제시문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제시문을 읽고 비판·평가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독해는 제시문 전체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1단계의 독해와는 다르다. 먼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어를 확인한 후, 이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어 나가는 선택적 독해를 해야 한다.

다시 앞의 예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제시문 (라)의 '나눔(쪼갬)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라고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나눔(쪼갬)의 방식'이라는 핵심어이다. 비판·평가할 대상이 제시문 (라)의 내용 전반이 아니라 제시문 (라)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해법 3] 비판·평가할 대상의 속성이나 특징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제시문 독해 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비판·평가할 대상의 속성이나 특징을 가능한 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포착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비판이나 평가가 여기에서 기술된 특징이나 속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특정 대상의 특징과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술하는지가 결국 답안 전체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해법 4] 파악한 대상의 속성이나 특징을 압축된 형태로 기술하라.

독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파악한 대상의 속성이나 특징을 압축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앞의 예시 문제의 경우, 제시문 (라)의 '나눔(쪼갬)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단계 결과물(비판·평가할 대상) :

유사성 및 공통점을 통해 종류를 나누고 유연관계를 밝히는 분류 방식

키포인트

2단계 미션 : 비판·평가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라.

- [해법 1] 비판·평가할 대상에 대해 소개하는 제시문을 찾아라.
- [해법 2] 문제에 제시된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어라.
- [해법 3] 비판·평가할 대상의 속성이나 특징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 [해법 4] 파악한 대상의 속성이나 특징을 압축된 형태로 기술하라.

3. 3단계

미션

첫 번째 단계에서 파악한 **기준**과 두 번째 단계에서 파악한 **대상**을 **연결**하여 평가·비판점을 도출하라.

첫 번째 단계에서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비판·평가의 기준이 되는 논지를 파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 비판·평가할 대상의 속성에 대해 파악하였다면, 이제 기준과 대상을 연결할 차례이다. 이 두 요소 간의 관련성을 찾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해법 1] 비판·평가의 기준과 대상 간의 접점을 찾아라.

비판·평가의 기준을 대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결고리가 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앞의 예시 문제에서, 비판·평가의 대상을 소개하는 제시문 (라)에서는 생물의 종의 분류가, 비판·평가의 논지를 제공하는 제시문 (마)에서는 언어를 통한 색 구분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 두 제시문, 즉 기준과 대상 간에는 '나눔(쪼갬)'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통점이 바로 문제에서 제시했던 핵심어('나눔(쪼갬)의 방식')의 일부였다는 점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에 제시된 핵심어가 제시문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제시문들 간의 접점을 찾을 때 핵심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접점이 마련되면 이를 매개로 두 제시문의 차이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 두 제시문의 내용을 잘 살펴 보면 '나눔'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나눔'이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 제시문 (라)에서 '나눔'은 분류를 통해 대상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개체들 간의 숨겨진 상호 관계를 드러내는 효용을 가진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제시문 (마)에서는 특정 언어에서 무지개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인지에 따라 무지개색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절이 실은 언어가 매개한 인식의 틀을 통해 보는 주관 세계'라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해법 2]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한계/문제점들을 도출하라.

이제 평가 기준이 되는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나눔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사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숨겨진 상호 관계를 밝혀 주는 분류의 효용성 대신, 분류의 과정에서 파생하는 인위성, 분류의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인식의 단순화 및 범주들 사이에 실재하는 존재들을 간과할 우려 등을 분류의 한계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 본래 문제가 요구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단계 결과물(비판점) :

연속선 상에 놓인 대상들을 인위적으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단순화하고 각각의 범주들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분류 체계라는 주관적 틀에 갇혀서 객관 세계의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

키포인트

3단계 미션 : 비판·평가의 기준과 대상을 연결하여 비판·평가하라.

- [해법 1] 비판·평가의 기준과 대상 간의 접점을 찾아라.
- [해법 2]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한계/문제점들을 도출하라.

지금까지 단계별로 기술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답안이 만들어진다.

최종 모범 답안 :

제시문 (마)는 색깔 인식에 관한 예시를 통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객관 세계가 아니라 언어가 분절해 놓은 인식의 틀을 통해 보는 주관 세계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보면, 유사성 및 공통점을 통해 경계를 분절하고 구획하는 분류의 방식은, 연속선 상에 놓인 대상들을 인위적으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단순화하고 각각의 범주들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분류 체계라는 주관적 틀에 갇혀서 객관 세계의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포인트

비판·평가형 문제 해결 과정 총정리

1단계 미션 : 비판·평가의 기준이 되는 핵심 논지를 파악하라.

- [해법 1] 제시된 논지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는 배제하라.
- [해법 2] 비판·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제시문을 찾아라.
- [해법 3]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라.
- [해법 4] 핵심 논지를 한 문장 정도의 압축된 형태로 기술하라.

2단계 미션 : 비판·평가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라.

- [해법 1] 비판·평가할 대상에 대해 소개하는 제시문을 찾아라.
- [해법 2] 문제에 제시된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어라.
- [해법 3] 비판·평가할 대상의 속성이나 특징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 [해법 4] 파악한 대상의 속성이나 특징을 압축된 형태로 기술하라.

3단계 미션 : 비판·평가의 기준과 대상을 연결하여 비판·평가하라.

- [해법 1] 비판·평가의 기준과 대상 간의 접점을 찾아라.
- [해법 2]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한계/문제점들을 도출하라.

04_세부 유형별 접근법

비판·평가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기술한 단계와 방식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세부 유형에 따라 추가 단계가 필요하거나 답안 구성 방식을 달리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서는 각 세부 유형을 답하는 데 유의할 점들을 살펴 보자.

1. 예측 진단형

제시문 A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B의 OO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예측 진단형은 기본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비판·평가해야 할 대상이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 현상, 시각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나 시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나 문제를 예상하고 전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시문에 나타난 비판·평가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되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속성을 가진 대상이 향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나 문제를 예측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자.

문제 예시

2015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3번

제시문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전반적인 문제 풀이 절차는 앞에서 살펴본 기본 3단계를 따른다.

먼저, 1단계에서는 비판·평가의 기준이 되는 핵심 논지를 제시문 (아)에서 찾아야 한다. 제시문 (아)는 도편 추방제의 양면성을 설명하는 글이다. 도편 추방제는 시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주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국민 소환 제도이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오히려 국민이 기만 당하는 중우 정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이다.

2단계에서는 비판·평가의 대상인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문 (라)에서 찾아야 한다. 제시문 (라)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집단적이고 선택적인 기억 관리의 산물이므로 영웅의 이미지는 시대와 집단의 필요에 의해 변형되고 달라질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한 비판·평가의 핵심 논거와 2단계에서 파악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의 특징을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예측 진단형의 경우, 이 두 요소를 곧바로 연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커니즘을 가상으로 작동시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추론하는 과정(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집단적, 선택적 산물로서 의도에 따라 변형 가능하다는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의 속성(제시문 (라)의 내용)과, 도편 추방제의 어두운 측면으로 기술된 중우 정치의 우려(제시문 (아)의 논지)를 결합하여, 권력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영웅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가공할 경우 중우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답안을 도출할 수 있다.

모범 답안

제시문 (아)는 참주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도편 추방제가 직접 민주 정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에 의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대중을 기만하고 선동하여 심지어 영웅마저도 사회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비판의 근거가 되는 (아)의 핵심 논지)**
한편 제시문 (라)의 영웅이 사회적 틀 속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된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대중이 동일시할 대상으로 수용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웅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은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비판의 대상이 되는 (라)의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
따라서 영웅 형성 메커니즘은 국민통합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제시문 (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영웅 이미지를 조작·가공했을 때, 대중을 조종하는 중우정치의 기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하다.**((아)의 논지에 근거하여 예측되는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의 문제점)**

키포인트

예측 진단형 문제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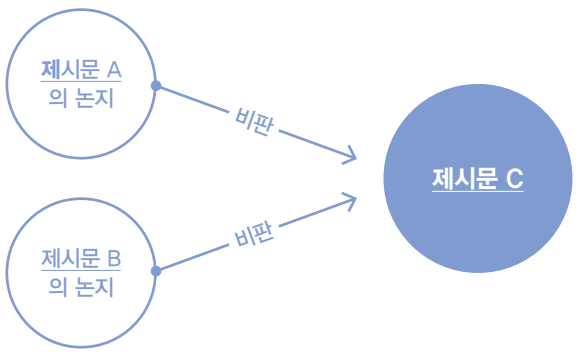
-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판·평가의 대상이 향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나 문제를 예측하라.

2. 다각적 비판·평가형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각각) 활용하여, 제시문 C에 나타난 OO 비판(혹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다각적 비판·평가형 문제의 경우, 비판·평가의 논지가 두 개 이상의 제시문에 나타나 있고 각각의 논지를 활용하여 동일 대상에 대해 비판·평가를 해야 한다.

전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기본 문제 풀이 방식과 동일하지만, 3단계 "비판·평가의 논거와 대상 연결하기"에 있어서 제시문들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각적 비판·평가형의 경우 제시문 A의 논지에 근거하여 제시문 C를 평가하고, 다시 제시문 B의 논지를 고려하여 다시 제시문 C를 평가하면 된다. 이때 제시문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답안 구성 역시 마찬가지 구조로 이루어진다. 가령, 다음의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자.

문제 예시

2015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2번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시오.

이 경우, 제시문 (마)의 논지에 근거하여 제시문 (사)의 한계를 추론하고, 다시 제시문 (바)의 논지를 고려하여 다시 제시문 (사)의 효용을 추론한 후 순서대로 기술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답안이 구성된다.

모범 답안

제시문 (사)의 텍스트 암송을 통한 학습법은 제시문 (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향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므로 단순 텍스트 암송만으로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의 지식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디지털화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므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지식 습득의 방식으로서 암송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마)-(사) 관계 기술)**
그러나 제시문 (바)에 따르면, 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복에 의한 기억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 독서를 통한 텍스트의 암송은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식 습득 방식이 될 수 있다. 가변적이고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취사선택해서 편집하고 사용하는 능력 못지않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반복과 기억을 통해 이해하고 체화하는 학습법이 중요하다.**((바) -(사) 관계 기술)**

키포인트

다각적 비판·평가형 문제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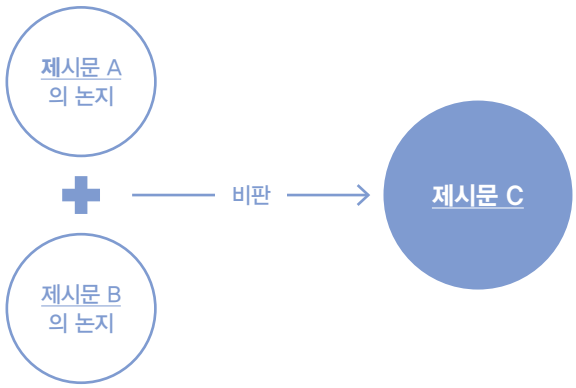
- 3단계에서 제시문 간 관계에 주목하라.
- 비판·평가의 기준이 되는 두 제시문을 각각 대상에 적용하라.

3. 통합적 비판·평가형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C에 나타난 OO 비판(혹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술)

통합적 비판·평가형은 여러 개의 논지가 비판·평가의 기준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다각적 비판·평가형과 유사하지만, 이들 논지를 통합하여 비판·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문제에 답할 때에는, 비판·평가의 논거를 제공하는 제시문들 간의 관련성 및 통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기본 문제 풀이 방식을 따른다. 다만 3단계 "비판·평가의 논거와 대상 연결하기"에 있어서 제시문들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시문 A의 논지와 제시문 B의 논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했던 다각적 비판·평가형과는 달리, 이 유형에서는 제시문 A와 B의 연결 혹은 통합을 시도해야 하고 답안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즉, 제시문 A와 B의 논지를 파악한 후 이 두 논지를 결합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C에 나타난 대상을 비판해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제시문 A와 B간의 통합은 답안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가령, 다음의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자.

문제 예시

2013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 2번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바)에 나타난 '모자 장수의 시각'을 비판하고 ~

이 경우, 1단계에서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핵심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2단계에서 제시문 (바)에 기술된 '모자 장수의 시각'을 파악한 다음, 3단계에서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연결하여 비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답안이 구성되어야 한다.

모범 답안

제시문 (라)는 뫼비우스의 띠를 통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흑백 논리로는 다면성을 지닌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제시문 (라)의 핵심 논지 : 비판·평가 기준 1)**
제시문 (마)는 사실(事實)의 나열만으로는 역사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사실(史實)을 선택하는 데 있어 역사가는 주관적 안목을 바탕으로 하되 객관적 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제시문 (마)의 핵심 논지 : 비판·평가 기준 2)**
(라)와 (마)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시문 (바)의 모자 장수는 직업이라는 제한적 경험으로 인한 편견 때문에 사실을 단면적으로 인식하며, 사실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제시문 (라) + (마)에 근거한 비판)**

키포인트

통합적 비판·평가형 문제 해법

- 3단계에서 제시문 간 관계에 주목하라.
- 비판·평가의 기준이 되는 두 제시문을 반드시 연결, 통합하여 논거로 사용하라.

05_실전 문제 풀이

지금까지 살펴본 비판·평가형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기출문제를 풀어 보자.

실전문제 1

2014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3번

[문제 3] 제시문 (사)에 나타난 시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문 (아)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사)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나서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충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영토 분쟁, 민족·인종 간의 갈등, 종교 분쟁, 자원 전쟁, 돈과 권력을 둘러싼 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분쟁 지역에서는 무수한 인명 피해와 굶주림, 가난, 질병, 자연환경과 문화 유적의 파괴와 같은 재앙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무엇보다 인간 정신을 황폐화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지닌다.

국제 사회에서의 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종교적·문화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세계를 9개의 문명권으로 나누고, 문명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종교를 들었다. 기독교, 정교, 이슬람교, 유교, 불교, 힌두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본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는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은 사회적 계급과 빈부의 차이로 구분되는 집단 사이에 나타나지 않고 가장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서로 뭉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서 질서 부여 기능을 할 수 있는 핵심 국가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동일한 문명 혹은 공통의 문화를 가진 민족과 국가들은 핵심국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반면, 서로 다른 문명권에 속한 나라와는 분열하고 반목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대신해 세계 평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걸프전(1991년) 이후 9·11 테러(2001년), 이라크 전쟁(2002년), 스페인 열차 테러(2004년), 런던 테러(2005년), 마호메트 만평 파문 등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서구와 이슬람 사이의 대표적인 문명 충돌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로 보스니아 내전(1992~1995년)을 들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은 가톨릭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동맹을 맺었으며, 정교 국가인 그리스는 세르비아를 도왔고, 이슬람 국가들은 보스니아의 모슬렘을 지지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아) 동양의 유기체적 세계관은 내적·유기적 연관을 바탕으로 대상 전체를 한 덩어리로 파악하려는 상관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멈춤이 아닌 움직임의 실상을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행(五行)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오행 사상은 우주 만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가 끊임없이 변하는 관계임을 밝힌 사상이다. 오행의 다섯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관계를 형성한다. 오행의 다섯 요소들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서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 성질을 띠게 된다. 예를 들면, 나무(木)는 불(火)을, 불(火)은 흙(土)을, 흙(土)은 쇠(金)를, 쇠(金)는 물(水)을, 물(水)은 나무(木)를 낳는다고 해서 이를 각각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라 하고, 이런 관계를 상생(相生)의 관계로 규정한다. 반면 나무는 흙을 뚫고, 흙은 물을 막으며,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이며, 쇠는 나무를 자른다고 해서 이를 각각 목극토(木剋土), 토극수(土剋水), 수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이라 하고, 이런 관계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극(相剋)의 관계로 규정한다. 이처럼 오행 사상은 우주 만물이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통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며, 서로 간의 균형과 협동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 윤리와 사상』, EBS)

1. 문제 유형 파악하기

논술 시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문제의 의도와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 "제시문 (사)에 나타난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라는 부분을 통해, 비판·평가형 문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대다수의 비판·평가형 문제 기술 방식과는 달리, 비판·평가의 대상과 관련된 기술("제시문 (사)에 나타난 시각의 한계를 지적")이 앞에 나오고 그 기준이 되는 제시문과 관련된 기술("제시문 (아)의 관점에서 기술하시오")이 뒷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문제 기술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순서만 다를 뿐 여전히 비판·평가의 기준과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세부 유형을 살펴 보면, 비판·평가의 논거를 제공하는 제시문이 하나이고, 비판·평가할 대상이 제시문에 나타난 '시각'이라는 점에서 네 가지 세부 유형(기본형, 예측 진단형, 다각적 비판·평가형, 통합적 비판·평가형) 중 기본형에 속한다.

2. 문제 해결하기

비판·평가형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첫째, 반드시 제시문에 주어진 논지에 입각하여 비판·평가해야 하고, 둘째, 대상을 문제에 주어진 핵심어로 한정하여 비판·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답안은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기억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절차와 해법에 따라 주어진 문제를 풀어 보자.

키포인트

비판·평가형 문제 해결 과정 총정리

1단계 미션 : 비판·평가의 기준이 되는 핵심 논지를 파악하라.
- [해법 1] 제시된 논지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는 배제하라.
- [해법 2] 비판·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제시문을 찾아라.
- [해법 3]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라.
- [해법 4] 핵심 논지를 한 문장 정도의 압축된 형태로 기술하라.

2단계 미션 : 비판·평가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라.
- [해법 1] 비판·평가할 대상에 대해 소개하는 제시문을 찾아라.
- [해법 2] 문제에 제시된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어라.
- [해법 3] 비판·평가할 대상의 속성이나 특징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 [해법 4] 파악한 대상의 속성이나 특징을 압축된 형태로 기술하라.

3단계 미션 : 비판·평가의 기준과 대상을 연결하여 비판·평가하라.
- [해법 1] 비판·평가의 기준과 대상 간의 접점을 찾아라.
- [해법 2]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한계/문제점들을 도출하라.

(1) 1단계

문제를 잘 읽어 보면, 비판·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제시문이 (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를 읽고 핵심 논지를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아)는 EBS 수능교재 사회탐구영역의 윤리와 사상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 따르면, 동양의 유기체적 세계관은 개체적 특성보다는 개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행사상은 우주 만물의 구성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상대에 따라 다른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개체들이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에 따라 서로를 돕는 상생관계와 서로를 배척하는 상극관계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생과 상극 관계 자체도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며, 더 나아가 우주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 제시문의 요지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1단계 결과물(비판·평가 논거) :

오행 사상에 따르면 상이한 개체들은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도, 서로 갈등하는 상극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개체들은 상생, 상극의 관계를 통해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주만물은 상생과 상극의 균형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2단계

문제에서 주어진 비판·평가의 대상은 '제시문 (사)에 나타난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제시문 (사)를 읽되, '시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읽어야 한다.
제시문 (사)는 교학사의 『고등학교 사회·문화』와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에 관해 기술한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서로 다른 문명이 충돌할 때 생기는 갈등이 분열과 파괴로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국제 관계를 해석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은 종교를 중심으로 문명권을 구분하여 동질 문명권 내에서는 통합이, 이질 문명권 간에는 분열과 반목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시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단계 결과물(비판·평가 대상) :

세계 분쟁은 계급적·경제적 격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에 기인하며, 이질적인 문명 간의 만남은 반드시 분열과 파괴를 야기한다.

(3) 3단계

이제 1단계에서 찾은 비판·평가의 기준과 2단계에서 찾은 대상을 연결하여 비판점을 도출할 차례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요소 간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제시문 (사)의 문명 충돌론과 제시문 (아)의 오행 사상은 모두 '관계'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전자는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관계를 충돌, 분열, 파괴로 보는 반면, 후자는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상생과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대비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시각의 한계를 도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사)의 시각이 국가 간의 갈등 관계 또는 상극의 관계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상생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과, 상극의 관계 역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봄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한 축이자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갈등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단계 결과물(비판점) :

제시문 (사)의 시각은 소통과 교류를 통한 문명 간 상생과 발전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고, 문명 간 차이 및 갈등에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상극에 해당하는 이질적인 문명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는 타자이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된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명 간 차이와 갈등은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모범 답안

이상의 풀이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연결하여 최종 답안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의 필자는 세계 분쟁이 계급적·경제적 격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제시문 (사)의 시각 : 비판·평가의 대상)**
이러한 일면적인 세계관은 (아)의 오행사상의 유기체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보면 한계를 지닌다.**(주제문)**
오행사상에 따르면 상이한 개체들은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도, 서로 갈등하는 상극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개체들은 상생, 상극의 관계를 통해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주만물은 상생과 상극의 균형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제시문 (아)의 관점 : 비판·평가의 기준)**
이러한 오행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질적인 문명 간의 만남이 반드시 분열과 파괴를 야기한다는 (사)의 시각은 소통과 교류를 통한 문명 간 상생과 발전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문명 간 차이 및 갈등에 대한 (사)의 인식 또한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상극에 해당하는 이질적인 문명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는 타자이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된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명 간 차이와 갈등은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제시문 (아)의 관점에서 (사)의 시각의 한계 지적)**

실전문제 2

2014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 I 3번

[문제 3]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 [30점, 500~520자]

(사) 다음은 미국 피츠버그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아이, 빌 스트릭랜드의 삶에 관한 이야기 중 일부이다. 빌은 고등학교에서 도자기 공예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공을 일구어 냈다. 그는 30년 동안 맨체스터 비드웰이라는 직업 훈련 센터와 지역 사회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사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의 짐 또는 자선과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로 치부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공동체의 자산이고,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가치 있는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제 기업이 우리를 후원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적 의무감의 발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훈련 과정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회사 장부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이해와 도시 빈민가 사람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접점을 찾아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뒤집었다.

(중략)

가난은 마음의 암이다. 나는 이 사실을 체험으로 안다. 평생의 경험과 피츠버그에서 30년간 성공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거나 무너진 그들의 삶을 바로잡겠다는 사회 정책을 창안하려는 것만으로는 이 암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난을 치유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기 이전에 '인간'임을 이해해야 하고, 인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아름다움, 질서, 목표 의식, 기회와 같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기본 자양분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피츠버그의 빈민가에 핀 꽃」, 『윤리와 사상』, 교학사)

(아) 왜는 짜샤, 우리가 주인이잖아!
한국인 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것이 그들의 명분이었다. 추우면 너희 나라로 가라는 말도 나왔고, 너희들은 원래 난로 같은 것 없이 살아왔지 않냐는 말도 나왔고, 급기야 까불면 모조리 신고해서 붙잡혀 가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회사가 잘되던 때까지만 해도 같은 직원으로서 오순도순 지내던 동료들이었다. 네팔 말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던 유순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쌓아 왔던 우정은 모두 소용없었다.
우리는 직원, 너희는 노동자.
우리는 주인, 너희는 노비였다.
우리가 쓰는 것이 화장지라고 한다면 너희가 코 푸는 것은 휴지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화장실이라면 너희가 똥 싸는 것은 변소라는 식이었으며, 우리가 먹는 밥이 식사라면 너희가 먹는 밥은 여물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와 너희는 철저히 달라서,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기온이 내려가면 춥다는 사실조차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춥고 배고프고 천대받도록 애당초 설계된 종족들에게 난로가 뭐 필요하냐고, 그들은 갑자기 표변하여 소리 질렀다.

싸움은 멱살잡이 사태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수적으로 적은 데다가 힘에서도 열세였기 때문에 간신히 치고받고 하는 정도까진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 방으로 돌아갔고 외국인 노동자 또한 손이나 쪼일 만한 전기난로를 중심으로 모여 앉았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스물두 살짜리 알리가 훌쩍거리고 울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한국에 온 지 여섯 달 된 알리는 안동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한국인 청년과 유난히 친해서 의형제처럼 지냈다. 한국인 청년은 스무 살로서 알리를 부를 때에도 꼭꼭 알리 형, 알리 형, 이라고 불렀다. 추우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친 청년이 바로 그 자였다.

그때, 경찰을 앞세우고 그들이 다시 들이닥쳤다. 난로를 끝내 힘으로 빼앗아 가지 못한 한국인 직원들이 경찰까지 부르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사태가 절망적이라고 여긴 나이 어린 알리가 먼저 북쪽 창으로 몸을 날렸고, 카밀은 득의만면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한국인 직원의 옆구리를 들이받고 옥상 마당 끝까지 도망쳤다고 했다. 공장 뒤편의 시멘트 바닥에 추락한 알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상처받은 짐승처럼 버르적거리는 걸 카밀은 보았다.

"내가 왜 뛰어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카밀은 스스로 고개를 갸웃했다.

옥상 마당의 끝까지 달려가 난간 위에 올라섰을 때 카밀을 둘러싼 것은 경찰관이 아니라 한국인 직원들이었다고 했다.

(중략)

"죽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카밀은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에요. 나는 난간 위에 서 있고 걔는 비상계단 쪽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확 달려들어 걔를 밀어 버리면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때, 걔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디 뛰어내려 봐. 걔 눈빛,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냥 뛰어내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 아니에요. 양, 양반, 그거 생각났어요. 걔가 만날 자랑하던 양반 할아버지요. 한국의 양반은 죽인다고 해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왕 앞에서도요. 걔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걔가 얘기해 준 양, 양반 생각이 났구요, 그러니까 쪽, 쪽팔리는 기분 들었어요. 누나도 쪽팔린다, 그런 말 알지요? 쪽팔려서요, 쪽팔리지 않으려구요, 붕 하고 나른 거예요, 내가. 허리 굽히기 싫어서요……."

카밀은 히히, 하고 바보처럼 웃었다.

(「나마스테」, 「문학II」, 교학도서)

1. 문제 유형 파악하기

주어진 문제를 자세히 살펴 보면, 비판·평가형("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고")과 대안 제시형("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결합형 문항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평가형 해결 방법과 대안 제시형 해결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2. 비판·평가형 문제 해결하기

이 문제의 세부 유형을 살펴 보면, 하나의 제시문에서 비판·평가의 논거를 찾아 또 다른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세부 유형(기본형, 예측 진단형, 다각적 비판·평가형, 통합적 비판·평가형) 중에서 기본형에 속한다.

(1) 1단계

문제를 잘 읽어 보면, 비판·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제시문이 (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를 읽고 핵심 논지를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사)는 빌 스트릭랜드와 빈스 로스가 쓴, 「피츠버그의 빈민가에 핀 꽃」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을 읽고 파악해야 할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결과물(비판·평가 논거) :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자선과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감이나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을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사회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 2단계

문제에서 주어진 비판·평가의 대상은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이다. 따라서 제시문 (아)를 읽되, 여기에 제시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한다.

제시문 (아)는 박범신의 「나마스테」의 일부로서, 이 작품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반성적 인식을 이끌어 낸 소설이다. 제시문에서는 군포시 외곽의 어느 박스 공장에서 일하던 카밀과 알리가 난로 때문에 한국인 직원들과 갈등이 빚어져 경찰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다치게 된 경위를 보여 준다. 경찰을 앞세우고 들이닥친 한국인 직원들이 오히려 경찰보다 더 앞에 나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압박해 오고 그 와중에 알리가 투신하자 이러한 차별적 상황에 대한 일종의 소극적 저항의 행위로 카밀도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된 것이다. 카밀의 목소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문 (아)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단계 결과물(비판·평가 대상) :

한 직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직원 간의 갈등이 폭발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한국인 직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편익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경우, 그들을 동료가 아니라 핍박하고 억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3) 3단계

이제 1단계에서 찾은 비판·평가의 기준과 2단계에서 찾은 대상을 연결하여 비판점을 도출할 차례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요소 간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제시문 (사)의 가난한 사람들과 제시문 (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동시에, 제시문 (아)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은, 제시문 (사)에서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 즉 시혜적인 관점을 버리고 그들이 우리와 동등한 인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조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공통점과 대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

3단계 결과물(비판점) :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배제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동정심에서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시혜적 태도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3. 대안 제시형 문제 해결하기

문제 해결에 앞서서 대안 제시형 문제 유형 파악을 해보자. 위의 문제에서 대안 제시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이다. 이는 대안 제시형의 기본형이라기보다 변형유형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즉, 명시적으로 특정 제시문에 바탕을 두고 대안 제시를 하라는 표현은 없지만, 비판을 하는데 있어 선행적으로 제시된 제시문 (사)에 근거하여 비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안 역시 비판을 하는 것에 바탕을 둔 동일한 제시문 (사)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1) 1단계 : 비판·평가형 문제 풀이로부터 도출된 비판 내용(문제점) 숙지하기

앞의 비판·평가형 문제 풀이 3단계의 결과물로써 비판점은 소외된 사람들이 스스로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의 제공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억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점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동정심에서 나온 시혜적 자선 태도의 문제점'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비판점을 다시 한 번 숙지한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자.

(2) 2단계 : 대안 제시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서 비판(문제점)과 관련된 내용 찾기

대안 제시를 위한 2단계에 있어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은 대안 제시에 대한 기준이 되는 제시문 (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제시문 (사)의 핵심 요지는 이미 비판·평가 유형 문제 풀이 1단계에서 제시되었다. 이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동정심이나 시혜적 자선의 태도로 이들을 도와주려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점과 둘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들이 스스로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야만 단순한 동정심에서 유발된 시혜적 자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3단계 : 특정 제시문 내용에 한정하여 비판점에 대한 대안 제시하기

마지막 3단계는 2단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에 한정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문 (사)에서 핵심 요지로 파악되었던 **시혜적 자선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요지에 한정하여 대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 방법으로써 먼저 외국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혜적 시각이 아닌 방식으로 이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지원이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4. 모범 답안

제시문 (아)는 한 직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직원 간의 갈등이 폭발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한국인 직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편익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경우, 그들을 동료가 아니라 핍박하고 억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한다.**(제시문 (아)의 '상황' : 비판·평가 대상)**
이러한 상황은 (사)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배제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동정심에서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시혜적 태도도 극복되어야 한다.**(제시문 (사)의 관점에 근거한 비판점)**
(사)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잠재력을 가진 사회적 공동체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차별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발현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호혜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제시문 (사)를 토대로 한 대안 제시)**

이 문제의 최종 답안 구성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제시문 (사)와 관련된 기술이다. 이 문제는 대안 제시를 위한 제시문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유형이므로 문제에 명시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비판의 기준을 제공했던 제시문 (사)에서 대안의 구성 요소들을 찾아야 한다. 즉, 제시문 (사)의 경우 비판의 논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안의 재료를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답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시문 (사)의 내용이 중복되어 기술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유형에 대한 답안을 구성할 때에는 제시문 (사)의 내용을 잘 배분하여 동일한 내용이나 표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모범 답안의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시문 (사)의 핵심 논지에 대한 요약을 하지 않고, 그 내용이 비판점과 대안 속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유형 3. 대안 제시형

제시문의 논지를 토대로 대안/극복방안/해결방안 제시하기

01_문제 유형 개요

인문계열 논술에서 대안 제시형 역시 다른 앞서의 문제 유형과 같이 상당히 빈번히 출제되었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이다. 대안 제시형 문제는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와 연관되어 도출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내지 대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앞 단계인 비판·평가 유형 문제에서 특정 제시문의 내용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판은 대안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안 제시형 문제 유형은 독립적으로 제시되는 문제 유형이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되었던 비판·평가형 문제 유형과 연관되어 제시되는 문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대안의 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제시문에서 주어진 주장 내지 핵심을 바탕으로, 이에 의미를 더하여 비판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키포인트

대안 제시형 문제 접근시 반드시 기억할 점

- 반드시 주어진 특정 제시문에 나타난 논지에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

02_문제 유형 파악하기

대안 제시형 문제 유형을 해결하는 선행 조건으로 앞서 비판 및 평가에 따른 핵심 비판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판 및 평가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였다는 가정 아래에서 설명을 진행한다.

1. 문제의 기본 구조

전반적인 측면에서 대안 제시형 문제는 하나의 기본형으로 귀결되며, 일부 조건이 생략된 변형 유형이 있다.

문제 유형 예시

- 기본형 :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 및 주장에 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판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유형
- 변형 유형 : 문제에 특정 제시문에 한정하라는 표현은 없으나, 학생이 스스로 국한되는 제시문을 찾아내고, 이에 한정하여 비판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유형

변형 유형은 기본형과 전반적인 문제 출제 의도나 풀이 과정이 거의 동일하지만, 비판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한정하는 제시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2. 문제 유형 파악

특정 제시문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유형의 문제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출제된다.

제시문 A의 논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1) 기본형

이러한 대안 제시형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던 예는 다음과 같다(밑줄 친 부분).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나눔(쪼갬)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시오.**
[2015 인문사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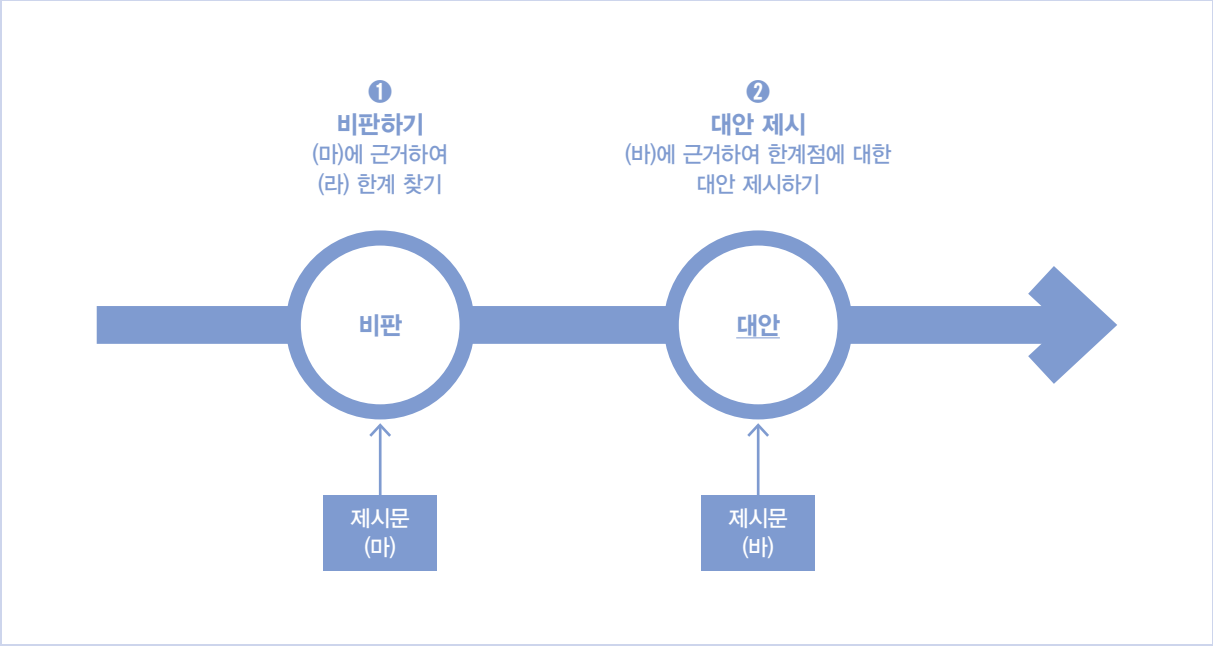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는 수험자의 주관적 또는 선행 지식에 의한 평가보다는, 특정 제시문에서 주어진 시각이나 논점에 국한하여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 **비판·평가 유형과의 결합**

  실제 문제에서는 대안 제시형만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의 경우 앞서 설명된 비판·평가형과 연계하여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되는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3번 문제로 출제되었던 위의 전형적인 대안 제시형 문제를 통하여 이러한 두 가지 문제 유형이 결합되는 구조를 파악하여 보자.

  이 문제의 경우, 크게 평가(한계 기술) 부분과 대안 제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답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구조를 분해하여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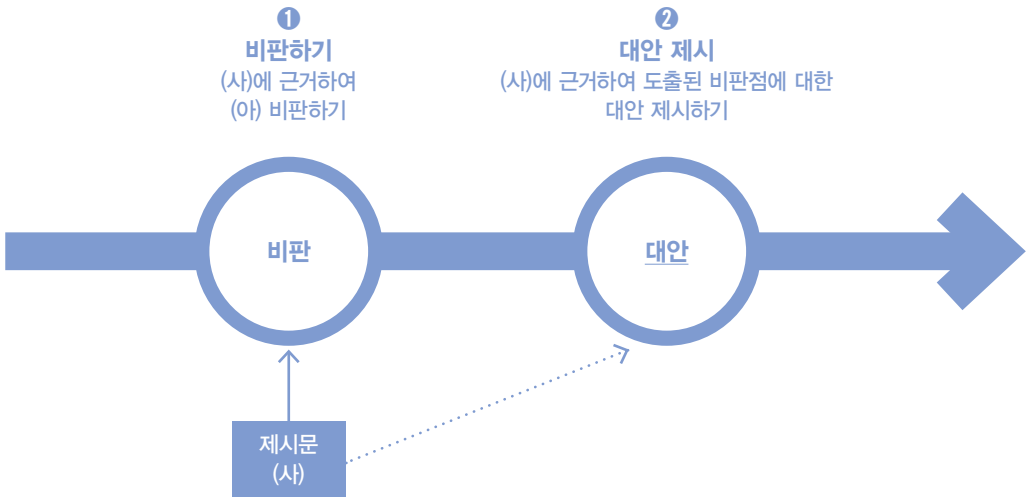


(2) 변형유형

그러나 위와 같은 전형적 문제유형을 벗어난 변형 유형도 존재한다. 이는 특정 제시문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관련 제시문을 찾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이는 기출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의 형태를 가진다.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 [2014 인문사회1-3]

이 문제 역시, 크게 평가(비판) 부분과 대안 제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앞의 기본 유형과 비교하여 차이점은 문제에 대안 제시를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특정 제시문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 구조를 분해하여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 제시문 (사)가 명목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선 대신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위의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제시문에 바탕을 두고 대안 제시를 하라는 표현은 없지만, 비판을 하는데 있어 선행적으로 제시된 제시문(사)에 근거하여 비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안 역시, 비판의 근거가 되었던 제시문 (사)에 근거하여(한정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유형 역시 수험자의 주관적 또는 선행지식에 의한 평가보다는, 수험생이 찾아낸 제시문에서 주어진 시각이나 논점에 국한하여 비판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비판·평가형과 연계하여,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4개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해야 한다.

키포인트

대안 제시형 문제의 세부 유형들

- ❶ 기본형 : 주어진 제시문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 ❷ 변형 유형 : 대안 제시를 위한 특정 제시문이 없을 경우 → 앞서 비판에 사용되었던 제시문을 다시 사용하기

03_문제 해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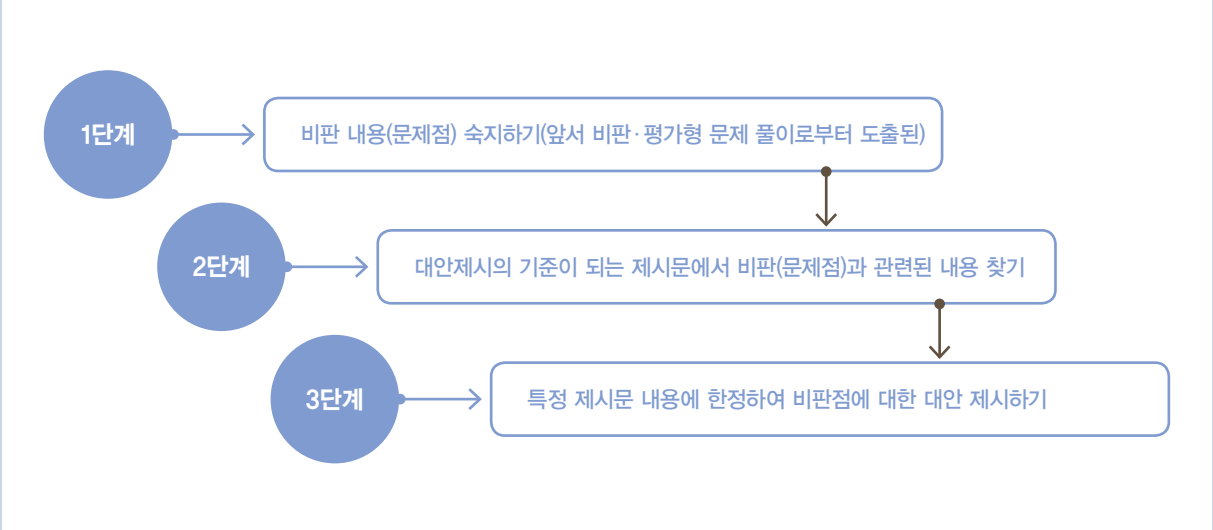
대안 제시형 문제의 기본 구조 및 유형을 이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 보자. 대안 제시형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문 A의 논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친 과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문제 해결 절차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된 비판점(문제점)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대안을 특정 제시문의 내용에 기반하여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1단계

미션

비판·평가형 문제 풀이로부터 도출된 비판 내용(문제점) 숙지하기

문제 풀이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앞 단계인 비판·평가 문제 유형에서 도출한 비판점 또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를 숙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형 문제 풀이에 있어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판·평가형에서 분석된 문제점 또는 비판을 숙지하고, 이러한 문제점 내지 비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추출해 내야 한다. 이렇게 추출된 핵심 비판 내용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특정 제시문과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201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3번 기출 문제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비판점을 찾아내라는 문제 유형의 풀이를 통하여 나타난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 "연속선 상에 놓인 대상들을 인위적으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단순화하고 각각의 범주들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분류 체계라는 주관적 틀에 갇혀서 객관 세계의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앞서 비판·평가 문제 유형 풀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지개색을 나타내는 단어의 한계로 나타나는 인식의 단순화 및 범주들 사이에 실재하는 존재들의 간과 등, 나눔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숙지하여야 한다. 이후 이 비판의 주요 의미, 즉 나눔이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한계점을 머리 속에 넣은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2) 2단계

미션

대안 제시의 토대가 되는 제시문에서 비판(문제점)과 관련된 내용 찾기

2단계의 핵심은 대안 제시의 근거가 되는 제시문(주어진 특정 제시문)의 내용과 비판·평가형에서 파악된 핵심 내용(문제점) 또는 주장(비판)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비판점과 대안 제시의 근거가 되는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 상호 대비되는가(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는 성별에서 반대) 아니면 상호 유사한 것인가(버스와 자가용의 공통점은 차) 등의 예와 같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또는 대비하는 방식으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전 문제 풀이에서 제시되는 기출 문제의 제시문 (바)에서 핵심 주제가 나타나 있는 주요 문장들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 모두가 한 가족이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 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핵심적 주제는 "세계를 인식하는데 있어 부분으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을 인정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된 핵심적 주제를 앞서 정리된 두 가지 비판 내용 – '다양성 파악의 어려움'과 '객관적 실체 파악의 어려움' – 과 연관하여 보면, 이 둘은 상호 대비가 되는 관계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비판·평가를 통해 도출된 비판점, 한계점에 대한 명확한 논지파악(1단계)을 바탕으로 특정 제시문에 근거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특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3) 3단계

미션

특정 제시문 내용에 한정하여 비판점에 대한 대안 제시하기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특정 제시문에 근거하여 비판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특정 제시문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는 기준이나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무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2014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번 문제를 응용하여 이러한 잘못된 대안 제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문제에서는 공평주의에 기반한 여전제의 한계점을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의 내용 중 차등의 원칙에만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기반하여 본다면, 대안은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여전제의 한계인 개인별 선천적 능력과 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정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래는 제시문에서 주어진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안을 제시한 답안의 예이다.

모범 답안

(바)는 노동한 만큼 동등하게 배분해 준다는 점(노동량)에서 기본 권리가 같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보장되고 있으나, 선천적인 조건, 즉 능력(노동질의 차이)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의 기여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여전제가 간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에 따라 차등적 분배를 실시하여 기계적 공평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최소 수혜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제시문인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응답자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에 근거한 다른 예를 이용하여 대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점수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잘못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잘못된 답안

개인별 선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 공평주의는 구공산주의에서 주장했던 무조건적 공평주의가 구소련 및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에서 나타났듯이, 그 한계가 매우 큼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조건적 공평주의는 그 유용성이 적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여전제에서 주장하는 선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선천적 능력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다.

위와 같은 답안의 경우 제시문에서 주어진 롤스의 차등주의가 아닌 다른 내용(문제에서 주어진 제시문과 관계없는 공산주의 사례)을 가지고 문제의 답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

04_실전 문제 풀이

위에서 정리한 문제해결 과정에 따라, 실제 출제되었던 대안 제시형 문제 풀이를 하여 보자. 먼저 문제 및 문제와 관련된 제시문은 아래와 같다.

실전문제 1

2015 인문사회-2번

[문제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나눔(쪼갬)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 아직까지 지구 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총수나 종류를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육지의 큰 생물들은 대부분 밝혀졌으나 곤충, 균류, 세균 및 현미경적 크기의 다른 생물들 수백만 종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과학자들은 지구 상의 생물 종 수가 약 1천만 종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수한 생물 종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생물 종들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활용하면 종들 사이의 유연관계를 알 수 있을까?

생물들의 다양성은 엄청나지만, 알려진 모든 종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 모든 생물들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기본 물질로 하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동일한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생물 종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계통을 세워 보면 모든 생물들은 약 35억 년 전 지구 상에 생겨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공통 조상은 지구 상의 생명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따른 생물 종과 집단 사이의 계속적인 갈래는 생명의 가지치기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생물들은 기본적 동일성과 상호 관계에 따라 생물 계통수에 배열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생물들은 세 개의 큰 무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두 개가 원핵생물이며, 다른 하나가 진핵생물이다. 원핵생물에는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남세균이나 대장균과 같은 세균, 황세균과 같이 세균과는 여러 면에서 특성이 다르며 화산 지대와 같이 주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세균이 있다. 진핵생물은 단세포 생물(아메바, 짚신벌레 등)과 세 가지 주요 다세포 생물군인 식물, 균류, 동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종류로 아우르면 우리의 생각이 보다 명확해진다. 대상이 속한 종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이 속하지 않은 다른 종류와 구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의 성격도 한결 구체화되며, 상위에 속하는 것과 하위에 속하는 것이 구분되어 체계가 드러나게 된다.

(「생물의 종들은 유사성에 따라 계통을 세울 수 있을까?」, 『과학』, 금성출판사)

(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기보다는 언어에 반영된 주관 세계이다. 언어와 같은 상징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분절하고 범주화하여 인식하므로 우리가 객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일곱 가지이기 때문이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색, 예컨대 녹색과 청색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경계선은 아주 녹색도 아주 청색도 아니지만 그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런 모호한 색깔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어중간한 색깔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베리아의 밧사(Bassa)어에서는 무지개 색을 오직 두 가지로만 구별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해 나타나는 색은 수십, 수백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어에서도 초록색, 청색, 남색을 모두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하늘, 푸른 바다' 등의 표현이 그것을 말해 준다. 우리 어린이들이 흔히 이 세 가지 색을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색인데도 한 가지 단어를 쓰기 때문이다.

(「언어와 사고·사회·문화」, 『독서와 문법 I』, 비상교육)

(바)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내 왔다. 그가 답례로 우리의 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 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온 것은 곧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과 같다. 대추장은 우리만 따로 편히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 보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목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 준다. 카누를 날라 주고 자식들을 길러 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 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문학 II』, 창비)

1. 문제 유형 파악 및 문제 풀이 단계 요약

먼저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하여 보자. 이 문제는 대안 제시형에 속한다. 문제를 기본형과 비교하여 다시 한 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할 때 근거가 되는 제시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기본형	제시문 A의 논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문제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시오

이 문제는 제시문 (라)와 (마)의 독해를 통해 '분류'라는 나눔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부분이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부분이라는 생태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 의도를 숙지하고 앞서 설명되었던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를 중심으로 위의 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풀이방식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문제 풀이 순서	2015 인문사회 수시논술 문제
① **비판점 숙지**	비판·평가형 문제 풀이에서 도출된 비판점의 숙지 및 핵심 비판점 정리
② **특정제시문과 비판점의 연결**	앞 단계에서 숙지된 비판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문 (바)에 나타난 세계관과 차이점 또는 유사점 등의 관계로 연결하고, 이를 통하여 비판점에 대한 대비점을 찾기
③ **대안 제시하기**	앞 단계에서 찾아낸 관계(대비관계)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핵심적 내용에 근거하여 대안 제시하기

아래에서는 각 단계별 문제풀이 방식을 단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단계별 문제 풀이

(1) 1단계 : 비판·평가형 문제 풀이로부터 도출된 비판 내용(문제점) 숙지하기

문제에서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은 밑줄 친 부분이다. 문제 풀이의 첫 단계로 앞의 장에서 분석되었던 비판점을 다시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 "연속선 상에 놓인 대상들을 인위적으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단순화하고 각각의 범주들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분류 체계라는 주관적 틀에 갇혀서 객관 세계의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위의 비판은 나눔이라는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지개색을 나타내는 단어의 한계로 나타나는 인식의 단순화 및 범주들 사이에 실재하는 존재들의 간과 등, 나눔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 결과를 보면 인위적 나눔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은 '인식의 단순화에 따른 다양성 파악의 어려움'과 '주관적 틀에 갇혀 객관적 실체 파악의 어려움'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비판점을 다시 한 번 숙지한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자.

(2) 2단계 : 대안 제시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서 비판(문제점)과 관련된 내용 찾기

2단계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대안 제시에 대한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제시문 (바)는 미국 대통령이 백인 대표자를 보내 땅을 팔 것을 제안하자 시애틀 추장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연설한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만물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명의 그물이라는 세계관을 보여 주는 이 글에서는 부분과 전체가 서로 수평적이고 역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세계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바)의 전체와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는 세계관에 근거하여 앞서 논의되었듯이, 대비적 관점을 가지고 앞서 정리된 비판점 두 개 – '인식의 단순화'에 따른 다양성 파악의 어려움'과 '주관적 틀에 갇혀 객관적 실체 파악의 어려움' – 를 연관시켜야 한다. 두 가지 비판점과 제시문 (바)의 논지는 상호 대비되는 관계로 연결됨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음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3단계 : 특정 제시문 내용에 한정하여 비판점에 대한 대안 제시하기

마지막 3단계는 2단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에 한정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적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문 (바)의 세계관을 토대로 기술해야 한다. 자연과 인간과 만물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명의 그물이라는 제시문 (바)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식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분류의 방식이 한편으로는 분절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분절된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도 사실은 연속적이고 수평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하나의 역동적 세계를 이룸을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범 답안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면, 대안 제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모범 답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바)에 나타난 세계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에도 부분이 있고 부분에도 전체가 있다는 이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과 만물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명의 그물이다.**(대안 제시의 근거가 되는 제시문 (바)의 요지 파악)**
따라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제시문 (라)의 분류가 한편으로는 분절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도 사실은 연속적이고 수평적으로 맺어져 있는 하나의 역동적 세계임을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대안 제시의 근거가 되는 제시문에 근거하여 (라)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대안 제시형에 있어 모범 답안은 1단계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1단계의 비판 내용은 앞의 비판·평가형에서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즉 대안 제시형은 비판·평가형과 결합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 답안 작성에 있어서는 앞에서 이미 기술된 비판점을 중복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안 제시형 문제에 있어 답안은 2, 3단계 풀이 단계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위의 모범 답안은 1)대안 제시의 근거가 되는 제시문 요지 파악, 2)대안 제시의 근거가 되는 제시문에 근거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유형 4. 적용·해석형

제시문의 논지를 적용하여 자료/상황 분석/해석하기

01_문제 유형 개요

인문계 논술에서 적용·해석형 문제 유형은 그간 상대적으로 적게 출제되었던 유형이다. 본 문제 유형은 주로 두 개의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 속에서 내용 분석 및 의미 도출을 하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적용·해석형 문제는 수험생에게 두 제시문 간의 역할 관계의 파악 및 이러한 역할관계에 따라 두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의 대안 제시형과 연결되어 문제가 출제된 바 있었으며, 이처럼 적용·해석형 문제 유형은 다른 유형과 결합되어 출제될 수 있다.

키포인트

적용·해석형 문제 접근시 반드시 기억할 점

- 문제에서 주어진 두 제시문의 역할 – 분석 대상 제시문과 분석 기준 제시문 – 파악하기

02_문제 유형 파악하기

적용·해석형 문제는 하나의 기본 유형으로 귀결된다. 본 문제의 유형 파악을 위해 첫 번째 숙지하여야 할 점은 두 개의 제시문 간 **역할 관계의 파악**이다. 특정 제시문이 해석을 위한 대상으로, 그리고 또 다른 특정 제시문이 분석 및 해석을 하기 위한 기준 내지 분석 도구로 주어진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개의 제시문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후 분석 대상과 분석 기준이라는 두 제시문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문제 풀이가 가능해진다.

1. 문제의 기본 구조

전반적인 측면에서 적용·해석형 문제는 하나의 기본형이 있으며, 다른 문제 유형과 조합된 유형이 있다.

- 기본형 : 특정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 및 주장을 적용하여, 다른 제시문에서 담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야 하는 유형
- 다른 유형과 조합된 유형 : 기본형과 대안 제시형이 결합되어 있는 유형

변형 유형은 기본형과 적용·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풀이 과정이 동일하고, 이러한 적용 및 해석을 통한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대안 제시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문제 유형 파악

(1) 기본형

기본형으로써 적용·해석형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출제된다.

제시문 A의 OOO방식을 이용하여 제시문 B의 내용(상황)을 분석(해석)하시오

이러한 적용·해석형 문제 유형이 실제로 문제로 출제되었던 예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사)의 왼쪽은 신문 광고이고 오른쪽은 시 작품이다. 이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과 그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낸 효과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015 인문사회-3번]

본 문제 유형의 풀이에 있어 정형화된 기존 배경 지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주어진 두 제시문에 한정하여, 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적용·해석형 문제는 수험생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제시문에 주어진 기준에 기반하여 제시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들어 낸 효과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
제시문 (바)의 논지를 고려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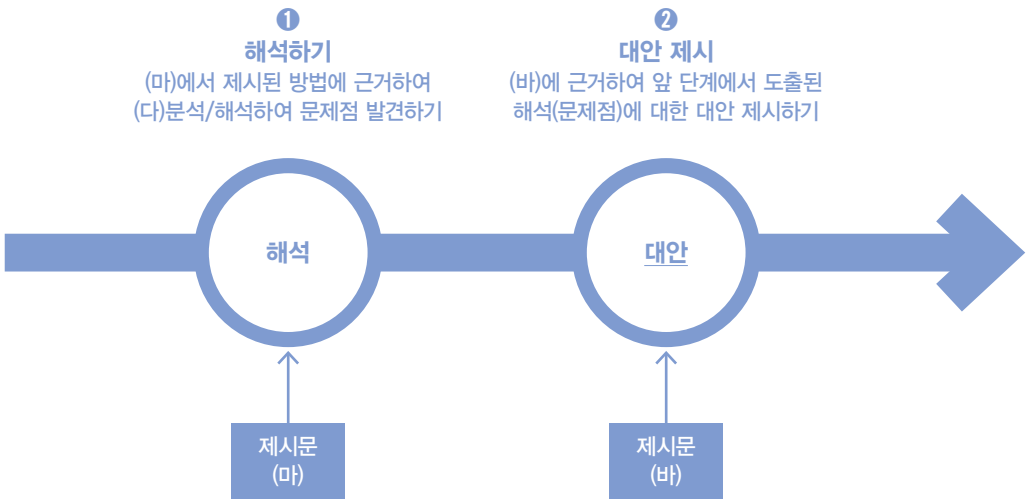
적용·해석형 문제에서 제시문은 분석 기준과 분석 대상의 관계로 연결하여 파악해야 한다. 즉 특정 제시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또 다른 제시문에서 제시되는 방법이나 기준에 의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하나의 제시문에는 분석 기준이 제시되고, 또 다른 특정 제시문에는 분석을 위한 텍스트나 그림 등으로 구성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문계열 언어 논술 문제에서 제시되는 적용·해석형은 수리논술 분석형과 달리 수치로 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언어(텍스트) 또는 그림 등의 자료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다른 문제 유형과 결합된 복합 유형

적용·해석형의 기본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유형의 문제와 결합되어 출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4학년도 경영경제계열 2번 문제로 출제되었던 아래의 문제를 보자.

"① 제시문 (마)의 동굴 비유를 이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주인공 게리가 처한 상황과 행위를 해석하고, ② 제시문 (바)의 논지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위 문제의 경우 앞의 기본형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판·평가 유형과 대안 제시형이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유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해석 기본형 문제의 풀이 과정과 대안 제시 유형 풀이 과정을 결합해야 가능하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이 문제는 두 단계, 즉 자료 분석을 통한 해석을 제시하는 단계와 이 해석(문제점)에 대하여 (바)라는 특정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한정된 대안 제시를 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키포인트

적용·해석형 문제 풀이 시 반드시 기억할 점

- 제시문 간 역할관계(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파악하기
- 주어진 분석 기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해석 능력 배양하기

03_문제 해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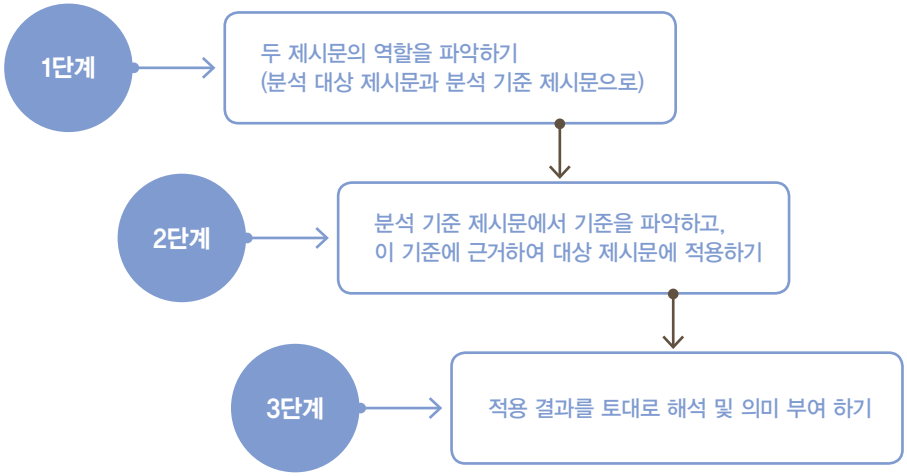
적용·해석형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문 A의 OOO방식을 이용하여 제시문 B의 내용(상황)을 분석(해석)하시오"

이러한 기본형 문제는 3단계를 걸쳐 해결할 수 있다.

1. 문제 해결 절차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시문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다른 제시문의 기준에 의해 근거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3단계의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1단계

미션

두 제시문의 역할을 분석 대상과 분석 기준으로 나누어 파악하라.

첫 번째 단계는 각 제시문들의 역할 파악, 즉 어떤 제시문이 분석 대상(자료)이며, 어떤 제시문이 분석 방법 또는 기준으로 사용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출 문제를 이용하여 1단계 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자.

> "제시문 (사)의 왼쪽은 신문 광고이고 오른쪽은 시 작품이다(①). 이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과 그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낸 효과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②)"

위의 문제는 201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3번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부분(①)과 분석 기준에 대한 부분(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사)의 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되었는지를 제시문 (아)에서 찾아서(근거해서) 설명하라는 질문을 해석하였을 때, 이러한 두 제시문의 역할이 구분될 수 있다.

(2) 2단계

미션

분석 기준 제시문에서 주어진 기준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 기준을 대상 제시문에 적용하여 분석하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 근거하여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을 분석한다. 2단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시 세부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해법 1] 분석 대상 제시문 개괄적으로 보기**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제시문을 개괄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분석 대상이 되는 제시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2015학년도 인문사회 문제 3번(다음 장 실전 문제 풀이, 실전 문제 1)의 예를 살펴보자.

  이 문제에서 제시된 제시문의 경우, 왼편에는 세 개의 신문 광고가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시가 있음이 한 눈에 들어온다. 두 개의 내용이 병렬적으로 놓여진 경우 둘(신문 광고와 시)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만 자세히 읽어 보면, 신문 광고의 내용과 시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괄적인 살펴 보기를 통하여 두 제시문 사이에 상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통점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 및 해석할 것인가는 다음 해법인 분석 기준 또는 분석 방식을 서술하는 제시문을 읽음으로써 찾을 수 있다.

- **[해법 2] 분석 기준 이해 및 선택하기**

  분석 대상이 되는 제시문이 개괄적으로 파악되었다면 이후에는 분석 기준을 서술하는 제시문에 나타난 효과, 절차 등 분석을 위한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방식 또는 기준 중 앞서 파악한 제시문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선택한다.

  앞의 예를 다시 살펴 보면, 신문 광고와 시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 광고와 시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분석 기준이 제시된 제시문의 핵심 요지(창조적 재구성)가 이러한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시 창작 방법', 또는 구체적으로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시 창작 방식으로 둘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해법 3] 선택된 창작 방식을 실제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에 적용하기**

  이 단계에서는 해법 2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서 서술된 방식을 분석 대상이 되는 제시문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찾아낸 분석 결과를 명쾌하게 기술하면 2단계가 마무리된다.

  앞서의 예를 들어 살펴 보면,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시 창작 방법을 신문 광고와 시 간의 관계 파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파편화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문 광고를 하나로 묶고 여기에 작자의 일상적 삶의 의미를 덧붙이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신문 광고가 시로 창조적으로 재구성되었음을 파악하여야 한다.

(3) 3단계

미션

앞 단계에서 수행하였던 적용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라.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 파악 및 해석을 하여야 한다. 주어진 기준에 의해 파악된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때 새로운 의미가 나타난다. 이러한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3단계 해석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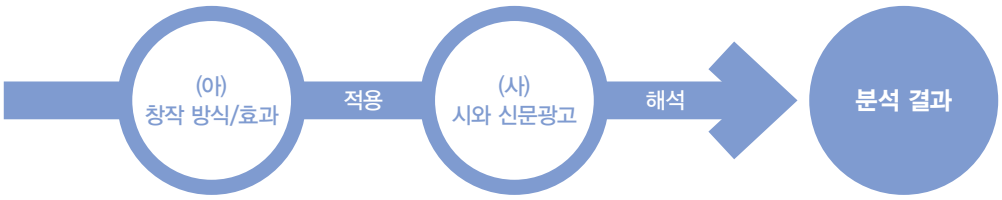
여기서 새로운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앞서 2단계에서 분석된 결과에 한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실제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는 결과가 보여주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거나 제시문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의미 파악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험생은 분석 결과를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를 관통하는 논지 또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도출해내야 한다.

앞의 예를 이어서 설명하면, 신문 광고에서 시로 창조적 재구성된 시가 새롭게 창출해내는 효과 또는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신문 광고 내용이 시로 재구성되면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건(신문 광고의 심인과 작가의 일상)이 같은 시 안에 놓임으로써 발생하는 가족의 문제와 시대의 상황 등이 개인의 일상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은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 현실의 의미와 가치들을 성찰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3단계 풀이 과정은 상호 배타적, 이질적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들 간의 관계가 상호 유기적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2015 인문사회계열 3번 문제에 나타난 적용·해석형 문제의 구조를 분해하여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적용·해석형 문제 풀이 과정



(아)에서 제시된 방법(방식/효과)을 적용하여 제시문 (사)분석 및 해석하기

키포인트

적용·해석형 문제 풀이에서 기억해야 할 점

- 분석 대상 제시문 파악하기
- 분석 후 파악되어 도출된 분석 대상 제시문의 다양한 측면을 다시 재구성하기
- 문제 풀이 3단계 숙지하기
  - [1단계] : 두 제시문의 각각 역할을 파악하기
  - [2단계] : 분석 기준 제시문에 근거하여 분석 대상 제시문을 분석하기
    [해법 1] 분석 대상 제시문 개괄적으로 보기
    [해법 2] 분석 기준 이해 및 선택하기
    [해법 3] 선택된 창작 방식을 실제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에 적용하기
  - [3단계] : 분석을 토대로 해석 및 의미 부여하기

04_실전 문제 풀이

위에서 정리한 문제해결 과정에 따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적용·해석형 문제 풀이를 해보자.

실전문제 1

2015 인문사회-3번

[문제] 제시문 (사)의 왼쪽은 신문 광고이고 오른쪽은 시 작품이다. 이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과 그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낸 효과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00~420자]

(사) **신문 광고**



시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1551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혜'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심인」, 「문학 I」, 지학사)

(아) 일반적으로 시를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 속에 특별한 말로 굉장한 무엇인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일상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지 특별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 언어는 바로 일상의 언어로부터 출발한다.

문학은 경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고 재창조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신문 기사나 보고서, 실록 등과 같은 기록물들과 다르다. 문학은 일상에 갇혀 있는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여 경험 세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면하게 한다. 문학 작품의 비판적·창조적 재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먼저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시어나 소재, 주제를 바꾸면 새로운 작품이 된다. 형식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소설을 시로 재구성하거나, 소설을 희곡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때는 재구성할 형식이 가진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한다. 형식을 재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 스크랩, 극장의 포스터, 광고 메시지, 금전 출납부, 동상의 받침대에 새긴 문안 따위를 작품 속에 옮겨 재배치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재구성된 재료들은 문학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흔히 내용만 따라 읽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에는 작가가 공들여 배치한 여러 가지 미적인 형식이 감춰져 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독자는 작품의 내용 속에 감추어진 섬세한 미적인 형식을 발견해 냄으로써 보다 높은 미적 성취를 얻게 된다.

(「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문학 I」, 해냄에듀)
(「문학 작품의 비판적·창조적 재구성, 상상력과 감수성」, 「문학 I」, 천재문화)

1. 문제 풀이 단계 요약

이 문제는 적용·해석형 유형에 속한다. 문제를 기본형과 비교하여 다시 한 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형	제시문 A의	OOO방식을 이용하여	제시문 B의 내용(상황)을	분석(해석)하시오
문제	제시문 (사)의 왼쪽은 신문 광고이고 오른쪽은 시 작품이다.	이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과 그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낸 효과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실제 이 문제는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의 방식과 효과를 설명하는 제시문 (아)에 근거해, 신문의 심인(尋人) 광고를 재배치하고 변형해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시 작품을 설명해 보게 함으로써 다양한 글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 의도를 숙지하고 앞서 설명되었던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를 중심으로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풀이 방식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문제 풀이 순서		2015 인문사회 수시 언어논술
① 제시문 역할 파악	분석 대상 제시문	제시문 (사) : 시(심인) 및 신문 광고
	분석 기준 제시문	제시문 (아) :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방식
문제 해결	② 분석	시의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신문기사가 시로 재구성되는 방식을 찾아냄
	③ 해석	재구성된 시가 새롭게 창출해내는 효과 또는 의미에 대한 해석

아래에서는 각 단계별 문제 풀이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단계별 문제 풀이

(1) 1단계 : 제시문의 역할 파악

적용·해석형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문제에서 주어진 제시문 중 어느 제시문이 분석 대상 자료이고 어느 제시문이 분석 방법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료 분석형 문제에서 주어지는 제시문들 간에는 분명한 역할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시문들의 역할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읽음으로써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위 출제된 문제에서는 **"창작 방식과 그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낸 효과"**가 분석을 하는 기준 또는 분석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기준이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라고 제시되어 있다. 즉 제시문 (아)에는 분석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제시문 (사)는 이러한 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 및 해석이 되어야 되는 대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간 역할 파악이 수험생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라는 것이다. 즉 수험생은 **"신문 광고가 어떻게 시 창작의 재료로서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 + 시 창작 방식이 실제 적용되면서(신문 광고 → 시) 발생한 문학적(새로운 의미 창조) 효과 파악"**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2) 2단계 : 분석하기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제시문 간 역할 구분이 끝난 후 분석 방법 제시문의 내용에 따라 분석 자료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분석 대상 제시문 개괄적으로 보기**

  분석 대상 자료 역할을 하는 제시문 (사)는 황지우 시인의 심인이라는 시이다.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제시문 (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시문은 왼쪽에 세 개의 신문 광고, 그리고 오른쪽에 심인이라는 시의 전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광고가 시를 창작하는 재료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신문기사가 시로 재구성되는 방식을 찾아내어야 한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신문기사의 내용이 시의 1, 2, 3연에 그대로 옮겨져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수험생은 실제 제시문의 '내용'보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류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분석 기준 이해 및 선택하기**

  여기서 수험생이 파악하여야 하는 핵심적 창작 방식은 '창조적 재구성'이다. 구체적으로 분석 기준을 기술한 제시문 (아)에 나타난 핵심적 시 창작 방식 및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시문 (아)는 시 창작 방식(창조적 재구성)에 관한 부분과 그 효과로서 문학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술하고 있다.

- **선택된 기준을 대상 제시문에 적용하기**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서 기술된 방식인 창조적 재구성을 분석 대상이 되는 제시문에 실제 적용하여야 한다. 제시문 (아)에서 제시된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시 창작 방식이 심인이라는 시가 어떻게 창작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기준이 된다. '창조적 재구성(분석 기준)'의 대상이 '신문 광고가 시로 전환되는 것(분석 대상)'임을 기술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창조적 재구성의 효과는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경험 세계를 확장시키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게 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창조적 재구성의 방식이 단 한가지만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문 광고 자체를 시의 각 연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콜라주 기법으로서 창조적 재구성의 한 방식이 된다. 또한 띄어쓰기가 없는 신문 광고를 띄어쓰기 및 줄 바꾸기를 함으로써 의미를 더 명확히 하는 등 다른 재구성 방식이 있다. 또한 세로줄 쓰기를 가로줄 쓰기로 전환하는 방식 역시 또 하나의 재구성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문 광고에 작자의 일상 경험을 추가하여 완성된 한 편의 시로 재구성하였다는 점 역시 창조적 재구성의 또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답안은 원고지 기준 제시문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파악된 모든 재구성 방식이 답안에 모두 제시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다양한 창조적 재구성 방식 중 가장 핵심적인 것(신문의 심인(尋人) 광고 문구를 가져와 시행과 연으로 나누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배치)은 반드시 답안에 포함시키고, 지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3) 3단계 : 해석하기

마지막 3단계는 2단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일단 해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가 어떻게 창작되었는가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창작 기법에 의해 시가 창작되었을 때, 어떠한 미적 효과가 창출되는지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유추해내야 한다.

앞서 분석에서는 형식적 측면에 주요 초점을 두었다면, 해석 단계에 있어서는 제시문의 내용적 측면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심인이라는 시는 일상 언어로서 신문 광고가 시적 언어로 창조적 재구성 되어 총 4연으로 구성된 시로 재탄생 하였다. 내용적으로 보아 이 시에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메시지의 심인 광고와 화장실내에서의 배설 행위처럼 화자가 날마다 접하는 일상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가족 갈등과 회한, 시대적 상황들을 상상하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 현실의 의미와 가치들을 성찰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3. 모범 답안

이상 1~3단계를 거쳐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최종적인 모범 답안이 된다.

제시문 (사)의 시 작품은 일상의 언어가 시로 창작되는 방식을 보여준다.**(분석 기준의 파악)**
우선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신문의 심인(尋人) 광고 문구를 가져와, 시행과 연으로 나누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배치함으로써 일상의 언어를 시로 변형하는 형식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광고와는 무관해 보이는 화자의 일상 경험을 마지막 연에 추가하여 한 편의 시로 재구성하였다.**(분석 기준을 분석 대상에 적용)**
이러한 창조적 재구성은 신문 광고 문구의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한다. 실종된 사람을 찾는 절박한 메시지의 심인 광고들과 화자의 일상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일상의 언어인 광고 문구를 낯설게 만들고, 독자의 경험을 일상 바깥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광고에 주어진 정보들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게 한다.**(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석)**

위의 모범 답안은 앞에서 제시되었던 문제 풀이 단계에 따라, 1) 분석 기준의 파악, 2) 분석 기준을 분석 대상에 적용, 3)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실전문제 2

2014 경영경제-3번(일부)

[문제] 제시문 (마)의 동굴 비유를 이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주인공 게리가 처한 상황과 행위를 해석하시오.

(다) 게리는 원어민 영어 학원 강사이다. 가끔 명품 모조 가방을 납품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한국인이다. 외모가 외국인을 닮아서 그는 원어민 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 그가 사는 신도시를 걷다 보면 그를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는 외모로 보면 완벽한 외국인이고 자신도 외국인으로 행세한다.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 흉내를 낸 것은 아니다. 그는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혼혈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으며 심한 따돌림을 받기도 했다. 이후 영문과에 진학한 게리는 시사 영어 잡지에서 '게리 워커 존슨'의 삶을 읽게 된다. 게리 워커 존슨은 미군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멸시받던 그는 아버지의 조국인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온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는 영어를 잘하는, 일명 '뉴요커'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게리 워커 존슨을 모방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도 게리 워커 존슨으로 바꾸고,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다. 온전하게 혼혈인이 되는 것이다.
게리는 대학 일 학년을 마치기 전 늦가을에 징집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지방 병무청을 찾아갔다. 창구 직원은 서류 두 장을 단검처럼 차례로 뽑아서 내밀었다. 게리는 서류를 받아 들고 말했다. 군인이라도 된 것처럼 괜히 긴장되었다.
(중략)
"저…… 상담을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걸 봐, 거기 나온 대로 작성하면 바로 처리되니까."
창구 직원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게리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한 장은 5급 제2 국민역 대상자, 즉 병역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안내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청서였다. 이미 게리는 안내장 내용을 병무청 사이트를 통해 읽고 온 길이었다.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게리는 신청서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했다. 신상 관계란의 성장 과정에 혼혈인, 고아, 귀화인, 북한 탈주 주민 항목이 있었다. 게리는 혼혈인에 체크했다.
(중략)
"워낙 없던 일이라…… 호적 등본이나 주민 등록 등본 사본 가져왔나?"
게리는 가죽점퍼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컴퓨터에 눈을 박고 한참 서류를 처리하던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보았다.
"이상하네. 올해 우리 관할 신검 대상자 중에 혼혈 사유로 분류된 자원은 없는데……. 실수로 누락된 건가?"

직원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게리가 건넨 주민 등록표를 사전처럼 들여다보았다.
"부 김달호, 모 오판심. 친부모 아닌가?"
"맞는데요. 제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그럼 양친 중에 어느 한 분이 혼혈인가?"
"아닌데요."
"그럼 뭐야?"
"제가 아까부터 뭘 상의를 드린다고……."
(중략)
"사실 저는 명백히 한국인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저씨도 보셔서 알겠지만 생긴 건 명백히 혼혈인이라 이거죠."
창구 직원은 입을 벌린 채 의자 깊숙이 몸을 젖혔다. 그는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기가 차다는 듯 입을 비틀더니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이 친구 보게. 어떻게 자네가 혼혈인가? 멀쩡한 양친을 두고."
창구 직원은 지금까지 부산을 떤 일이 억울한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원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목청을 높였다.
"내가 이 창구에서만도 오 년인데 혼혈로 면제를 받겠다고 온 사람은 자네가 첨이야. 전국으로 따져도 기껏해야 일 년에 열댓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경우라고. 이건 엄연히 병역 회피 행위야. 이곳에서 당장 헌병에 넘길 수도 있어, 이 친구야. 젊은 사람이 병역 의무를 신성하게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썩어 빠진 궁리나 해서 쓰겠어?"

(「이미테이션」, 『고등학교 문학 II』, 해냄에듀)

(마) 땅속에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동굴 안쪽의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손과 발, 목이 묶여 있다. 그들 뒤에는 동굴 안을 비추어 주는 불빛이 있다. 그들과 불빛 사이에 담장이 세워져 있고, 그 담장 위로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동물이 마치 자동인형처럼 지나가고 있다. 그 인형들은 실제 사람이나 동물처럼 소리를 내기도 한다.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묶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보아 온 것이 실은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은 소리도 그림자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다가 그들이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 고개를 돌리고 인형을 본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아 온 것이 진짜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실물 인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을 동굴 밖으로 데려가 지금까지 그들이 동굴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면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동굴 밖에는 실제 사람들과 동물 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그것들을 본떠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동굴 밖의 세계에 점차 익숙해진다면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1. 문제 유형/의도 파악하기

이 문제는 적용·해석형 유형에 속한다. 문제를 기본형과 비교하여 다시 한 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형	제시문 A의	OOO방식을 이용하여	제시문 B의 내용(상황)을	분석(해석)하시오
문제	제시문 (마)의	동굴 비유를 이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주인공 게리가 처한 상황과 행위를	해석하시오

이 문제는 제시문 (마)에 제시된 철학적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다)의 사회적 차별과 그 속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주인공 게리의 삶에 대입하여 해석하는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 (마)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우리가 오감을 통해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일상의 사실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으며 진실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철학적 비유를 제시문 (바)의 사회적 차별로 인해 외국인의 삶을 살게 된 주인공의 현실에 대입시켜 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출제 의도를 숙지하고 앞서 설명되었던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를 중심으로 문제 풀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단계별 문제 풀이

(1) 1단계 : 두 제시문의 각각의 역할을 파악하기

"제시문 (마)의 동굴 비유를 이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주인공 게리가 처한 상황과 행위를 해석하고"까지가 적용·해석형에 해당하는 문제부분이다. 이 부분만 놓고 파악하면, **"제시문 (마)의 동굴 비유를 이용하여"**를 통해 제시문 (마)에서의 동굴 비유가 바로 분석기준 또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주인공 게리가 처한 상황과 행위를 해석하고"**가 문제이다. 문제는 제시문 (다)에서 기술된 내용(게리가 처한 상황과 행위)을 분석 및 해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단계 : 분석 기준 제시문에 근거하여 분석 대상 제시문을 분석하기

- **[해법 1] 분석 대상 제시문 개괄적으로 보기**

  제시문 (다)는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체가 섞여있는 소설이므로 글읽기가 다른 제시문들보다 더 수월하다.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보면, 외모, 혼혈, 한국인, 정체성 등의 키워드를 통해 어렵지 않게 숙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의 주인공인 게리는 완전한 한국인이지만 외모가 혼혈인 같은 인물이다. 외모 때문에 게리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편견을 받게 되고, 이에 의해서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체 소외된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소외된 삶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주인공은 이러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사 잡지에서 본 외국인 '게리 워커 존슨'의 삶을 모방하여 외국인 행세를 하지만 결국 병역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다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 **[해법 2] 분석 기준 이해 및 선택**

  제시문 (마)는 플라톤의 동굴 우화로서, 그 중심 요지는 감각적으로 인지한 그림자나 인형은 실체가 아닌 허상이며, 일상의 삶은 실재보다 이러한 허상 또는 현상에 지배를 받는다. 왜냐하면 오감을 통한 경험에 기초해서 보면 실제보다는 그 그림자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에 바탕을 두고 보았을 때, 게리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삶이 실재로서 파악되는가, 아니면 허상으로서 파악되는가이다. 이러한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파악될 수 있다.

  "자신들이 평생 보아 온 것이 실은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을 동굴 밖으로 데려가 지금까지 그들이 동굴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면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그것들을 본떠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해법 3] 선택된 기준을 실제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에 적용하기**

  제시문 (마)에서 선택된 분석 기준은 동굴 속에서 사는 삶이 허상이라는 것과 실재를 파악하였을 때 겪게 되는 혼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기준은 외모의 문제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게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외모는 실체가 아닌 허상이며, 이러한 허상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게 된 게리의 상황을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의 허상/실재에 대한 기준–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이해하는 현실–을 적용함으로써 이해가 높아진다.

(3) 3단계 : 분석을 토대로 해석하기

허상과 실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게리의 삶을 해석하면, 한국인이면서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리는, 실제로 허상이 실체라고 믿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때, 병역제도라는 현실(동굴 밖 세상)에 부딪힘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 혼란, 즉 허상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면 된다.

3. 모범 답안

이상의 풀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모범 답안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마)는 사람들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동굴 속의 가상 세계를 보여준다.**(분석 기준의 파악)**
이를 (나)의 주인공의 삶과 병치시켜 보면, 동굴 속에서 한쪽 벽면만을 보도록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과 실체를 모방한 인형과 그림자는, 주인공이 사회적 차별로 인해 외국인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잡지를 통해 본 외국인 '게리 워커 존슨'의 삶, 그리고 그를 모방하여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분석 기준을 분석 대상에 적용)**
여기서 외국인으로 행세하며 그림자(인형)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허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주인공이 병역 제도라는 동굴 밖 세상의 현실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다시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석)**

위의 모범 답안은 앞에서 제시되었던 문제 풀이 단계에 따라, 1) 분석 기준의 파악, 2) 분석 기준을 분석 대상에 적용, 3)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유형 5. 수리 논술형(경영경제계열)

수리적 능력을 활용하여 논리적 결론 제시하기

01_문제 유형 개요

인문계열 논술에서 수리 논술형 문항은 2002학년도 논술부터 출제되었고, 주어진 자료의 해석이나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은 방정식, 부등식, 함수, 적분, 수열, 무한등비급수, 로그, 확률, 기댓값 등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각 내용의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2014학년도부터는 경영경제계열에만 수리 논술형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2014학년도에는 30점 1문항, 2015학년도에는 20점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02_유형 파악하기

2013학년도 이후 모의 논술과 수시 논술의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경영경제계열 수리 논술형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기댓값에 근거한 의사결정 유형
-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목적함수를 최대(최소)화하는 유형
- 경우의 수에 의거한 확률 계산 및 확률분포를 유도하는 유형

향후 수리 논술형 문제는 좀 더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전망이며, 이와 같은 유형의 예는 6절에서 소개할 것이다.

03_기댓값에 근거한 의사결정 유형

1. 문제 유형 파악하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은 가능한 의사결정 대안에 대하여 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댓값(예를 들면, 기대이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측도, 예를 들면 최대 이익(최소 손실), 최소 분산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수리적 지식의 범위는 확률 및 기댓값에 대한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학습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기댓값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

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 $p(x)$가 $p(x_i)=p_i\ (i=1,2,\cdots,n)$일 때, X의 기댓값 $E(X)$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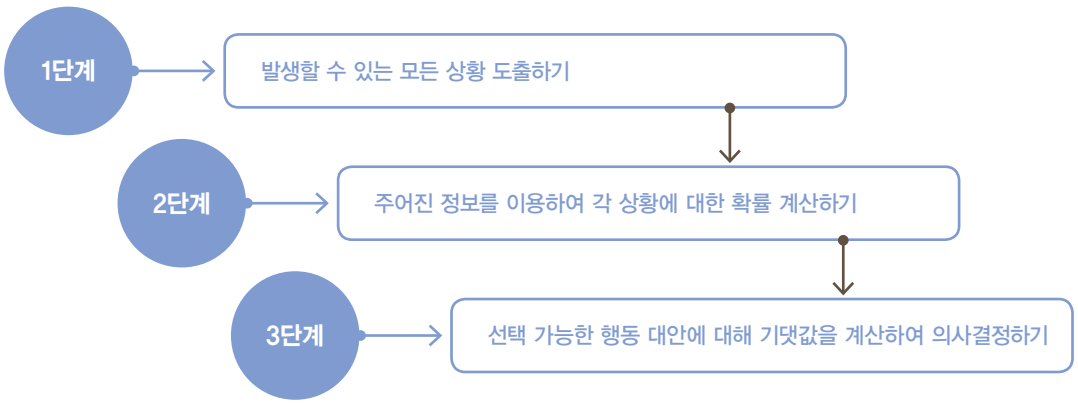
$$E(X)=\sum_{i=1}^{n} x_i\,p(x_i)=x_1p_1+x_2p_2+\cdots+x_np_n$$

(「미적분과 통계 기본」, 천재교육, p. 171)

기댓값에 근거한 의사결정 유형 문항은 2015학년도 수시논술 경영경제계열 3번 문항, 2014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3번, 그리고 2013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1과 인문계열3의 3번이다.
이 기출 문제들의 특징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대안이 있고, 각 상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여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대안의 기댓값을 계산하라는 것이다. 계산된 기댓값에 근거하여 최선의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이 문제들의 출제 의도가 될 것이다.

2. 문제 해결하기

기댓값에 근거한 의사결정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문제 풀이

첫 번째 유형에 대해 2015학년도 수시논술 경영경제계열 3번 문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자.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A기업은 1년 후의 경제 상황이 당해 연도 및 1년 전의 경제 상황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1년 후의 경제 상황이 호황일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년 전 경제 상황	당해 연도 경제 상황	1년 후 경제 상황이 호황일 확률
불황	불황	0.3
호황	불황	0.5
불황	호황	0.6
호황	호황	0.8

또한, A기업은 각각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한 해의 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구분	호황	불황
수익	100억	20억
비용	10억	10억

[문제 3] 당해 연도를 2014년이라고 할 때, 2016년 A기업의 기대 이익을 구하시오. 단, 경제 상황은 호황과 불황의 두 가지 경우만 있고, 2013년과 2014년의 경제 상황은 모두 불황으로 가정한다.[20점]

이 문제에서는 2016년 A기업의 기대 이익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고,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야 기대 이익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이제 문제 해결하기에서 제시한 3단계를 거쳐 문제를 풀어보자.

(1) 1단계 :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도출하기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A기업이 처한 경제 상황은 1년 후(2015년) 및 2년 후(2016년)의 경제 상황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2015년 호황, 2016년 호황), (2015년 호황, 2016년 불황), (2015년 불황, 2016년 호황), (2015년 불황, 2016년 불황)

이다. 따라서 2016년 A기업의 기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의 호황과 불황은 2014년과 2013년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2016년의 호황과 불황은 2015년과 2014년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음을 유의하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문제에 2013년과 2014년의 경제 상황은 모두 불황으로 가정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2) 2단계 :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각 상황에 대한 확률 계산하기

위의 네 가지 상황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제시된 정보, 즉 당해 연도와 1년 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1년 후의 경제 상황이 호황일 확률을 이용해야 한다. 각 경우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15년 호황, 2016년 호황) : P(2015년 호황 ∩ 2016년 호황)
= P(2015년 호황) x P(2016년 호황 | 2015년 호황)
= 0.3 x 0.6 = 0.18

여기서 P(2015년 호황)은 P(2015년 호황 |(2014년 불황 ∩ 2013년 불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률은 0.30이 된다(2013년과 2014년의 경제 상황은 모두 불황으로 가정). 또한, P(2016년 호황 | 2015년 호황)은 P(2016년 호황 |(2015년 호황 ∩ 2014년 불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률은 0.60이 된다.
위의 확률 계산에 사용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확률의 곱셈정리

$P(A)>0, P(B)>0$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cap B)=P(A)\,P(B|A)=P(B)\,P(A|B)$$

(『미적분과 통계 기본』, ㈜금성출판사, p. 150)

유사하게, (2015년 호황, 2016년 불황)의 확률은 $0.3\times(1-0.6)=0.12$, (2015년 불황, 2016년 호황)의 확률은 $(1-0.3)\times 0.3=0.21$, 그리고 (2015년 불황, 2016년 불황)의 확률은 $(1-0.3)\times(1-0.3)=0.49$로 계산할 수 있다. 단, 경제 상황은 호황과 불황의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1년 후의 경제 상황이 불황일 확률은$(1-$호황일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3) 3단계 : 선택 가능한 행동 대안에 대해 기댓값을 계산하여 의사결정하기

2016년이 호황인 경우 이익은 90억(100억–10억)이고 불황인 경우에는 10억(20억–10억)이므로, 네 가지 경우의 확률을 곱하여 기대 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정답을 얻을 수 있다.

기대 이익 = $(0.18\times 90)+(0.12\times 10)+(0.21\times 90)+(0.49\times 10)=41.2$(억 원)

이 문제에서는 선택 가능한 다른 행동 대안이 주어지지 않았다. 만일 선택 가능한 행동 대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각 행동 대안별로 기대 이익을 계산하여 최대가 되는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A기업의 1년 후(2015년) 및 2년 후(2016년)의 경제 상황 네 가지이다. 좀 더 엄밀하게 기술하자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의 네 가지 경제 상황인 것이다.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각 상황에 대한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고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키포인트

기댓값에 근거한 의사결정 유형 해법

-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도출하고,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각 상황에 대한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하라.

04_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목적함수를 최대(최소)화 하는 유형

1. 문제 유형 파악하기

두 번째 유형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하에서 목적함수(예를 들면 이익, 비용 등)를 최대(최소)로 하는 해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 유형의 문제는 주어진 정보를 수리적으로 모형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주어진 정보, 즉 제약조건으로는 주로 일차부등식과 정수해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 하에서 목적함수를 최대(최소)화 하는 해를 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일차함수와 일차부등식의 기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V. 부등식의 영역' 중 '1-3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 최소'

예제 2 : 어느 공장에서 두 제품 A, B를 각각 한 개씩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kg)와 전력(kWh)의 양, 그리고 제품 한 개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아래 표와 같다. 재료 20kg 이하, 전력 130 kWh 이하를 써서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제품 A, B를 각각 몇 개씩 생산해야 하는지 구하여라.

구분	재료(kg)	전력(kWh)	이익(만 원)
A	7	20	5
B	2	3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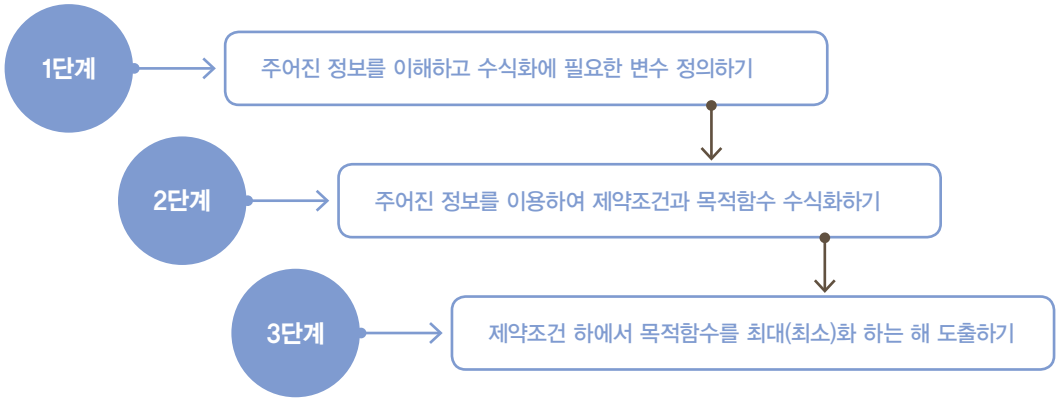
문제 풀이에 제시된 힌트 : 문제의 조건에 맞는 연립부등방정식을 세우고, 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어 본다.

(『수학』, ㈜미래엔, p. 241)

두 번째 유형의 기출문제는 2015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3번이다.(2013학년도 이전 기출문제로는 2012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2의 3번과 2011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3의 3번이 이에 해당한다.)

2. 문제 해결하기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목적함수를 최대(최소)화 하는 유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문제 풀이

두 번째 유형에 대해 2015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3번 문항의 사례를 가지고 문제 풀이를 설명해 보자.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H기업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소형 승용차 A와 대형 승용차 B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프레스 공정과 조립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산 라인 수와 인력을 고려할 때 공정별 일일 이용 가능 시간은 각각 300시간과 90시간이다. 차종 A의 경우 대당 2.5시간의 프레스 공정과 0.6시간의 조립 공정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 B의 경우 대당 5시간의 프레스 공정과 2.4시간의 조립 공정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 차종 B에 장착되는 고성능 GPS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하루 최대 30개까지만 조달 가능하다. 자동차 생산은 프레스 공정과 조립 공정으로만 구성되고,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 A와 B는 생산되는 전량이 판매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차종 A와 B의 대당 판매 이익은 각각 160만원과 400만원이라고 한다.

[문제 3] H기업은 현재의 생산능력 범위 안에서 전체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차종 A와 B의 일일 생산 대수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H기업은 차종 B에 장착되는 고성능 GPS의 가격 변화에 따라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이 변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앞에서 결정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를 구하시오.[20점]

문제 해결하기에서 제시한 3단계를 거쳐 위의 문제를 풀어보자.

(1) 1단계 :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수식화에 필요한 변수 정의하기

제약조건과 목적함수의 수식화를 위해 먼저 사용할 변수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

X_A : 차종 A의 일일 생산 대수

X_B : 차종 B의 일일 생산 대수

Y : 전체 판매 이익

(2) 2단계 :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제약조건과 목적함수 수식화하기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제약 조건과 목적함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제약 조건

프레스 공정의 제약 : $2.5X_A + 5X_B \leq 300$ – (1)

조립 공정의 제약 : $0.6X_A + 2.4X_B \leq 90$ – (2)

고성능 GPS 조달의 제약 : $X_B \leq 30$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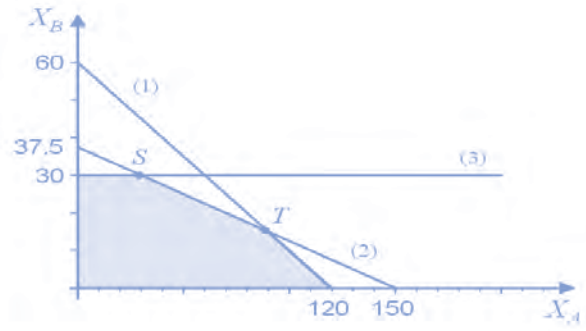
비음(nonnegative)과 정수라는 제약 : $X_A \geq 0, X_B \geq 0$인 정수 – (4), (5)

목적함수

전체 판매 이익 : $Y = 160X_A + 400X_B$

3개의 선형 제약 조건과 비음의 정수해라는 조건 하에서 목적함수(전체 판매 이익)를 최대로 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3개의 선형 제약식과 비음의 정수해라는 조건을 통하여 가능한 해의 영역을 선정하고 이 영역에서 목적함수를 최대로 하는 해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여기서 결정된 해가 정수해라는 조건에 맞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식(1)은 $X_B \leq -0.5X_A + 60$, 식(2)는 $X_B \leq -0.25X_A + 37.5$로 표현되므로 가능한 해 (X_A, X_B)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3단계 : 제약조건 하에서 목적함수를 최대(최소)화 하는 해 도출하기

최대화 하려는 목적함수인 $Y=160X_A+400X_B$는 $X_B=-0.4X_A+(1/400)Y$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함수의 기울기 -0.4는 식(1)의 기울기인 -0.5와 식(2)의 기울기인 -0.25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점 T를 지날 때 목적함수의 절편 $(1/400)Y$, 즉 Y는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점 T의 좌표는 식(1)와 (2)의 교점이기 때문에 $-0.5X_A+60=-0.25X_A+37.5$를 만족하고, 이로부터 점 T의 좌표는 $(90,15)$가 된다. 따라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은 차종 A는 90대, B는 15대를 생산하는 것이고, 이때 판매 이익은 20,400(만 원), 즉 2억 4백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이 유형의 문제는 "전체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는 일일 생산 대수는 차종 A는 90대, B는 15대이다."까지의 결론을 요구하지만, 이 문제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

문제에서 요구한 또 다른 내용은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를 구하라는 것이다. 고성능 GPS의 가격이 변화하여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이 변할 수 있다면,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을 b라 할 때 목적함수는 $Y=160X_A+bX_B$로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 구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이 유지되려면 목적함수가 점 T를 지날 때 X_B축 절편이 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함수의 기울기인 $-160/b$가 식(1)과 (2)의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0.5 \le \frac{-160}{b} \le -0.25$$

를 만족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320 \le b \le 640$을 얻을 수 있다.(등호는 없어도 무방함.) 따라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는 320만원과 640만원 사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목적함수를 최대화 하는 해를 구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문제(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 도출)가 있지만, 이 또한 3단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경우 정답을 유도할 수 있다.

키포인트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목적함수를 최대(최소)화 하는 유형 해법

-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제약조건과 목적함수를 올바르게 수식화하라.

05_경우의 수에 의거한 확률 계산 및 확률분포를 유도하는 유형

1. 문제 유형 파악하기

세 번째 유형은 문제에 제시된 절차를 파악하고, 주어진 자료에 대해 제시된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제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가능한 경우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여 확률분포를 유도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수험생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수리적 지식의 범위가 경우의 수, 확률, 확률분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다. 여기서 확률분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 :

이산확률변수 X가 가지는 어떤 값 x에 대응하는 확률을 기호 $P(X=x)$로 나타낸다.
또, 이산확률변수 X가 가지는 모든 값 $x_1, x_2, \cdots, x_n$에 그 값을 가질 확률 $p_1, p_2, \cdots, p_n$이 각각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라고 한다.
이때,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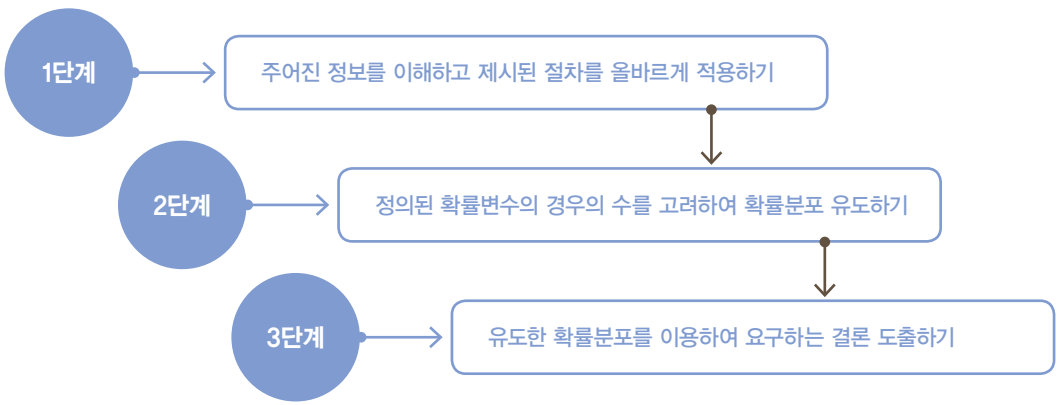
X	x_1	x_2	...	x_i	...	x_n	합계
$P(X=x_i)$	p_1	p_2	...	p_i	...	p_n	1

(『미적분과 통계 기본』, 천재교육, p. 168)

세 번째 유형의 기출문제는 2014년 수시논술 경영경제계열 3번과 2013학년도 모의논술 3번이 이에 해당한다.

2. 문제 해결하기

경우의 수에 의거한 확률 계산 및 확률분포 유도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문제 풀이

세 번째 유형에 대해 2014학년도 수시논술 경영경제계열 3번의 사례를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 보자.

[문제 3] 다음은 두 요인 간에 양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양(+)의 연관성'이란 한 요인의 값이 커질 때 다른 요인의 값도 커지며 한 요인의 값이 작아질 때 다른 요인의 값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단계 1 : n개의 개체에 대한 두 요인의 값을 $(X_1,Y_1),(X_2,Y_2),\cdots,(X_n,Y_n)$이라 하자. 이때 $X_1,X_2,\cdots,X_n$중에서 i번째 값인 X_i의 순위를 R_i라 한다. 여기서 순위는 $X_1,X_2,\cdots,X_n$중에서 가장 큰 값에 1, 그 다음 큰 값에 2, 이렇게 차례로 하여 가장 작은 값에 n을 부여한다.

단계 2 : [단계 1]과 같은 방법으로 $Y_1,Y_2,\cdots,Y_n$중에서 i번째 값인 Y_i의 순위를 S_i라 한다.

단계 3 : $i<j$인 모든 (R_i,S_i)와 (R_j,S_j)쌍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한다.
단, $i=1,2,\cdots,n$, $j=1,2,\cdots,n$이다.
$C=(R_i-R_j)(S_i-S_j)>0$인 쌍의 개수
$D=(R_i-R_j)(S_i-S_j)<0$인 쌍의 개수
즉, C는 두 요인이 양(+)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도이고,
D는 두 요인이 음(–)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도가 된다.

단계 4 : $K=C-D$를 계산하여, K값이 큰 경우 두 요인은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때 'K값이 큰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실제 두 요인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 주어진 값 p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단계 4]를 위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K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시오. 이때 n개의 개체에 대해 고려할 경우의 수는 $n!$임을 참고하시오.

다음 표는 UN이 2009년에 발표한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의 일부이다.

국가	1인당 실질 GDP($)	초 · 중등학교 진학률(%)
독일	34,401	88.1
대한민국	24,801	98.5
코스타리카	10,842	73.0

두 요인 '1인당 실질 GDP'와 '초·중등학교 진학률'의 자료를 위의 절차에 따라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시문 (사)의 논지를 찬성 또는 반대하시오. 단, '삶의 질'은 '초·중등학교 진학률'만 고려하고, [단계 4]에서 $p=0.2$를 가정한다.[30점]
(제시문 (사)는 부록의 기출문제를 참조)

문제 해결하기에서 제시한 3단계를 거쳐 위의 문제를 풀어보자.

(1) 1단계 :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제시된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이 유형의 문제는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단계를 올바르게 적용할 경우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주어진 자료를 제시된 단계에 그대로 적용하여 K값을 계산해 보자. [단계 1]과 [단계 2]를 적용할 경우 독일(국가 1), 대한민국(국가 2), 그리고 코스타리카(국가 3)의 '1인당 실질 GDP' X_1, X_2, X_3의 순위 R_1, R_2, R_3는 1, 2, 3이 되고, '초·중등학교 진학률' Y_1, Y_2, Y_3의 순위 S_1, S_2, S_3는 2, 1, 3이 된다.

[단계 3]을 적용하기 위해 $\{(X_1,Y_1),(X_2,Y_2),(X_3,Y_3)\}$의 순위 $\{(R_1,S_1),(R_2,S_2),(R_3,S_3)\}$를 나타내면 $\{(1,2),(2,1),(3,3)\}$이 된다. 따라서 국가 1과 2의 쌍 (R_1,S_1)과 (R_2,S_2)는 $(1,2)$와 $(2,1)$이므로, $(R_1-R_2)(S_1-S_2)=(1-2)(2-1)=-1<0$이 된다. 유사하게 국가 1과 3의 경우에는 $(R_1-R_3)(S_1-S_3)=(1-3)(2-3)=2>0$, 국가 2와 3의 경우에는 $(R_2-R_3)(S_2-S_3)=(2-3)(1-3)=2>0$이 된다. 따라서 $C=2, D=1$로 계산된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단계 4]에서 일단 K는 $K=C-D=1$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K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접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시된 단계를 올바르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 2단계 : 정의된 확률변수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확률분포 유도하기

이때 $K=1$이 큰 값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두 요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K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경우의 수와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문제에서 힌트로 주어져 있다.

$n=3$일 때 $\{(R_1,S_1),(R_2,S_2),(R_3,S_3)\}$는 다음과 같이 $3!=6$가지 쌍에 대하여 고려하면 되고, 각 경우에 대한 C, D, 그리고 K를 정의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R_1,S_1),(R_2,S_2),(R_3,S_3)\}$	C	D	K
$\{(1,1),(2,2),(3,3)\}$	3	0	3
$\{(1,1),(2,3),(3,2)\}$	2	1	1
$\{(1,2),(2,1),(3,3)\}$	2	1	1
$\{(1,2),(2,3),(3,1)\}$	1	2	-1
$\{(1,3),(2,1),(3,2)\}$	1	2	-1
$\{(1,3),(2,2),(3,1)\}$	0	3	-3

두 요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위의 6가지 경우는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경우의 발생 확률은 $1/6$이고, 따라서 K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K	-3	-1	1	3
확률	$1/6$	$2/6$	$2/6$	$1/6$

(3) 3단계 : 유도한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결론 도출하기

위의 확률분포에 의하면 두 요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K=3$이 될 확률은 $1/6$이기 때문에, $K=3$이 큰 값이라고 생각하여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은 $1/6 \cong 0.167$이 된다. 유사하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K \geq 1$(즉, $K=1,3$)이 될 확률은 $1/6+2/6=3/6$이므로, $K=1$이 큰 값이라고 생각하여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은 $3/6=0.5$로 주어진 한계인 $p=0.2$를 넘게 된다. 따라서 [단계 4]에 주어진 규칙에 의하면 $K=3$인 경우에만 두 요인이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 국가에 대해 계산한 K값인 $K=1$로는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제시문 (사)의 논지는 "경제 성장이 항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시문 (사)의 논지를 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요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K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경우의 수, 즉 $\{(R_1,S_1),(R_2,S_2),(R_3,S_3)\}$의 6가지 경우를 올바르게 산출해야 한다. 이때, $\{(R_1,S_1),(R_2,S_2),(R_3,S_3)\}$ 쌍에 대하여 6가지 대신 36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R_1,S_1),(R_2,S_2),(R_3,S_3)\}$에서 서로 순서만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1,1),(2,2),(3,3)\}$에서 서로 순서만 바뀌는 총 6가지, 즉

$\{(1,1),(2,2),(3,3)\},\{(1,1),(3,3),(2,2)\},\cdots,\{(3,3),(2,2),(1,1)\}$에서는 동일한 C, D, 그리고 K를 얻는다. 따라서 R_1,R_2,R_3는 각각 1, 2, 3으로 고정한 후 S_1,S_2,S_3가 바뀌는 6가지 경우만 고려하면 된다.

키포인트

경우의 수에 의거한 확률 계산 및 확률분포를 유도하는 유형 해법

-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시된 단계를 올바르게 적용하라.

06_향후 출제 가능한 유형

향후 수리 논술형 문항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 이외에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경영경제계열 전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유형을 제시해 본다.

1. 도표나 통계 자료의 분석에 기초한 추론 유형

도표나 통계 자료의 분석에 기초하여 다른 제시문의 논지를 비판 또는 논술하는 통합형 문제는 2010년 이전에는 빈번하게 출제되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의 출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유형의 문제 풀이에는 특별한 수학적 영역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9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1의 [3-2]번이 이 유형의 하나의 예이다.

[문제 3] 다음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정부 규제 정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불법 복제에 따른 추정 피해액을 정리한 가상 자료이다.

〈표 1〉 정부 규제 정도·불법 복제율·추정 피해액 가상 자료

국가	정부 규제 정도	불법 복제율(단위 : %)				추정 피해액(단위 : 백만불)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A	강함	70	60	50	40	163	135	110	?
B	중간	70	65	60	55	140	143	141	136
C	약함	70	68	66	64	70	82	92	99

* 추정 피해액 = 정품 소프트웨어 매출액×(불법 복제율 / 정품 사용률)로 가정한다.
* 정품 사용률 + 불법 복제율 = 100(%)

[문제 3-1] 매출액이 변화하는 양상을 근거로, A국의 2006년 정품 소프트웨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15점]

[문제 3-2] A국의 2006년 불법 복제율로 인한 피해액을 추정한 후, 〈표 1〉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를 제시문 (가)와 관련지어 논술하시오.[15점]

2. 수열과 극한의 개념을 이용한 추론 유형

수열과 극한의 개념을 이용한 추론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2010학년도 인문계열1의 3번 문항을 예로 들고자 한다.

이 문제는 언어논술 제시문들의 주제인 유토피아와 관련된 가상의 자료, 즉 연도별 '행복지구지수(Happy Planet Index : HPI)'와 이를 적합한 모형으로부터 미래의 값을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3-1]은 단기적인 예측에 관련된 문제로서 문제에 주어진 모형과 오차항에 대한 가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논리적으로 예측값을 도출할 수 있다. [3-2]는 장기적인 예측에 관련된 문제로서 [3-1]에 이어 몇 개 연도의 HPI 값을 계산하면서 나타난 패턴을 수열의 형태로 일반화하고, 이에 대해 극한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열과 무한등비급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무한등비급수 $\sum_{n=1}^{\infty} ar^{n-1}\ (a \neq 0)$은 ① $-1<r<1$ 일 때 수렴하고, 그 합은 $\frac{a}{1-r}$이다. ② $r \leq -1$ 또는 $r \geq 1$이면 발산한다.

(『수학Ⅱ』, ㈜금성출판사, p. 180)

[문제 3] 2009년 7월 영국의 환경단체인 신경제학재단(NEF)이 143개 국가의 삶의 만족도, 친환경지수, 기대수명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행복지구지수(Happy Planet Index : HPI)'에 따르면, 코스타리카가 1위를 차지하고, 한국은 68위에 올랐다. 〈표 1〉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A국의 HPI이다.

〈표 1〉 연도별 A국의 HPI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HPI	64.6	69.6	69.8	73.0	71.0	70.7	72.3	68.8	70.0

위의 연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의 HPI는 전년도 HPI의 30%에 상수 50과 오차항이 더해지는 모형을 통해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과 제시한 모형에 근거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단, 오차항들은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한다.
*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며,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관측된 통계자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이다.

[문제 3-1] 2010년과 2011년의 HPI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과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10점]

[문제 3-2] 단기적인 예측이 아닌 장기적인 예측, 즉 먼 미래의 HPI를 예측하고자 한다. 먼 미래의 HPI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20점]

3.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이용한 추론 유형

미분과 적분은 경영경제계열 전공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학의 분야이다. 따라서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활용한 추론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적분의 개념을 활용한 추론 유형의 예이다. 문제의 핵심용어인 '지니 계수'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열린 수학 교실]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 :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Lorenz, M. O. : 1880~1962)가 창안한 소득 분배 곡선인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이 인구 누적 비율, 세로축이 소득 누적 비율인 좌표축에 나타낸 곡선이다. 로렌츠 곡선을 $y = L(x)$라 하면 로렌츠 곡선은 $L(0) = 0,\ L(1) = 1$을 만족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오른쪽 그림(그림 생략)에서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완전 평등선 $y = x$에 대하여 완전 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넓이의 두 배를 이탈리아 통계학자 지니(Gini, C. : 1884~1965)의 이름을 따서 지니 계수라고 한다.

(『미적분과 통계 기본』, 더텍스트, p. 126)

다음의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에 대한 설명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가 창안한 로렌츠 곡선은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로축에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높은 순으로 비율을 누적하여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각 인구의 소득 수준을 누적한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여기서 비율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정의한다.)
이 곡선에서 45도 대각선은 완전 균등선으로 소득 전액을 전 국민이 균등하게 분배하였음을 나타내고, 완전 균등선에 가까울수록 부의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소득의 불균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가 제시한 지표인 지니 계수가 있다. 이 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실제 분배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 사이의 넓이의 2배로 정의된다.
여기서 완전 균등 상태의 지니 계수는 0이고 완전 불균등 상태의 지니 계수는 1이다. 지니 계수의 값이 커지면 불균등 정도는 커지고, 지니 계수가 작을수록 부의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제 3] A국과 B국의 로렌츠 곡선은 각각

$$f_A(x) = \frac{4}{5}x^2 + \frac{1}{5}x$$

$$f_B(x) = x^4 - x^3 + \frac{1}{2}x^2 + \frac{1}{2}x$$

이다. 이때 지니 계수를 이용하여 이 두 나라의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비교하고, 이 계수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4. 행렬의 개념을 이용한 추론 유형

행렬 또한 경영경제계열 전공에 필요한 수학의 분야이다. 행렬의 개념을 활용한 추론 유형의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2012학년도 인문계열1의 3번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3절의 첫 번째 유형의 문제 풀이와 유사하게, 가능한 상황을 도출한 후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정답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행렬의 개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올해 이동통신사 A사, B사, C사에서 다음 해 A사, B사, C사로 이동하는 비율(확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이 표는 이동 확률을 나타내는 행렬로 볼 수 있다. 이 행렬을 2번 곱하면 2년 후 이동 확률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올해/다음해	A	B	C
A	0.5	0.2	0.3
B	0.2	0.6	0.2
C	0.2	0.1	0.7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행렬의 곱셈 :

$A=\begin{pmatrix} a_{11} & a_{12} \\ a_{21} & a_{22} \end{pmatrix}, B=\begin{pmatrix} b_{11} & b_{12} \\ b_{21} & b_{22} \end{pmatrix}$ 에 대하여 $AB=\begin{pmatrix} a_{11}b_{11}+a_{12}b_{21} & a_{11}b_{12}+a_{12}b_{22} \\ a_{21}b_{11}+a_{22}b_{21} & a_{21}b_{12}+a_{22}b_{22} \end{pmatrix}$

(『수학Ⅰ』, ㈜금성출판사, p. 27)

다음의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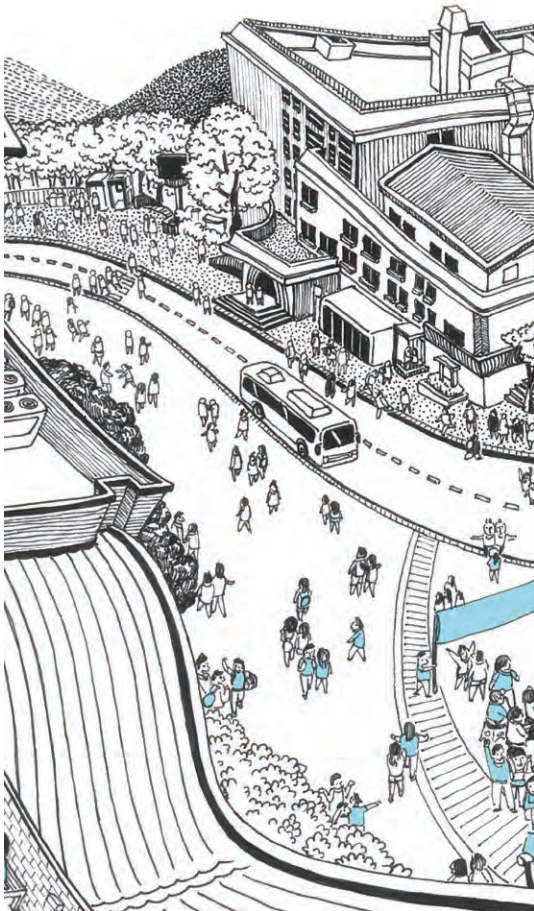
어떤 나라에 A사, B사, C사, 모두 3개의 이동통신사가 있다고 한다. A사, B사, C사의 연도별 시장점유율 및 통신사 간의 이동 비율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사의 가입자가 다음 해 A사, B사, C사로 이동하는 비율은 각각 0.5, 0.2, 0.3이며,
B사의 가입자가 다음 해 A사, B사, C사로 이동하는 비율은 각각 0.2, 0.6, 0.2이고,
C사의 가입자가 다음 해 A사, B사, C사로 이동하는 비율은 각각 0.2, 0.1, 0.7이다.

※ 다음 해에 올해와 같은 이동통신사로 이동한다는 것은 같은 이동통신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체 가입자 수와 이동 비율은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문제 3] 올해 A사, B사, C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30%, 50%, 20%일 때, 2년 후 C사의 시장점유율을 예측하고, 그 과정을 기술하시오.[20점]


CHUNG-ANG UNIVERSITY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14/6114
안성캠퍼스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Tel.** 031-670-3114/4114
입 학 안 내 **Tel.** 02-820-6393 http://admission.cau.ac.kr

http://www.cau.ac.kr/

본교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BECAUS

중앙대학교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백서

| 인문계열 별책부록 |



Contents

01_인문사회계열

1. 2014학년도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01
2. 2015학년도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04
3. 2014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지 06
4. 2015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지 10

02_경영경제계열

1. 2014학년도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13
2. 2015학년도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16
3. 2014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지 19
2. 2015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지 23



01_인문사회계열

1. 2014학년도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인들이 똑같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단일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각 지역마다 고유한 방언(方言)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깍두기'라는 말에 대해 지역별로 '깍데기(강원)', '깍닥김치(경남)', '깍두지(경북)', '나박지(전남)', '똑깍지(전북)', '깍뒤기(제주)', '똑데기(충북)', '나박디(평북)' 등과 같은 방언형이 존재한다.
같은 말이 방언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서울에서도 한 가지 말에 대해 여러 가지의 발음 형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닦아'를 [다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닦는다'를 [당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땅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를 [일반저그로]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쩌그로]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발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표준어(標準語)와 표준 발음을 정해서 공적인 언어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르면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값[價]'에 대하여 '값, 값만, 값이, 값을, 값에' 등은 서울말에서 [갑, 감만, 갑씨, 갑쓸, 갑쎄] 등으로 발음되는데, 바로 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말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려면 무엇보다도 발음이 정확해야 한다. 게다가 방언의 차이가 심하면 때로는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표준 발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석가모니가 설법을 할 때, 듣는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내용과 방식을 달리하였으므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한 내용도 각각 달랐다.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나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자 자기가 이해하고 들은 것이 석가모니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의 견해는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일이 많아져서 반목과 대립, 갈등이 심화되었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도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종파는 더욱 많아지고, 여러 학파들이 생겨나서 쟁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들 쟁론 중에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달리하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일은 신라에서도 일어났다. 중국으로부터 여러 갈래의 종파가 신라에 전래되었는데, 이들 종파들끼리의 반목, 대립은 정치 지배 세력의 분열과 국론의 분열 현상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효는 화쟁(和諍)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원효는 쪽빛과 남색이 하나이고 물과 얼음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처럼, 서로 다르게 보이는 주장도 모두 부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므로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하였다. 일체의 모든 이론은 결국 그 깨달음의 바탕인 일심(一心)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인 마음의 진리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생긴다고 하였다. 화쟁 사상은 특정한 교설이나 학설을 고집하지 않고 비판과 분석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이끌어 내는 사상이며, 모순과 대립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루는 사상이다.

(다) 사회의 분화에 따라 독신 가족 및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2008년부터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가족 관계법(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우선 개인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인 호적 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되었다. 지금까지 호적 등본에는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들의 인적 사항까지 전부 기록되었다. 그러나 새 등록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인적 사항이 간략히 기록된다. 특히, 증명서에서 본적 칸이 사라지고, 개인이 원하는 곳을 '등록 기준지'로 정해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물론 법원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성씨와 본을 바꿀 수 있다.

(라) 성적 소수자는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이성만을 사랑하지 않는다. 동성에게만 사랑을 느끼거나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성적 소수자에 속한다.
성적 소수자는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해 왔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성 정체성과 성적 대상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를 비롯한 사회 제도를 혼란스럽게 변화시킬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의학적 차원에서는 유아기의 성적 환상을 극복하지 못한 성도착자로 여겨졌다.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는 성적 소수자가 성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즉 종족 보존을 무시하고 탐욕적인 성적 행위만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성적 소수자는 범죄자, 정신병자,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오인되어 전기 충격 치료, 뇌 수술 등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성적 소수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커밍아웃을 한 성적 소수자는 주변 친지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한다. 또한 능력이 있다 해도 성적 소수자임이 밝혀진 사람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려 하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아는 사람이 아웃팅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성적 소수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

성적 소수자는 사회 제도에 의해서도 배척당한다. 동성애자가 수술을 해야 할 때, 다른 동성애자는 보호자로서 수술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거하는 동성애자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혈 규정이나 군대 규정에는 남성 동성애자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차별적 규정들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문화를 조장하고 동성애자에게 성 정체성으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는 성적 소수자가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개인 간의 능력 차이와 노력 여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불균형을 강제로 조절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간의 소득 격차와 계층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 지나친 부의 편중과 세습 그리고 불평등한 기회 제공 등이 고정화된다면, 사회 통합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쟁 상태에서 발생한 지나친 부의 집중화와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우선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기회 균등의 원칙)는 것이고,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차등의 원칙)는 것이다. 여기서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 체제와 경제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개인이 발휘한 능력에 따라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제적 분배가 각 개인의 경제적 기여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 경제 활동에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거나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고난 자연적인 자질은 우수한 두뇌를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신체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여건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므로, 처음부터 서로 다른 부의 분배를 배정받게 된다. 개인은 태어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여건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배분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남게 된다.

자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일환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타고난 선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약자들에 대해 최대한의 배려를 추구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분배의 기준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특히 그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바) 농사짓는 이는 전지(田地)를 갖게 하고, 짓지 않는 자는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閭田制)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전법이란 무엇인가? 산골짜기와 둑의 형세를 보아 가며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경계선을 긋고, 그 일정한 구역 안에 포함된 곳을 여(閭)라고 부르자. 여 셋을 합쳐서 이(里), 이 다섯을 합쳐 방(坊, 한나라 때의 행정단위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음. 오늘날의 동과 비슷함)이라 하고, 방 다섯을 합하여 읍(邑, 주나라 때의 행정단위로 지금은 군의 행정 중심지임)이라 하자.

여에는 여장(閭長, 여의 우두머리)을 두고, 1여의 전지는 1여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며,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는 경계선을 없애고, 여에 관한 일을 여장이 관리하게 한다. 사람들이 하루 일할 때마다 여장은 개인의 노동량을 빠짐없이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추수 때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마당으로 가져오게 한 뒤 곡식을 분배한다. 먼저, 관청에 바치는 세금을 제하고, 여장의 녹봉(祿俸, 봉급)을 뺀 다음, 나머지 곡식을 노동량에 따라 사람들(여민, 閭民)에게 배분한다.

가령, 세금과 여장의 녹봉을 뺀 나머지 수확물이 1000곡(斛, 1곡=10말=1섬=2가마=100되. 따라서 1000곡은 100,000되)이고, 장부에 기록된 노동일이 2만 일이라 한다면, 1일의 노동에 해당하는 곡식 분배량은 5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어떤 집에 부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등 식구 전체가 일한 날이 800일이면 배당을 받는 곡식은 약 40곡이다. 또 가령, 어떤 사람의 노동 일수가 10일이면 돌아오는 몫은 5말(1가마)일 뿐이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곡식을 많이 받고, 노력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적을 것이니, 어찌 힘써 일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힘써 일하면 땅에서 얻는 이익도 늘어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재산이 늘고, 재산이 늘면 풍속이 순후해지고, 효제가 자리 잡힐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 다음은 미국 피츠버그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아이, 빌 스트릭랜드의 삶에 관한 이야기 중 일부이다. 빌은 고등학교에서 도자기 공예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공을 일구어 냈다. 그는 30년 동안 맨체스터 비드웰이라는 직업 훈련 센터와 지역 사회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사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의 짐 또는 자선과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로 치부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공동체의 자산이고,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가치 있는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제 기업이 우리를 후원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적 의무감의 발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훈련 과정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회사 장부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이해와 도시 빈민가 사람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접점을 찾아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뒤집었다.

(중략)

가난은 마음의 암이다. 나는 이 사실을 체험으로 안다. 평생의 경험과 피츠버그에서 30년간 성공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거나 무너진 그들의 삶을 바로잡겠다는 사회 정책을 창안하려는 것만으로는 이 암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난을 치유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기 이전에 '인간'임을 이해해야 하고, 인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아름다움, 질서, 목표 의식, 기회와 같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기본 자양분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 왜는 짜샤, 우리가 주인이잖아!
한국인 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것이 그들의 명분이었다. 추우면 너희 나라로 가라는 말도 나왔고, 너희들은 원래 난로 같은 것 없이 살아왔지 않냐는 말도 나왔고, 급기야 까불면 모조리 신고해서 붙잡혀 가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회사가 잘되던 때까지만 해도 같은 직원으로서 오순도순 지내던 동료들이었다. 네팔 말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던 유순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쌓아 왔던 우정은 모두 소용없었다.
우리는 직원, 너희는 노동자.
우리는 주인, 너희는 노비였다.
우리가 쓰는 것이 화장지라고 한다면 너희가 코 푸는 것은 휴지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화장실이라면 너희가 똥 싸는 것은 변소라는 식이었으며, 우리가 먹는 밥이 식사라면 너희가 먹는 밥은 여물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와 너희는 철저히 달라서,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기온이 내려가면 춥다는 사실조차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춥고 배고프고 천대받도록 애당초 설계된 종족들에게 난로가 뭐 필요하냐고, 그들은 갑자기 표변하여 소리 질렀다.
싸움은 멱살잡이 사태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수적으로 적은 데다가 힘에서도 열세였기 때문에 간신히 치고받고 하는 정도까진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 방으로 돌아갔고 외국인 노동자 또한 손이나 쪼일 만한 전기난로를 중심으로 모여 앉았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스물두 살짜리 알리가 훌쩍거리고 울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한국에 온 지 여섯 달 된 알리는 안동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한국인 청년과 유난히 친해서 의형제처럼 지냈다. 한국인 청년은 스무 살로서 알리를 부를 때에도 꼭꼭 알리 형, 알리 형, 이라고 불렀다. 추우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친 청년이 바로 그 자였다.
그때, 경찰을 앞세우고 그들이 다시 들이닥쳤다. 난로를 끝내 힘으로 빼앗아 가지 못한 한국인 직원들이 경찰까지 부르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사태가 절망적이라고 여긴 나이 어린 알리가 먼저 북쪽 창으로 몸을 날렸고, 카밀은 득의만면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한국인 직원의 옆구리를 들이받고 옥상 마당 끝까지 도망쳤다고 했다. 공장 뒤편의 시멘트 바닥에 추락한 알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상처받은 짐승처럼 버르적거리는 걸 카밀은 보았다.
"내가 왜 뛰어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카밀은 스스로 고개를 갸웃했다.
옥상 마당의 끝까지 달려가 난간 위에 올라섰을 때 카밀을 둘러싼 것은 경찰관이 아니라 한국인 직원들이었다고 했다.

(중략)

"죽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카밀은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에요. 나는 난간 위에 서 있고 걔는 비상계단 쪽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확 달려들어 걔를 밀어 버리면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때, 걔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디 뛰어내려 봐. 걔 눈빛,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냥 뛰어내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 아니에요. 양, 양반, 그거 생각났어요. 걔가 만날 자랑하던 양반 할아버지요. 한국의 양반은 죽인다고 해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왕 앞에서도요. 걔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걔가 얘기해 준 양, 양반 생각이 났구요, 그러니까 쪽, 쪽팔리는 기분 들었어요. 누나도 쪽팔린다, 그런 말 알지요? 쪽팔려서요, 쪽팔리지 않으려구요, 붕 하고 나른 거예요, 내가. 허리 굽히기 싫어서요……."
카밀은 히히, 하고 바보처럼 웃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차이를 대하는 방식'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와 (바)에 나타난 상황을 각각 평가하고, (바)의 '여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 3]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 [30점, 500~520자]

2. 2015학년도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는 돈을 처리하는 기능과 음료수를 선택하는 기능, 그리고 선택된 음료수를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런 기능들이 각각 모듈화되어 자판기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모듈이란 문제를 기능별로 분할한 논리적인 일부분을 말한다.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단순한 모듈로 나누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천 원짜리 신권 지폐가 발행되었는데 기존의 지폐보다 크기가 작아져서 기존의 자판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자판기가 모듈화되어 있지 않고 모든 기능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면 돈을 처리하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판기 전체를 다시 설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기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만약 자판기를 모듈화해서 돈을 처리하는 기능을 함수처럼 만들어 주면 이 부분만 개선하여 간단히 교체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은 물론 관리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된다.

(나) 로마의 귀족은 평민보다 앞서서 절제된 행동과 납세의 의무를 다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사재로 전쟁세를 내어 국가를 수호하였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솔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 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전문직 종사자나 공직자는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인(公人)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선천적 재능이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의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자신의 지위를 성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사회 구성원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의 지도층에게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위해 그들의 천부적 자질을 이용하고 사회적 여건을 활용하라고 요구한다. 사회 구성원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그들이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는 개인에게 배분된 자연적 능력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우리에게 배당된 재능의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자나 관리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기술과 지식 역시 여러 대에 걸쳐 누적되어 온 역사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당대인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공동 노작의 결과이다. 이처럼 기술과 지식은 사회로부터 개인이 빌려 온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그에 관한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의감, 즉 공개념적 사고에 기인한다.

(다) 정보 통신 기술 사회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대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보 통신 기술 범죄의 여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 사회는 빠른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만큼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모습도 같이 갖고 있다. 2009년 7월 '디도스(DDoS)'가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로 인해 정부나 은행의 주요 사이트들이 마비되었고, 미국 국방성의 전산망도 외부와 차단되었다. 디도스는 여러 대의컴퓨터를 일제히 작동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가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컴퓨터에 분산시키고, 해당 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분량의 패킷(데이터)을 동시에 전송시켜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 또는 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이다. 즉,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컴퓨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가 이러한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디도스 사례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험이 파급되는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특정한 정부 기관이나 보안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개별 컴퓨터 이용자들이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위기를 일으키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라) 아직까지 지구 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총수나 종류를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육지의 큰 생물들은 대부분 밝혀졌으나 곤충, 균류, 세균 및 현미경적 크기의 다른 생물들 수백만 종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과학자들은 지구 상의 생물 종 수가 약 1천만 종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수한 생물 종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생물 종들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활용하면 종들 사이의 유연관계를 알 수 있을까?
생물들의 다양성은 엄청나지만, 알려진 모든 종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 모든 생물들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기본 물질로 하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동일한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생물 종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계통을 세워 보면 모든 생물들은 약 35억 년 전 지구 상에 생겨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공통 조상은 지구 상의 생명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따른 생물 종과 집단 사이의 계속적인 갈래는 생명의 가지치기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생물들은 기본적 동일성과 상호 관계에 따라 생물 계통수에 배열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생물들은 세 개의 큰 무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두 개가 원핵생물이며, 다른 하나가 진핵생물이다. 원핵생물에는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남세균이나 대장균과 같은 세균, 황세균과 같이 세균과는 여러 면에서 특성이 다르며 화산 지대와 같이 주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세균이 있다. 진핵생물은 단세포 생물(아메바, 짚신벌레 등)과 세 가지 주요 다세포 생물군인 식물, 균류, 동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종류로 아우르면 우리의 생각이 보다 명확해진다. 대상이 속한 종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이 속하지 않은 다른 종류와 구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의 성격도 한결 구체화되며, 상위에 속하는 것과 하위에 속하는 것이 구분되어 체계가 드러나게 된다.

(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기보다는 언어에 반영된 주관 세계이다. 언어와 같은 상징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분절하고 범주화하여 인식하므로 우리가 객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일곱 가지이기 때문이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색, 예컨대 녹색과 청색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경계선은 아주 녹색도 아주 청색도 아니지만 그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런 모호한 색깔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어중간한 색깔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베리아의 밧사(Bassa)어에서는 무지개 색을 오직 두 가지로만 구별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해 나타나는 색은 수십, 수백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어에서도 초록색, 청색, 남색을 모두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하늘, 푸른 바다' 등의 표현이 그것을 말해 준다. 우리 어린이들이 흔히 이 세 가지 색을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색인데도 한 가지 단어를 쓰기 때문이다.

(바)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내 왔다. 그가 답례로 우리의 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 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온 것은 곧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과 같다. 대추장은 우리만 따로 편히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 보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목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 준다. 카누를 날라 주고 자식들을 길러 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 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사) 신문 광고



시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1551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혜'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아) 일반적으로 시를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 속에 특별한 말로 굉장한 무엇인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일상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지 특별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 언어는 바로 일상의 언어로부터 출발한다.
문학은 경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고 재창조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신문 기사나 보고서, 실록 등과 같은 기록물들과 다르다. 문학은 일상에 갇혀 있는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여 경험 세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면하게 한다. 문학 작품의 비판적·창조적 재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먼저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시어나 소재, 주제를 바꾸면 새로운 작품이 된다. 형식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소설을 시로 재구성하거나, 소설을 희곡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때는 재구성할 형식이 가진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한다. 형식을 재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 스크랩, 극장의 포스터, 광고 메시지, 금전 출납부, 동상의 받침대에 새긴 문안 따위를 작품 속에 옮겨 재배치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재구성된 재료들은 문학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흔히 내용만 따라 읽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에는 작가가 공들여 배치한 여러 가지 미적인 형식이 감춰져 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독자는 작품의 내용 속에 감추어진 섬세한 미적인 형식을 발견해 냄으로써 보다 높은 미적 성취를 얻게 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나누다(쪼개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나눔(쪼갬)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사)의 왼쪽은 신문 광고이고 오른쪽은 시 작품이다. 이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과 그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낸 효과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00~420자]

3. 2014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나의 형태소는 대부분 여러 개의 소리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집'은 'ㅈ, ㅣ, ㅂ'의 세 소리로 이루어진 형태소이다. '음운'은 형태소 간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소리의 단위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운이 이어지면 변동이 흔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나 말소리의 원래 소릿값이 바뀌는 것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 현상은 연속되는 두 소리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만들어 발음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음운 변동은 여러 양상을 띤다. 그 가운데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처럼, 음운과 음운이 연접할 때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음운이 서로 닮은 소리로 변하는 '음운의 동화'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서,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음운의 동화가 일어난다. 가령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설측음 'ㄹ' 앞에서 공기가 코로 나가면서 코 안을 울려 나는 비음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아래 밑줄 친 낱말들을 발음해 보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뒤 음절 첫소리의 자음과 만났을 때 양쪽이 비슷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분은 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앞으로 쉬지 않고 몇 리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 제 인생길에 희망을 던져 준 훌륭한 답례였습니다.

(나) 19세기 초 맨체스터 지방에는 검은색 후추나방이 희귀하게 발견되기도 했지만, 회색 후추나방이 흔했다. 회색은 나무의 지의류와 색깔이 비슷해서 포식자로부터 보호색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 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정은 바뀌었다. 산업화로 나무가 숯 검댕이처럼 검게 오염되었고, 검은색 후추나방이 오히려 포식자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검은색 후추나방이 점점 흔해졌고, 20세기 중반이 되어서는 후추나방 10마리 중 9마리 정도가 검은색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현대 생물학에서는 진화를 '생물 집단 속에서의 유전자풀이 세대가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전자풀이란 어떤 생물 집단이 갖는 모든 유전자를 말한다. 그러면 어떤 요인으로 유전자풀이 변하게 되는 것일까?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경우의 하나로 유전자 자체에 발생한 돌연변이를 들 수 있다.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생존에 불리하여 자연 선택 과정에서 도태되기 쉽다. 발생한 돌연변이 형질이 도태될 경우 유전자풀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생존에 불리하지 않거나 유리한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 집단에서 도태되지 않고 돌연변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집단의 유전자풀에 변화가 나타난다. 19세기 초에는 돌연변이에 의해 검은색 후추나방이 나타났다고 해도 생존에 불리했으므로 돌연변이가 유전자풀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 그러나 산업 혁명 후에는 검은색 돌연변이가 오히려 생존에 유리했으므로 후추나방 개체군 안에서 번식할 기회가 증가했다. 결국 돌연변이 유전자를 자손에게 계속 전할 수 있게 되어 유전자풀에는 검은색 유전자가 증가했다. 이러한 유전자풀의 변화가 여러 세대 동안 축적되면 기존의 집단과는 다른 새로운 종으로도 분화할 수 있게 된다.

(다) '향기로운 봄'(1982)은 프랑스 기욤 소총서의 하나로 로니가 한국 소설 '춘향전'을 번역한 것이다. 기욤 소총서는 소책자이긴 하나 가죽으로 장정된 매우 고급책이며, 호화 용지에 이 총서를 위한 특별 활자를 사용했다. 속표지에서부터 삽화가 있고, 장마다 군데군데 삽화가 끼어 있는데, 그 모두가 서양인들의 의상을 입은 신사숙녀로 되어 있다. 무도회에 춤추러 다니는 19세기 말의 프랑스의 신사숙녀를 그대로 그려 놓은 것인 만큼 우리 원본 춘향전(경판본)과는 매우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 곧 프랑스식으로 분식된 작품이다. 이러한 개변은 다만 외면상의 것에 지나지 않지만, 실상 외면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내면 속으로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그중 크게 두드러진 것은 다음 네 가지 점이다. 첫째, 춘향이 기생이 아니라 다만 '서민의 딸'로 등장한다. 둘째, 춘향의 모인 기생 월매가 등장하지 않는다. 춘향이 기생이란 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퇴기 월매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셋째, 향단이 완전히 빠져 있고 그 대신 매파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로니가 설정한 매파 개념은 향단과 월매의 대역으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도령이 춘향에 접근하는 방식이 '구운몽'중의 정경패 부분 및 '숙영낭자전'의 만남 모티프와 흡사하다. 이 도령이 춘향을 만나기 위해 여장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로니는 '춘향전'을 그들의 취향에 맞게 개변하여 번역하였다. 로니는 그가 서양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출판인들도 독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온 이 도령이 철창을 가운데 두고 손을 벌려 키스를 한다는 장면도 그러한 것의 한 가지 방식이다.
역자 로니가 '춘향전'을 번역하면서 가진 근본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문에서 그가 아래의 한시를 두고 말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金樽美酒千人血 (금잔의 맛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玉盤佳肴萬姓膏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燭淚落時民淚落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
歌聲高處怨聲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더라)

"이 짧은 시는 코리아의 정신과 감정에 대하여 더 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쳐 주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즉, 이 시는 이 느린 황색의 문명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공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는 우리와 홍인종과의 만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과 우리의 만남이 전혀 파괴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는지도 모른다."
만일 '춘향전'이 한국의 고전이라면 그것은 곧 세계 여러 인종들의 가슴속의 적대감을 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로니의 지적은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한다. 셰익스피어나 보들레르가 영국이나 프랑스의 고전이라면 그것들이 동시에 세계 여러 인종들 가슴속의 적대감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런 것을 고전이라고 할까 보냐. 로니는 '춘향전'을 그러한 고전의 하나로 보고 번역한 것이라 생각된다.

(라) "내선일체는 반도 통치의 최고 지도 목표이다. 내선일체는 서로 손을 잡는다던가, 형태가 융합한다던가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것이 아니다. 손을 잡은 것도 떨어지며 또한 별개가 된다. 물과 기름도 무리하게 혼합하면 융합된 형태로 되지만 그것으로도 안 된다. 형태도, 마음도, 피도, 육체도 모두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선일체란 재래의 조선적인 것을 버리고 일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조선 2천 3백만이 모두 호적을 들추어보기 전에는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최후의 이상이다."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관공서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아울러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아래와 같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강요하였다.

1. 창씨를 안 한 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2. 창씨를 안 한 어린이들은 일본인 교사들이 구타·질책하는 등 그를 증오함으로써 어린이로 하여금 호소로써 부모에게 창씨를 하게 한다.
3. 창씨를 안 한 자는 공사 간 그들의 기관에 일체 채용 안 한다. 또 현직자도 점차 해임 조치한다.
4. 창씨를 안 한 자는 행정 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사무를 취급해 주지 않는다.

(마)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 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그늘 깊었다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곁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한잠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레이
집에 다 와 간데이

(바) 7~8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각국의 정세가 안정을 이루며 교역도 크게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는 국가나 정권을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가 전파되고 상호 교류가 확대되었고 출신 지역을 떠나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많았다. 당의 과거에 합격한 최치원이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당과 일본 사이를 중개하여 해상 무역을 독점한 장보고, 바닷길과 비단길을 통해 인도를 여행하고 당에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혜초는 신라 출신이었다. 신라인의 도움을 받아 당을 순례하고 나서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남긴 승려 엔닌과 당의 과거에 합격하여 안남도호부의 도호를 역임한 아베노 나카마로는 일본 출신이었다. 당 출신으로 일본에 문물을 전한 감진처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승려도 있었다.
당은 유목 민족과 한족이 융합된 남북조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귀족적이고 화려하면서도 개방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수도 장안은 사막을 연결하는 비단길과 인도양을 지나 광저우에 이르는 바닷길이 합류하는 동서 무역과 문화의 집결지이기도 하였다. 장안에는 학문적·종교적·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외국인 사신, 유학생, 유학승, 상인, 무인, 예술인 등이 체류하고 있었다. 크리스트교(경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와 문화가 교류되었다. 신라, 발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당의 문인, 서역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고유의 종교와 생활양식을 가지고 집단으로 거주하였기 때문에 당은 마치 세계 문화의 경연장 같았다. 세계 각국의 종교와 문화가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서로 교류하고 융화되었으며, 다시 인적 교류를 따라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서로 닮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사)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나서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충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영토 분쟁, 민족·인종 간의 갈등, 종교 분쟁, 자원 전쟁, 돈과 권력을 둘러싼 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분쟁 지역에서는 무수한 인명 피해와 굶주림, 가난, 질병, 자연환경과 문화 유적의 파괴와 같은 재앙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무엇보다 인간 정신을 황폐화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지닌다.
국제 사회에서의 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종교적·문화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세계를 9개의 문명권으로 나누고, 문명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종교를 들었다. 기독교, 정교, 이슬람교, 유교, 불교, 힌두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본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는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은 사회적 계급과 빈부의 차이로 구분되는 집단 사이에 나타나지 않고 가장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서로 뭉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서 질서 부여 기능을 할 수 있는 핵심 국가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동일한 문명 혹은 공통의 문화를 가진 민족과 국가들은 핵심국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반면, 서로 다른 문명권에 속한 나라와는 분열하고 반목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대신해 세계 평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걸프전(1991년) 이후 9·11 테러(2001년), 이라크 전쟁(2002년), 스페인 열차 테러(2004년), 런던 테러(2005년), 마호메트 만평 파문 등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서구와 이슬람 사이의 대표적인 문명 충돌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로 보스니아 내전(1992~1995년)을 들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은 가톨릭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동맹을 맺었으며, 정교 국가인 그리스는 세르비아를 도왔고, 이슬람 국가들은 보스니아의 모슬렘을 지지했다.

(아) 동양의 유기체적 세계관은 내적·유기적 연관을 바탕으로 대상 전체를 한 덩어리로 파악하려는 상관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멈춤이 아닌 움직임의 실상을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행(五行)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오행 사상은 우주 만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가 끊임없이 변하는 관계임을 밝힌 사상이다. 오행의 다섯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관계를 형성한다. 오행의 다섯 요소들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서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 성질을 띠게 된다. 예를 들면, 나무(木)는 불(火)을, 불(火)은 흙(土)을, 흙(土)은 쇠(金)를, 쇠(金)는 물(水)을, 물(水)은 나무(木)를 낳는다고 해서 이를 각각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라 하고, 이런 관계를 상생(相生)의 관계로 규정한다. 반면 나무는 흙을 뚫고, 흙은 물을 막으며,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이며, 쇠는 나무를 자른다고 해서 이를 각각 목극토(木剋土), 토극수(土剋水), 수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이라 하고, 이런 관계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극(相剋)의 관계로 규정한다. 이처럼 오행 사상은 우주 만물이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통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며, 서로 간의 균형과 협동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 1]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차이점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문제 2] 제시문 (마)에서 묘사된 두 여인의 '언어 사용'을 토대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융합 방식을 비판하고,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융합 방식을 서술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 3] 제시문 (사)에 나타난 시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문 (아)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4. 2015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사가 그리워하면서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는 일, 곧 유한성의 경험이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예기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유한성의 존재이면서 유한성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기억과 상상을 용접한다.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동물계 유일의 시간 형식을 인간은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천사 앞에 내놓을 위대한 자랑거리는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순간성의 조건과 유한성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남미 작가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가 나이 팔십을 넘기면서 쓴 시에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으로 시작되는 시다. 그는 자신의 한 생이 '순간'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다음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새로운 생을 어떻게 달리 살아 볼 것인가.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 / 완벽해지려고 버둥거리지 않으리."를 통해 생의 순간적 단회성을 그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과 접합하고 이미 한 생의 끝자락에 선 자의 기억은 지나간 생에 대한 성찰(실수하지 않으려고 왜 그토록 버둥거렸던가) 위에서 다른 삶의 방식(더 많이 실수하리)을 제시한다.
재탄생의 상상력은, 물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혹은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과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기억과 상상의 이런 접합은 인간이 처한 유한한 조건으로부터 나오고,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게다가, 그 연속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완벽 추구의 불가능성)한다. 천사에게라면 이런 성찰과 상상은 필요하지 않다.

(나) 왠지 나는 선생님의 그런 세심한 안배에도 끼지 못하고 늘 가장자리에 처져 있었다. 가장자리에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보였고 선생님이 아무리 공평하려고 노력해도 선생님 손이나 치맛자락을 잡을 수 있는 아이는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런 애들은 대개 예쁘고 똑똑하고 잘 까불었다. 시골이나 현저동에서 사귄 동무들하고는 다른 진짜 서울 아이들이었다.
나는 중심부의 그런 애들을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릴 정도로 부러워하고 시기도 했지만 닮을 자신은 없었다. 사람에겐 누구나 죽었다 살아나도 흉내 못 낼 것 같은 게 있는 법인데 나에겐 그게 집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통학 길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문안에 있는 학교에 밀어 넣을 생각만 했지 같은 또래를 사귈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불행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동무보다는 시골의 뒷동산을 더 많이 그리워했다. 오래 가뭄이 든 것처럼 생기 없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뿐 맨땅을 드러낸 산이 너무나 이상했다.
서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쫙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달개비 이파리의 도톰하고 반질반질한 잎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노방보다도 얇고 섬세한 잎맥만 남았다. 그 잎맥을 입술에서 떨게 하면 소리가 나는데 나는 겨우 소리만 냈지만, 구슬픈 곡조를 붙일 줄 아는 애도 있었다.
나는 숨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헐벗고 정기 없는 산을 혼자서 매일 넘는 메마른 고독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추억을 만들고, 서울 아이들을 경멸할 구실을 찾았다. 사직 공원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윽고 온 산에 비릿한 젖내를 풍기며 아카시아꽃이 피어났다. 아카시아꽃이 만개하자 사내아이들이 산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질하듯 모질게 탐스러운 가장귀를 꺾어서 꽃을 따 먹었다.
아카시아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서였다. 잘 먹는 아이는 송이째 들고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 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어갔다. 나도 누가 볼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 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척지근했다. 그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로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 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 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다) 후천성 면역에서는 림프구의 수용체를 통해 병원균을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다. 후천성 면역에 관계되는 림프구로는 B세포와 T세포가 있다. 림프구는 다른 혈구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나와 심장 윗부분의 흉강에 있는 흉선으로 이동하는 림프구는 T세포로 발달한다. 반면 골수에 남아서 계속 성숙하는 림프구는 B세포가 된다. T세포와 B세포는 식균 작용이나 항체 생성과 같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쥐에 항원 X를 주입한 후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고, 4주 뒤 그 쥐에 다시 항원 X를 주입하여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항원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1차 면역 반응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항원이 들어 왔을 때 기억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차 면역 반응 동안 활성화된 B세포의 일부는 기억 B세포로 분화되어 항원이 모두 제거된 뒤에도 체내에 오랫동안 남는다.
동일한 항원에 다시 감염되었을 때 기억 보조 T세포의 작용으로 기억 B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기억 B세포는 신속하게 형질 세포로 분화되어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항원이 2차, 3차 침입하면 처음보다 항체의 생성 속도가 훨씬 빠르며, 항체 생성량 또한 훨씬 많다. 대부분의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방어가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번 걸린 병에 두 번 걸리지 않는 것도 면역계가 기억하여 신속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역 기억 능력 때문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라)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

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마) 매체 환경이 변화되면서 매체 언어 독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글을 찾아 읽으면서 자신이 모르는 정보를 동시에 검색하며 읽을 수 있고, 또 독서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가상의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토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술 발달에 따른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과 유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독서 환경에 따라 매체 언어 독서를 할 때는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 및 유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체 언어를 읽기 위해서는 매체를 다루는 최소한의 기술, 즉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특히 글과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 언어의 독서를 융합적 읽기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영상 매체를 다루는 것은 융합 매체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호학적 지식과 그러한 다양한 매체의 처리 방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지적 기능이 요구된다. 오늘날 다매체 사회에서의 독서란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매체 생산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한편, 매체의 발달에 따라 지식의 구성 방식이나 지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지식을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책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자 했으며, 한 번 기록된 지식과 정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식이란 것도 각 사회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지식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과학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식의 양과 종류가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축적된 모든 지식을 읽거나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컴퓨터 및 인터넷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음악적 불모지까지의 통로는 어떻게 만드는가. 악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나, 어려운 것은 실천이다.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음악적 불모지라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음악적 경험을 얻을 수 없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난다는 말은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통로가 없다는 뜻이다. 이 통로의 개척이 음악적 경험을 위하여 첫째로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은, 통로의 개척은 반복적 음악 청취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동일한 곡을 백 번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천 번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천 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천 번이라도 들어야 한다. 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이라는 말이 음악적 경험에서 핵심적인 어휘가 된다. 기억되지 않는 대상에는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악은 시간을 타고 흐른다고 한다. 시간 속에서 음들이 여행을 한다고나 할까. 여행에는 출발점이 있고, 거쳐야 할 지점이 있고, 여행의 목적지가 있다. 또한 여행 스케줄이 있고 여행의 통로가 있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을 강조하는 것은 이 통로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 통로를 기억하였다고 해서 여행의 의미를 자동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나지 않게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통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적 청취에 의해서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통로가 생기고 나면, 음악적 불모지의 개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사) 숙종 연간에 활약한 저명한 문사 김득신(金得臣) 은 글을 한번 읽었다 하면 최소한 천 번을 읽었고, 제법 좋아하는 책이면 만 번 이상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사기(史記)" '백이전(伯夷傳)'은 너무 좋아한 나머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하니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독수(讀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백이전'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였겠지 치부하고 말았었다. 3천 번을 읽는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1억이라니! 하지만 김득신의 "백곡집(栢谷集)"에서 고문(古文) 36편을 읽고 각기 몇 번을 읽었는지를 밝혀 놓은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를 확인하고서 전에 들은 이야기가 가담항설(街談巷說)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몇 번을 읽었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경서와 문장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암송이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은 눈으로 훑어 읽는 안독(眼讀)이 아니라 율조를 실어 소리 내어 읽는 성독(聲讀)을 하였다. 김득신의 독서는 당연히 성독이었다. 그래서 책을 읽은 수효를 계산하는 서산(書算)을 이용하여 독수(讀數)를 헤아렸던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양독서법(歐陽讀書法)에서 "글자의 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효경(孝經)'은 1,903자, '논어(論語)'는 11,750자, '맹자(孟子)'는 30,685자, '주역(周易)'은 24,107자, '서전(書傳)'은 25,700자, '시전(詩傳)'은 39,234자, '예기(禮記)'는 99,010자, '주례(周禮)'는 45,806자, '춘추좌전(春秋左傳)'은 196,845자였다. 날마다 3백 자씩 외운다면 4년 반이면 다 마칠 수가 있다. 조금 우둔한 사람이라서 반으로 줄여 외운다 해도 9년이면 다 외울 수가 있다."라고 하여 암송해야 할 책의 자수(字數)까지 일일이 헤아려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수를 계산하였다. 읽어야 할 책이라면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것을 중시하였던 시대의 공부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사례를 찾아보면, 송(宋)의 홍매(洪邁)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세 번이나 필사(筆寫)하였는데 금나라 종실(宗室) 한 사람은 그 책을 30여 차례나 읽었다고 한다. 조선의 유희춘(柳希春)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암송하였고, 송익필(宋翼弼)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암송하였는데, 조헌(趙憲)은 그 두 저서를 모두 암송하였다고 한다. "자치통감"은 294권, "주자대전"은 124권, "주자어류"는 140권이니 인류의 저서 가운데 방대함으로 손꼽히는 것들이다. 이런 분들은 비범하기 짝이 없는 분들인데도 저다지 근면하게 공부하였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부법을 기록으로 남긴 학자가 적지 않지만, 나의 기억으로는, 항해(沆瀣) 홍길주(洪吉周)가 "숙수념(孰遂念)" '사부송유(四部誦惟)'편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옛사람의 독서법을 소상히 엿볼 수가 있어서 인상에 깊이 남아 있다. 그는 암송해야 할 글의 목록과 읽어야 할 책의 순서, 과목, 시간, 자세를 목록으로 만들어 실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들어 보면, "연소한 사람은 경서 전체를 외워야 하고 뽑아 외워서는 안 된다."이다.

(아) 도편 추방제란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을 민회에서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내게 한 다음, 6,000표 이상 받은 자를 10년 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편 추방제는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도편 추방제는 일종의 국민 소환 제도로서 일반 시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들에 의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추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중우 정치를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한 예로, 아테네를 제일의 해운국으로 만들고 직접 함대를 지휘하여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하기도 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추방제에 의해 추방된 대표적인 희생자였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기억의 역할'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02_경영경제계열

1. 2014학년도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지닌 사회에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갓난아이 때부터 여자면 분홍색, 남자면 파란색을 주로 입히는 것과 같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부모의 무수한 행동이 실제로 성별에 따라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아기에게 알게 한다. 어린이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성별에 무관하게 다양한 새로운 행동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 칭찬, 상 또는 은근한 미소로 격려를 받는 반면, 부적절한 행동은 꾸중, 벌, 무관심 등으로 제지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풍성한 잠재력의 한 부분을 일찍이 잠재워 버리게 된다.
한편 어린이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성에 따른 역할의 구분을 배우는데, 이는 주로 모델의 제공 및 선택과 관련된다. 어린이는 자기를 돌보아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인 많은 행동을 배우게 되는데, 여자 어린이는 주로 어머니를, 남자 어린이는 주로 아버지를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고정화된 행동을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 부모 이외에도 친척, 이웃, 친구, 교사 등 주위의 모델은 매우 많다. 그 외에 그림책, 동화, 교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각종 광고를 통해서도 사회의 고정 관념을 암암리에 주입받게 된다.

(나) 뜨끈하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홍합탕, 다들 한번쯤은 먹어 보셨겠죠? 이 시원한 맛을 내는 홍합이 바다에서는 폭풍우에도 끄떡없을 정도의 강한 흡착력을 보여 준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또 딱정벌레의 단단한 껍데기는 갑옷을 능가하고, 파리는 선회, 회전, 후진, 팔자 비행 등 다양한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생명체들이 보여 주는 놀라운 능력을 모방해 인간 생활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내려는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생체 모방 공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체 모방 공학은 '생체'와 '모방'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살아 있는 생물의 독특한 행동이나 구조,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물질 등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전자 및 기계 분야의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체 모방의 모든 것은 자연에 존재합니다. 자연이 과학의 훌륭한 스승인 셈이지요.
앞서 말한 홍합의 힘은 지금까지 생물체에서 알려진 가장 센 흡착력보다 무려 네 배나 더 강합니다. 홍합이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열 개의 아미노산이 반복돼 있는 단백질 때문이지요. 국내 연구진은 홍합의 흡착 단백질을 활용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접착제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물에 젖을수록 더 강력한 접착력을 갖게 되는 홍합 접착제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인간에게도 안전하기 때문에 수술 후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실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의학계에 혁명과 같은 변화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연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널리 성공을 거둔 예로는 '벨크로' 테이프를 들 수 있습니다. 일명 '찍찍이'라고도 부르는 벨크로는 엉겅퀴의 갈고리를 흉내 낸 것인데요. 한 면에는 고리가, 다른 한 면에는 갈고리가 있어 서로 붙이면 고리에 갈고리가 걸려서 강한 접착력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날 벨크로는 옷소매에서부터 무중력 상태인 우주선 안의 도구를 고정시키는 데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어 비늘을 응용한 최첨단 수영복, 연잎의 효과를 응용하여 물의 침투와 오염을 방지해 주는 스프레이, 벌집을 응용한 건축 내부 자재 등 자연을 모방한 기술은 많습니다. 자연을 모방하여 과학이 발전할 수도 있고, 과학이 발전하여 신기술로 자연을 더 보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생체 모방 공학은 자연을 재창조하는 과정이자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체 모방 공학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 게리는 원어민 영어 학원 강사이다. 가끔 명품 모조 가방을 납품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한국인이다. 외모가 외국인을 닮아서 그는 원어민 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 그가 사는 신도시를 걷다 보면 그를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는 외모로 보면 완벽한 외국인이고 자신도 외국인으로 행세한다.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 흉내를 낸 것은 아니다. 그는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혼혈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으며 심한 따돌림을 받기도 했다. 이후 영문과에 진학한 게리는 시사 영어 잡지에서 '게리 워커 존슨'의 삶을 읽게 된다. 게리 워커 존슨은 미군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다. 어린 시절 한국에서 멸시받던 그는 아버지의 조국인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온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는 영어를 잘하는, 일명 '뉴요커'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게리 워커 존슨을 모방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도 게리 워커 존슨으로 바꾸고,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다. 온전하게 혼혈인이 되는 것이다.
게리는 대학 일 학년을 마치기 전 늦가을에 징집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지방 병무청을 찾아갔다. 창구 직원은 서류 두 장을 단검처럼 차례로 뽑아서 내밀었다. 게리는 서류를 받아 들고 말했다. 군인이라도 된 것처럼 괜히 긴장되었다.

(중략)

"저…… 상담을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걸 봐, 거기 나온 대로 작성하면 바로 처리되니까."

창구 직원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게리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한 장은 5급 제2 국민역 대상자, 즉 병역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안내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청서였다. 이미 게리는 안내장 내용을 병무청 사이트를 통해 읽고 온 길이었다.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게리는 신청서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했다. 신상 관계란의 성장 과정에 혼혈인, 고아, 귀화인, 북한 탈주 주민 항목이 있었다. 게리는 혼혈인에 체크했다.

(중략)

"워낙 없던 일이라…… 호적 등본이나 주민 등록 등본 사본 가져왔나?"
게리는 가죽점퍼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컴퓨터에 눈을 박고 한참 서류를 처리하던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보았다.
"이상하네. 올해 우리 관할 신검 대상자 중에 혼혈 사유로 분류된 자원은 없는데……. 실수로 누락된 건가?"
직원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게리가 건넨 주민 등록표를 사전처럼 들여다보았다.
"부 김달호, 모 오판심. 친부모 아닌가?"
"맞는데요. 제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그럼 양친 중에 어느 한 분이 혼혈인가?"
"아닌데요."
"그럼 뭐야?"
"제가 아까부터 뭘 상의를 드린다고……."

(중략)

"사실 저는 명백히 한국인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저씨도 보셔서 알겠지만 생긴 건 명백히 혼혈인이라 이거죠."
창구 직원은 입을 벌린 채 의자 깊숙이 몸을 젖혔다. 그는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기가 차다는 듯 입을 비틀더니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이 친구 보게. 어떻게 자네가 혼혈인가? 멀쩡한 양친을 두고."
창구 직원은 지금까지 부산을 떤 일이 억울한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원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목청을 높였다.
"내가 이 창구에서만도 오 년인데 혼혈로 면제를 받겠다고 온 사람은 자네가 첨이야. 전국으로 따져도 기껏해야 일 년에 열댓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경우라고. 이건 엄연히 병역 회피 행위야. 이곳에서 당장 헌병에 넘길 수도 있어. 이 친구야. 젊은 사람이 병역 의무를 신성하게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썩어 빠진 궁리나 해서 쓰겠어?"

(라) 16세기 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항로를 개척하는 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산업 기술 및 조직 형태 개발에 투자했다. 발군의 기량을 보인 국가는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남유럽의 항해술과 조선술을 모방해서 원양 항해 능력을 터득했다. 육상에서는 풍차 기술을 발전시켜 효율적인 동력 자원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조정하는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했다. 동인도 회사는 4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으로, 아시아 무역 시장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활약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네덜란드의 성공에 자극받은 영국은 뒤늦게 네덜란드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의 조선업계가 네덜란드를 모방하는 데 열을 올렸는데, 그 결과 조선업계는 18세기 초에 이르러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영국은 한술 더 떠서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계기가 바로 증기 기관의 발명이다. 영국은 석탄을 이용하여 훨씬 더 효과적인 산업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석탄으로 움직이는 공장에서 생산된 화물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선박에도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바람과 파도의 횡포로부터 해방되었다. 증기 기관을 배에 설치하여 바람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 어디든 원하는 대로 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 땅속에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동굴 안쪽의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손과 발, 목이 묶여 있다. 그들 뒤에는 동굴 안을 비추어 주는 불빛이 있다. 그들과 불빛 사이에 담장이 세워져 있고, 그 담장 위로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동물이 마치 자동인형처럼 지나가고 있다. 그 인형들은 실제 사람이나 동물처럼 소리를 내기도 한다.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묶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보아 온 것이 실은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은 소리도 그림자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다가 그들이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 고개를 돌리고 인형을 본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아 온 것이 진짜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실물 인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을 동굴 밖으로 데려가 지금까지 그들이 동굴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면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동굴 밖에는 실제 사람들과 동물 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그것들을 본떠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동굴 밖의 세계에 점차 익숙해진다면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바) 여기 한 경험주의 철학자가 있었다고 하자. 그는 내 눈으로 본 것, 내 손으로 만져 본 것만 믿을 수 있고, 내가 직접 듣고 접해 보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굳게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를 찾아 산길을 지나게 되었다. 가다가 길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구렁이를 한 마리 발견했다. 깜짝 놀란 그는 소나무들 뒤로 몸을 숨겼다. 하마터면 구렁이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고 큰 숨을 내쉬었다. 얼마 후에 달리 바라보았더니 그 구렁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다시 몸을 숨긴 철학자는 혹시 저놈의 구렁이가 죽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돌을 던져 보았더니 여전히 꼼짝 않는 것이다. 철학자는 안심하고 나와 구렁이가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구렁이가 아니고 썩은 밧줄이었던 것이다. 철학자는 고뇌에 빠졌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본 것과 내 손으로 만져 본 것이라고 믿어 왔는데, 내 눈이 나를 속이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머리를 숙인 철학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밤 깊도록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던 철학자는 한 가지 사실만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그것은 '의심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원초적인 사건이었다.

(사)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조건이 필수적이다.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은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가능해져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경제 성장은 우리의 절대적 빈곤을 줄여 주었으며, 평균 수명과 여가 기회를 늘리고 상급 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등 물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반적으로 1인당 실질 GDP가 높을수록 평균 수명이 길고 문자 해독률이 높게 나타나며, 영아 사망률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수준이 언제나 삶의 질 수준과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은 교육, 환경, 문화, 안전, 만족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경제 성장이 이들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 과정에 수돗물이 오염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수돗물 대신 시장에서 생수를 사서 먹을 것이다. 이때 생수의 판매 가치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였더라도 그 성장의 결과가 일부 계층에게 편중된다면 빈부 격차의 확대와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이 항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 '모방의 동기와 결과'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동굴 비유를 이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주인공 게리가 처한 상황과 행위를 해석하고, 제시문 (바)의 논지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 3] 다음은 두 요인 간에 양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양(+)의 연관성'이란 한 요인의 값이 커질 때 다른 요인의 값도 커지며 한 요인의 값이 작아질 때 다른 요인의 값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단계 1 : n개의 개체에 대한 두 요인의 값을 $(X_1, Y_1), (X_2, Y_2), \cdots, (X_n, Y_n)$이라 하자. 이때 $X_1, X_2, \cdots, X_n$ 중에서 i번째 값인 X_i의 순위를 R_i라 한다. 여기서 순위는 $X_1, X_2, \cdots, X_n$ 중에서 가장 큰 값에 1, 그 다음 큰 값에 2, 이렇게 차례로 하여 가장 작은 값에 n을 부여한다.

단계 2 : [단계 1]과 같은 방법으로 $Y_1, Y_2, \cdots, Y_n$ 중에서 i번째 값인 Y_i의 순위를 S_i라 한다.

단계 3 : $i < j$인 모든 (R_i, S_i)와 (R_j, S_j) 쌍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한다.

단, $i = 1, 2, \cdots, n$, $j = 1, 2, \cdots, n$이다.

$$C = (R_i - R_j)(S_i - S_j) > 0 \text{인 쌍의 개수}$$
$$D = (R_i - R_j)(S_i - S_j) < 0 \text{인 쌍의 개수}$$

즉, C는 두 요인이 양(+)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도이고, D는 두 요인이 음(−)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도가 된다.

단계 4 : $K = C - D$를 계산하여, K값이 큰 경우 두 요인은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때 'K값이 큰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실제 두 요인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 주어진 값 p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단계 4]를 위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K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시오. 이때 n개의 개체에 대해 고려할 경우의 수는 $n!$임을 참고하시오.

다음 표는 UN이 2009년에 발표한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의 일부이다.

국가	1인당 실질 GDP($)	초 · 중등학교 진학률(%)
독일	34,401	88.1
대한민국	24,801	98.5
코스타리카	10,842	73.0

두 요인 '1인당 실질 GDP'와 '초·중등학교 진학률'의 자료를 위의 절차에 따라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시문 (사)의 논지를 찬성 또는 반대하시오. 단, '삶의 질'은 '초·중등학교 진학률'만 고려하고, [단계 4]에서 $p = 0.2$를 가정한다. [30점]

2. 2015학년도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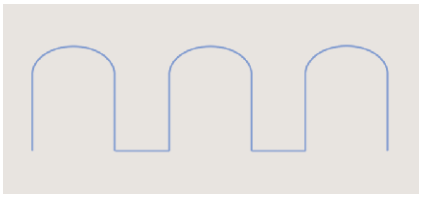
(가) 조선 후기 문인 화가인 공재 윤두서의 〈윤두서상〉은 뛰어난 관찰력과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便是他人]."라는 정통 초상화론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안면의 윤곽선과 수염의 필선은 정교하면서도 힘이 넘친다. 그런가 하면 정면을 응시하는 눈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고, 그 뒤에는 선비다운 기개가 충만해 있다.
자화상의 화면 구도는 이채롭다. 보통의 초상화가 전신이나 상반신을 그리는 데 반해, 이 작품은 얼굴만 강조하여 그린 것이다. 배경은 그냥 여백인 채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화면에 빈 곳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자람을 뜻하지는 않는다. 화면의 빈 곳은 빈 곳이 아니라 무한한 생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실적으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에게 귀가 없다는 사실은 놀랍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바람에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고,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라져 나갔다. 대체 이런 그림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 그림은 조선 시대 유교 윤리나 보편적 미감에서 벗어나 있다. 사대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일부를 떼어 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두서는 목과 상체와 귀, 그리고 탕건을 온전히 그리지 않고 얼굴만을 선택해 자신의 초상화를 완성한 미학적 실험을 감행했다. 말하자면 윤두서는 기성의 회화 전통과 차별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자화상 가운데 윤두서의 자화상이 표현 형식이나 기법에서 특이한 양식을 보이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나) 사람은 숙명적으로 부분적인 지식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여 이를 신경 계통에 전달하는데, 이때 이들 감각을 모두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한 후 추상화하여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계의 취사선택은 자동적으로 완전하게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경계 하나하나의 추상작용입니다.
듣는 이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소리는 음파가 되어 귀에까지 옵니다. 눈으로 듣고자 하여 매우 열심히 말하는 이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으면, 말하는 이에게서 오는 자극은 광파가 되어 눈까지 옵니다. 그러나 광파도 음파도 거기서 멈추고, 그 후에는 신경계를 통하여 대뇌에 전달되어 비로소 우리들은 본 것, 본 일, 들은 것, 들은 일을 의식하는 것, 곧 아는 것입니다. 신경계에서 추상하는 일이 끝난 후에 대뇌에서 비로소 의식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추상화 작업을 통해서 대뇌의 정보처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음파는 결코 귀에서 그대로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귀 그 자리에서 멈추고는 자극이 되어 신경계에 전달되어 대뇌로 갑니다만, 그 사이에 추상 작용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추상 작용이 행해진 다음에 소리로서 자기가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하였을 때는 이미 자신의 여과기(濾過器, filter)에 걸러지고 만 것이어서, 그 물체의 소리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여과기를 통하여 의식된 소리이기 때문에 벌써 자기류(自己流)가 되고 만 것이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듣는 이는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폰드레가 박사님이 강의하는 교실에서 환등기가 교수님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뒤의 하얀 벽 쪽을 향해 의자를 돌려놓고 교수님이 환등기를 비추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웃으시며, "환등기가 책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환등기라는 물체의 자극을 광파에 의하여 받게 되면 곧 바로 뒤의 하얀 벽 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look'이 아니고 'look for'인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들려오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 총통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젊은 친구, 문명은 고귀함이나 비장함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세. 그러한 것은 정치적 비능률을 나타내는 징후일 뿐이야. 우리처럼 적절히 조직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고귀하고 영웅적이 될 기회란 있을 수 없는 걸세. 그러한 계기가 발생하기 전에 여건이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지 모르는 경우이거나 저항해야 할 유혹이 있거나 쟁취하거나 방어할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틀림없이 고귀함과 비장함도 어떤 의미를 가질 거야. 그렇지만 오늘날엔 전쟁이 없단 말일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일세.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조건반사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일세. 또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대체로 유쾌한 것이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충동은 모두 자유롭게 만족되기 때문에 저항할 유혹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만일 불행한 우연으로 인해 어떤 불쾌한 사태가 일어나면 까짓것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도피시켜 줄 소마가 항상 준비되어 있네. 분노를 진정시키고 적과 화해시키고, 인내하고 수난을 참도록 하는 소마가 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대단히 어려운 노력을 거치고 오랜 수양을 쌓아야 겨우 도달되는 미덕이었지. 그러나 이제 반 그램짜리 소마 두세 알만 삼키면 그러한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일세. 이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네. 그리고 우리는 또 완전한 건강을 위해 V.P.S 요법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어."
"V.P.S라고요?"
"격정 대용 약(Violent Passion Surrogate)이란 뜻이야. 매월 1회씩 정규적으로 복용하지. 신체의 모든 조직에 아드레날린을 충만시키는 요법일세. 완전한 생리학적 대용물로서 강장제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전혀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야만인은 반항적으로 말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긴 침묵이 흘렀다.
야만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무스타파 몬드는 어깨를 추슬렀다.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가 말했다.

(라) 스키마(schema)란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 또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의 총체를 뜻한다. 예컨대, '삼각형'이란 스키마는 세상의 수많은 세모꼴의 형태가 종합된 하나의 규칙이며, '개'라는 스키마는 여러 종의 네 발 달린 개라는 동물을 상상할 때마다 따라야 할 규칙이라는 것이다.
스키마 이론은 형태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형태 심리학은 당시 행동주의 심리학이 주장하는 '인간 심리의 전체적인 특성은 부분들의 특성의 총합'이라는 명제에 반발하여, 사물이나 정신의 모양 또는 형태 등 통일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형태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구조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어도 내적으로 일관된 구조를 지향하려는 역동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역동적 성향이 기억의 재생 과정에서 보편화와 특수화의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형태 심리학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중 해석이 가능한 그림을 보여 주고 얼마 후 이 그림을 회상하도록 하였더니, 대부분은 그림에 대해 자신이 처음에 내렸던 판단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기억을 변형시켰다고 하였다. 즉 그림을 '다리[橋]'로 지각한 사람은 이 그림을 회상할 때 보다 '더 다리답게' 재생하고, '성곽'으로 지각한 사람은 보다 '더 성곽답게' 재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의 재생 과정에서 스키마가 작용하여, 원래의 시각적 이미지는 약화되고 기억의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스키마 이론은 이후 사회 심리학자 버틀렛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는 인간의 기억과 이에 미치는 과거 경험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인들에겐 생소한 북미 인디언 설화, 〈유령들의 전쟁〉이라는 글을 영국인 피험자들에게 읽힌 뒤 시차를 달리하여 여러 번 회상시켰다. 그 결과, 원래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단순화되고 전형화된 형태로 회상되었고, 선택된 세부 사항들은 회상자의 흥미에 따라 변형되거나 아예 빠지기도 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회상한 이야기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더욱 정교화되고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게 첨가되기도 했다.

(마) 인간은 경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이다. 소비자는 소비할 상품을 까다롭게 선택하며, 재산을 늘리려고 자신의 돈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기업은 도태되며, 끊임없이 더 좋은 상품이 개발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는 승진 기회나 더 많은 보수를 얻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경제 주체는 완전한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며, 자신의 효용이나 이윤을 최적화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해관계, 즉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즉, 합리적 선택이란 가능한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한다.

(바)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이 인터넷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합리적으로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의 횡포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 전문 사이트들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와 사이트를 고발하고 구매를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또, 해당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토대로 경고를 의미하는 옐로 카드와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 카드를 발부해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사이트 선정의 길라잡이 역할도 한다. 예컨대 '사이버 소비자 센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제반 소비자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대안을 모색하며,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과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정보넷'은 최적의 상품 선택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가 상담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요즘엔 환경 보호나 저개발국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윤리적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두 상품 중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윤리적 소비자는 상품 선택 기준으로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상품이 제조되는 과정을 고려하고, 건강·환경·사회를 생각한다. 윤리적 소비자는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비윤리적 방법이 사용된다면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도 구매를 거부하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녹색 기업,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는 기업,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선택한다. 윤리적 소비자는 이전 소비자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돈을 사용한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상품을 소유하거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투표로 인식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다), (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추론해 기술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A기업은 1년 후의 경제 상황이 당해 연도 및 1년 전의 경제 상황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1년 후의 경제 상황이 호황일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년 전 경제 상황	당해 연도 경제 상황	1년 후 경제 상황이 호황일 확률
불황	불황	0.3
호황	불황	0.5
불황	호황	0.6
호황	호황	0.8

또한, A기업은 각각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한 해의 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구분	호황	불황
수익	100억	20억
비용	10억	10억

[문제 3] 당해 연도를 2014년이라고 할 때, 2016년 A기업의 기대 이익을 구하시오. 단, 경제 상황은 호황과 불황의 두 가지 경우만 있고, 2013년과 2014년의 경제 상황은 모두 불황으로 가정한다. [20점]

3. 2014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나의 형태소는 대부분 여러 개의 소리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집'은 'ㅈ, ㅣ, ㅂ'의 세 소리로 이루어진 형태소이다. '음운'은 형태소 간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소리의 단위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운이 이어지면 변동이 흔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나 말소리의 원래 소릿값이 바뀌는 것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 현상은 연속되는 두 소리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만들어 발음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음운 변동은 여러 양상을 띤다. 그 가운데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처럼, 음운과 음운이 연접할 때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음운이 서로 닮은 소리로 변하는 '음운의 동화'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서,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음운의 동화가 일어난다. 가령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설측음 'ㄹ'앞에서 공기가 코로 나가면서 코 안을 울려 나는 비음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아래 밑줄 친 낱말들을 발음해 보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뒤 음절 첫소리의 자음과 만났을 때 양쪽이 비슷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분은 저에게 따뜻한 <u>격려</u>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앞으로 쉬지 않고 몇 리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 제 인생길에 희망을 던져 준 훌륭한 <u>답례</u>였습니다.

(나) 19세기 초 맨체스터 지방에는 검은색 후추나방이 희귀하게 발견되기도 했지만, 회색 후추나방이 흔했다. 회색은 나무의 지의류와 색깔이 비슷해서 포식자로부터 보호색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 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정은 바뀌었다. 산업화로 나무가 숯 검댕이처럼 검게 오염되었고, 검은색 후추나방이 오히려 포식자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검은색 후추나방이 점점 흔해졌고, 20세기 중반이 되어서는 후추나방 10마리 중 9마리 정도가 검은색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현대 생물학에서는 진화를 '생물 집단 속에서의 유전자풀이 세대가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전자풀이란 어떤 생물 집단이 갖는 모든 유전자를 말한다. 그러면 어떤 요인으로 유전자풀이 변하게 되는 것일까?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경우의 하나로 유전자 자체에 발생한 돌연변이를 들 수 있다.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생존에 불리하여 자연 선택 과정에서 도태되기 쉽다. 발생한 돌연변이 형질이 도태될 경우 유전자풀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생존에 불리하지 않거나 유리한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 집단에서 도태되지 않고 돌연변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집단의 유전자풀에 변화가 나타난다. 19세기 초에는 돌연변이에 의해 검은색 후추나방이 나타났다고 해도 생존에 불리했으므로 돌연변이가 유전자풀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 그러나 산업 혁명 후에는 검은색 돌연변이가 오히려 생존에 유리했으므로 후추나방 개체군 안에서 번식할 기회가 증가했다. 결국 돌연변이 유전자를 자손에게 계속 전할 수 있게 되어 유전자풀에는 검은색 유전자가 증가했다. 이러한 유전자풀의 변화가 여러 세대 동안 축적되면 기존의 집단과는 다른 새로운 종으로도 분화할 수 있게 된다.

(다) '향기로운 봄'(1982)은 프랑스 기욤 소총서의 하나로 로니가 한국 소설 '춘향전'을 번역한 것이다. 기욤 소총서는 소책자이긴 하나 가죽으로 장정된 매우 고급책이며, 호화 용지에 이 총서를 위한 특별 활자를 사용했다. 속표지에서부터 삽화가 있고, 장마다 군데군데 삽화가 끼어 있는데, 그 모두가 서양인들의 의상을 입은 신사숙녀로 되어 있다. 무도회에 춤추러 다니는 19세기 말의 프랑스의 신사숙녀를 그대로 그려 놓은 것인 만큼 우리 원본 춘향전(경판본)과는 매우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 곧 프랑스식으로 분식된 작품이다. 이러한 개변은 다만 외면상의 것에 지나지 않지만, 실상 외면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내면 속으로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그중 크게 두드러진 것은 다음 네 가지 점이다. 첫째, 춘향이 기생이 아니라 다만 '서민의 딸'로 등장한다. 둘째, 춘향의 모인 기생 월매가 등장하지 않는다. 춘향이 기생이란 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퇴기 월매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셋째, 향단이 완전히 빠져 있고 그 대신 매파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로니가 설정한 매파 개념은 향단과 월매의 대역으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도령이 춘향에 접근하는 방식이 '구운몽'중의 정경패 부분 및 '숙영낭자전'의 만남 모티프와 흡사하다. 이 도령이 춘향을 만나기 위해 여장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로니는 '춘향전'을 그들의 취향에 맞게 개변하여 번역하였다. 로니는 그가 서양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출판인들도 독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온 이 도령이 철창을 가운데 두고 손을 벌려 키스를 한다는 장면도 그러한 것의 한 가지 방식이다.
역자 로니가 '춘향전'을 번역하면서 가진 근본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문에서 그가 아래의 한시를 두고 말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 金樽美酒千人血 (금잔의 맛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 玉盤佳肴萬姓膏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 燭淚落時民淚落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
> 歌聲高處怨聲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더라)

"이 짧은 시는 코리아의 정신과 감정에 대하여 더 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쳐 주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즉, 이 시는 이 느린 황색의 문명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공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는 우리와 홍인종과의 만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과 우리의 만남이 전혀 파괴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는지도 모른다."
만일 '춘향전'이 한국의 고전이라면 그것은 곧 세계 여러 인종들의 가슴속의 적대감을 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로니의 지적은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한다. 셰익스피어나 보들레르가 영국이나 프랑스의 고전이라면 그것들이 동시에 세계 여러 인종들 가슴속의 적대감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런 것을 고전이라고 할까 보냐. 로니는 '춘향전'을 그러한 고전의 하나로 보고 번역한 것이라 생각된다.

(라) "내선일체는 반도 통치의 최고 지도 목표이다. 내선일체는 서로 손을 잡는다던가, 형태가 융합한다던가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것이 아니다. 손을 잡은 것도 떨어지며 또한 별개가 된다. 물과 기름도 무리하게 혼합하면 융합된 형태로 되지만 그것으로도 안 된다. 형태도, 마음도, 피도, 육체도 모두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선일체란 재래의 조선적인 것을 버리고 일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조선 2천 3백만이 모두 호적을 들추어보기 전에는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최후의 이상이다."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관공서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아울러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아래와 같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강요하였다.

> 1. 창씨를 안 한 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 2. 창씨를 안 한 어린이들은 일본인 교사들이 구타·질책하는 등 그를 증오함으로써 어린이로 하여금 호소로써 부모에게 창씨를 하게 한다.
> 3. 창씨를 안 한 자는 공사 간 그들의 기관에 일체 채용 안 한다. 또 현직자도 점차 해임 조치한다.
> 4. 창씨를 안 한 자는 행정 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사무를 취급해 주지 않는다.

(마)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 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그늘 깊었다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곁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한잠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레이
집에 다 와 간데이

(바) 7~8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각국의 정세가 안정을 이루며 교역도 크게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는 국가나 정권을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가 전파되고 상호 교류가 확대되었고 출신 지역을 떠나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많았다. 당의 과거에 합격한 최치원이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당과 일본 사이를 중개하여 해상 무역을 독점한 장보고, 바닷길과 비단길을 통해 인도를 여행하고 당에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혜초는 신라 출신이었다. 신라인의 도움을 받아 당을 순례하고 나서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남긴 승려 엔닌과 당의 과거에 합격하여 안남도호부의 도호를 역임한 아베노 나카마로는 일본 출신이었다. 당 출신으로 일본에 문물을 전한 감진처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승려도 있었다.
당은 유목 민족과 한족이 융합된 남북조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귀족적이고 화려하면서도 개방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수도 장안은 사막을 연결하는 비단길과 인도양을 지나 광저우에 이르는 바닷길이 합류하는 동서 무역과 문화의 집결지이기도 하였다. 장안에는 학문적·종교적·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외국인 사신, 유학생, 유학승, 상인, 무인, 예술인 등이 체류하고 있었다. 크리스트교(경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와 문화가 교류되었다. 신라, 발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당의 문인, 서역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고유의 종교와 생활양식을 가지고 집단으로 거주하였기 때문에 당은 마치 세계 문화의 경연장 같았다. 세계 각국의 종교와 문화가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서로 교류하고 융화되었으며, 다시 인적 교류를 따라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서로 닮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사) 최근 사회 문화적 요인을 반영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만든 한국형 가전제품은 해외로 수출되면 현지의 생활습관에 맞게 변신을 한다.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인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깔,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틈새 상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와 같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우리의 상품들이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사례 1) 김치냉장고 생산 업체 A사는 북미 지역에서 김치냉장고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은 김치가 아니라 와인이다. 김치냉장고의 발효 과학 기술과 온도 제어 기술을 와인 보관에 적용하여 와인 냉장고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김치냉장고라는 한국적인 가전이 세계 시장에 맞도록 발전된 사례이다.

(사례 2) 비데 생산 업체 B사는 보급률이 50%가 넘는 비데의 본고장 일본에 리모컨이 장착된 전략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비데는 손만 뻗으면 바로 스위치가 닿기 때문에 리모컨이 별로 필요 없는 제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일본인의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리모컨을 장착한 비데를 내놓은 것이다.

(사례 3) 냉장고 생산 업체 C사는 인도에서 아이스팩 냉장고를 판매하고 있다. 전원 공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냉동실 안의 아이스팩이 일정 시간 동안 냉기를 유지시켜 주는 냉장고이다.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인도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상품이다.

[문제 1]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차이점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문제 2] 제시문 (마)에서 묘사된 두 여인의 '언어 사용'을 토대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융합 방식을 비판하고,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융합 방식을 서술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 3] 다음의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해 이후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일본 내 한류 열기도 눈에 띄게 식었는데, 올해 JYJ,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한류 스타들의 잇단 일본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최근 식어갔던 일본 내 한류 열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기사가 있다. 어떤 투자자가 제시문 (사)에 소개된 가전회사 A사, B사, C사 중 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 투자자는 일본 내 한류 열기가 되살아난다면 B사, C사, A사의 순서로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만일 한류 열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A사, C사, B사의 순서로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투자자가 예상하는 투자 이익은 다음과 같다(단위: 만원). 만일 한류 열기가 되살아난다면 B사, C사, A사에 대한 투자 이익은 각각 1000, 600, 100이고, 한류 열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A사, C사, B사에 대한 투자 이익은 각각 400, 200, −400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모든 판단은 기댓값(기대이익)에 근거한다고 가정한다.

[3-1] 이 투자자가 예상하는 한류 열기가 되살아날 확률은 $p\,(0<p<1)$이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가 C사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p의 범위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3-2] 투자자 본인은 한류 열기가 되살아날 확률인 p를 예상할 수가 없어서, 일본의 저명한 문화평론가에게 한류 열기가 되살아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을 의뢰하고자 한다. 이 문화평론가의 예측에 대한 정확도는 100%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p가 얼마일 때 일본 문화평론가가 제시한 예측의 가치가 최대가 되는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

4. 2015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사가 그리워하면서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는 일, 곧 유한성의 경험이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예기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유한성의 존재이면서 유한성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기억과 상상을 용접한다.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동물계 유일의 시간 형식을 인간은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천사 앞에 내놓을 위대한 자랑거리는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순간성의 조건과 유한성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남미 작가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가 나이 팔십을 넘기면서 쓴 시에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으로 시작되는 시다. 그는 자신의 한 생이 '순간'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다음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새로운 생을 어떻게 달리 살아 볼 것인가.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 / 완벽해지려고 버둥거리지 않으리."를 통해 생의 순간적 단회성을 그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과 접합하고 이미 한 생의 끝자락에 선 자의 기억은 지나간 생에 대한 성찰(실수하지 않으려고 왜 그토록 버둥거렸던가) 위에서 다른 삶의 방식(더 많이 실수하리)을 제시한다.

재탄생의 상상력은, 물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혹은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과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기억과 상상의 이런 접합은 인간이 처한 유한한 조건으로부터 나오고,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게다가, 그 연속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완벽 추구의 불가능성)한다. 천사에게라면 이런 성찰과 상상은 필요하지 않다.

(나) 왠지 나는 선생님의 그런 세심한 안배에도 끼지 못하고 늘 가장자리에 처져 있었다. 가장자리에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보였고 선생님이 아무리 공평하려고 노력해도 선생님 손이나 치맛자락을 잡을 수 있는 아이는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런 애들은 대개 예쁘고 똑똑하고 잘 까불었다. 시골이나 현저동에서 사귄 동무들하고는 다른 진짜 서울 아이들이었다.

나는 중심부의 그런 애들을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릴 정도로 부러워하고 시기도 했지만 닮을 자신은 없었다. 사람에겐 누구나 죽었다 살아나도 흉내 못 낼 것 같은 게 있는 법인데 나에겐 그게 집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통학 길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문안에 있는 학교에 밀어 넣을 생각만 했지 같은 또래를 사귈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불행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동무보다는 시골의 뒷동산을 더 많이 그리워했다. 오래 가뭄이 든 것처럼 생기 없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뿐 맨땅을 드러낸 산이 너무나 이상했다.

서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쫙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달개비 이파리의 도톰하고 반질반질한 잎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노방보다도 얇고 섬세한 잎맥만 남았다. 그 잎맥을 입술에서 떨게 하면 소리가 나는데 나는 겨우 소리만 냈지만, 구슬픈 곡조를 붙일 줄 아는 애도 있었다.

나는 숨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헐벗고 정기 없는 산을 혼자서 매일 넘는 메마른 고독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추억을 만들고, 서울 아이들을 경멸할 구실을 찾았다. 사직 공원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윽고 온 산에 비릿한 젖내를 풍기며 아카시아꽃이 피어났다. 아카시아꽃이 만개하자 사내아이들이 산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질하듯 모질게 탐스러운 가장귀를 꺾어서 꽃을 따 먹었다.

아카시아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서였다. 잘 먹는 아이는 송이째 들고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 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어갔다. 나도 누가 볼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 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척지근했다. 그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로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 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 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다) 후천성 면역에서는 림프구의 수용체를 통해 병원균을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다. 후천성 면역에 관계되는 림프구로는 B세포와 T세포가 있다. 림프구는 다른 혈구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나와 심장 윗부분의 흉강에 있는 흉선으로 이동하는 림프구는 T세포로 발달한다. 반면 골수에 남아서 계속 성숙하는 림프구는 B세포가 된다. T세포와 B세포는 식균 작용이나 항체 생성과 같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쥐에 항원 X를 주입한 후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고, 4주 뒤 그 쥐에 다시 항원 X를 주입하여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항원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1차 면역 반응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항원이 들어 왔을 때 기억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차 면역 반응 동안 활성화된 B세포의 일부는 기억 B세포로 분화되어 항원이 모두 제거된 뒤에도 체내에 오랫동안 남는다.

동일한 항원에 다시 감염되었을 때 기억 보조 T세포의 작용으로 기억 B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기억 B세포는 신속하게 형질 세포로 분화되어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항원이 2차, 3차 침입하면 처음보다 항체의 생성 속도가 훨씬 빠르며, 항체 생성량 또한 훨씬 많다. 대부분의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방어가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번 걸린 병에 두 번 걸리지 않는 것도 면역계가 기억하여 신속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역 기억 능력 때문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라)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마) 매체 환경이 변화되면서 매체 언어 독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글을 찾아 읽으면서 자신이 모르는 정보를 동시에 검색하며 읽을 수 있고, 또 독서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가상의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토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술 발달에 따른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과 유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독서 환경에 따라 매체 언어 독서를 할 때는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 및 유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체 언어를 읽기 위해서는 매체를 다루는 최소한의 기술, 즉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특히 글과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 언어의 독서를 융합적 읽기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영상 매체를 다루는 것은 융합 매체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호학적 지식과 그러한 다양한 매체의 처리 방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지적 기능이 요구된다. 오늘날 다매체 사회에서의 독서란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매체 생산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한편, 매체의 발달에 따라 지식의 구성 방식이나 지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지식을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책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자 했으며, 한 번 기록된 지식과 정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식이란 것도 각 사회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지식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과학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식의 양과 종류가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축적된 모든 지식을 읽거나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컴퓨터 및 인터넷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음악적 불모지까지의 통로는 어떻게 만드는가. 악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나, 어려운 것은 실천이다.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음악적 불모지라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음악적 경험을 얻을 수 없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난다는 말은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통로가 없다는 뜻이다. 이 통로의 개척이 음악적 경험을 위하여 첫째로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은, 통로의 개척은 반복적 음악 청취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동일한 곡을 백 번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천 번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천 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천 번이라도 들어야 한다. 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이라는 말이 음악적 경험에서 핵심적인 어휘가 된다. 기억되지 않는 대상에는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악은 시간을 타고 흐른다고 한다. 시간 속에서 음들이 여행을 한다고나 할까. 여행에는 출발점이 있고, 거쳐야 할 지점이 있고, 여행의 목적지가 있다. 또한 여행 스케줄이 있고 여행의 통로가 있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을 강조하는 것은 이 통로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 통로를 기억하였다고 해서 여행의 의미를 자동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나지 않게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통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적 청취에 의해서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통로가 생기고 나면, 음악적 불모지의 개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사) 숙종 연간에 활약한 저명한 문사 김득신(金得臣) 은 글을 한번 읽었다 하면 최소한 천 번을 읽었고, 제법 좋아하는 책이면 만 번 이상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사기(史記)" '백이전(伯夷傳)'은 너무 좋아한 나머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하니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독수(讀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백이전'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였겠지 치부하고 말았었다. 3천 번을 읽는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1억이라니! 하지만 김득신의 "백곡집(栢谷集)"에서 고문(古文) 36편을

읽고 각기 몇 번을 읽었는지를 밝혀 놓은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를 확인하고서 전에 들은 이야기가 가담항설(街談巷說)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몇 번을 읽었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경서와 문장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암송이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은 눈으로 훑어 읽는 안독(眼讀)이 아니라 율조를 실어 소리 내어 읽는 성독(聲讀)을 하였다. 김득신의 독서는 당연히 성독이었다. 그래서 책을 읽은 수효를 계산하는 서산(書算)을 이용하여 독수(讀數)를 헤아렸던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양독서법(歐陽讀書法)에서 "글자의 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효경(孝經)'은 1,903자, '논어(論語)'는 11,750자, '맹자(孟子)'는 30,685자, '주역(周易)'은 24,107자, '서전(書傳)'은 25,700자, '시전(詩傳)'은 39,234자, '예기(禮記)'는 99,010자, '주례(周禮)'는 45,806자, '춘추좌전(春秋左傳)'은 196,845자였다. 날마다 3백 자씩 외운다면 4년 반이면 다 마칠 수가 있다. 조금 우둔한 사람이라서 반으로 줄여 외운다 해도 9년이면 다 외울 수가 있다."라고 하여 암송해야 할 책의 자수(字數)까지 일일이 헤아려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수를 계산하였다. 읽어야 할 책이라면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것을 중시하였던 시대의 공부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사례를 찾아보면, 송(宋)의 홍매(洪邁)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세 번이나 필사(筆寫)하였는데 금나라 종실(宗室) 한 사람은 그 책을 30여 차례나 읽었다고 한다. 조선의 유희춘(柳希春)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암송하였고, 송익필(宋翼弼)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암송하였는데, 조헌(趙憲)은 그 두 저서를 모두 암송하였다고 한다. "자치통감"은 294권, "주자대전"은 124권, "주자어류"는 140권이니 인류의 저서 가운데 방대함으로 손꼽히는 것들이다. 이런 분들은 비범하기 짝이 없는 분들인데도 저다지 근면하게 공부하였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부법을 기록으로 남긴 학자가 적지 않지만, 나의 기억으로는, 항해(沆瀣) 홍길주(洪吉周)가 "숙수념(孰遂念)" '사부송유(四部誦帷)'편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옛사람의 독서법을 소상히 엿볼 수가 있어서 인상에 깊이 남아 있다. 그는 암송해야 할 글의 목록과 읽어야 할 책의 순서, 과목, 시간, 자세를 목록으로 만들어 실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들어 보면, "연소한 사람은 경서 전체를 외워야 하고 뽑아 외워서는 안 된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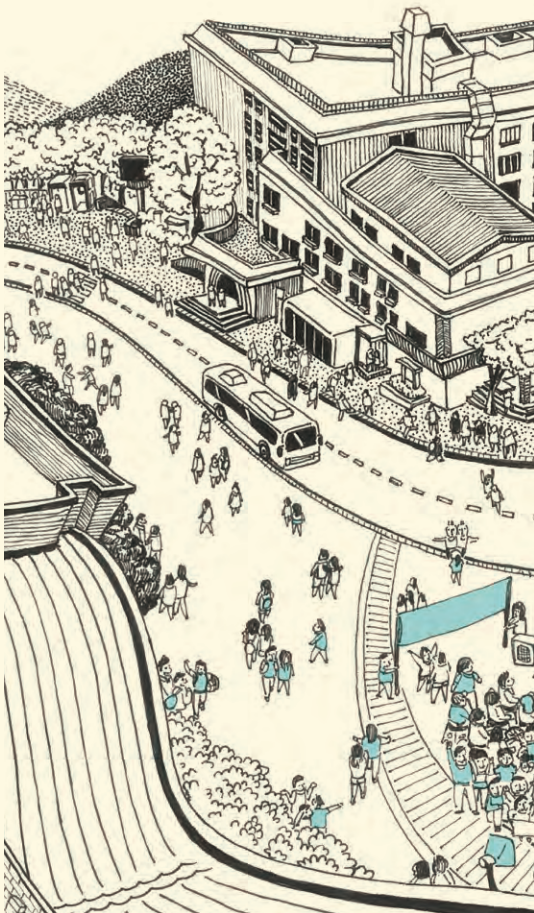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기억의 역할'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H기업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소형 승용차 A와 대형 승용차 B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프레스 공정과 조립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산 라인 수와 인력을 고려할 때 공정별 일일 이용 가능 시간은 각각 300시간과 90시간이다. 차종 A의 경우 대당 2.5시간의 프레스 공정과 0.6시간의 조립 공정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 B의 경우 대당 5시간의 프레스 공정과 2.4시간의 조립 공정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 차종 B에 장착되는 고성능 GPS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하루 최대 30개까지만 조달 가능하다. 자동차 생산은 프레스 공정과 조립 공정으로만 구성되고,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 A와 B는 생산되는 전량이 판매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차종 A와 B의 대당 판매 이익은 각각 160만원과 400만원이라고 한다.

[문제 3] H기업은 현재의 생산능력 범위 안에서 전체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차종 A와 B의 일일 생산 대수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H기업은 차종 B에 장착되는 고성능 GPS의 가격 변화에 따라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이 변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앞에서 결정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를 구하시오. [20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14/6114
안성캠퍼스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Tel.** 031-670-3114/4114
입 학 안 내 **Tel.** 02-820-6393 http://admission.cau.ac.kr

http://www.cau.ac.kr/

본교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